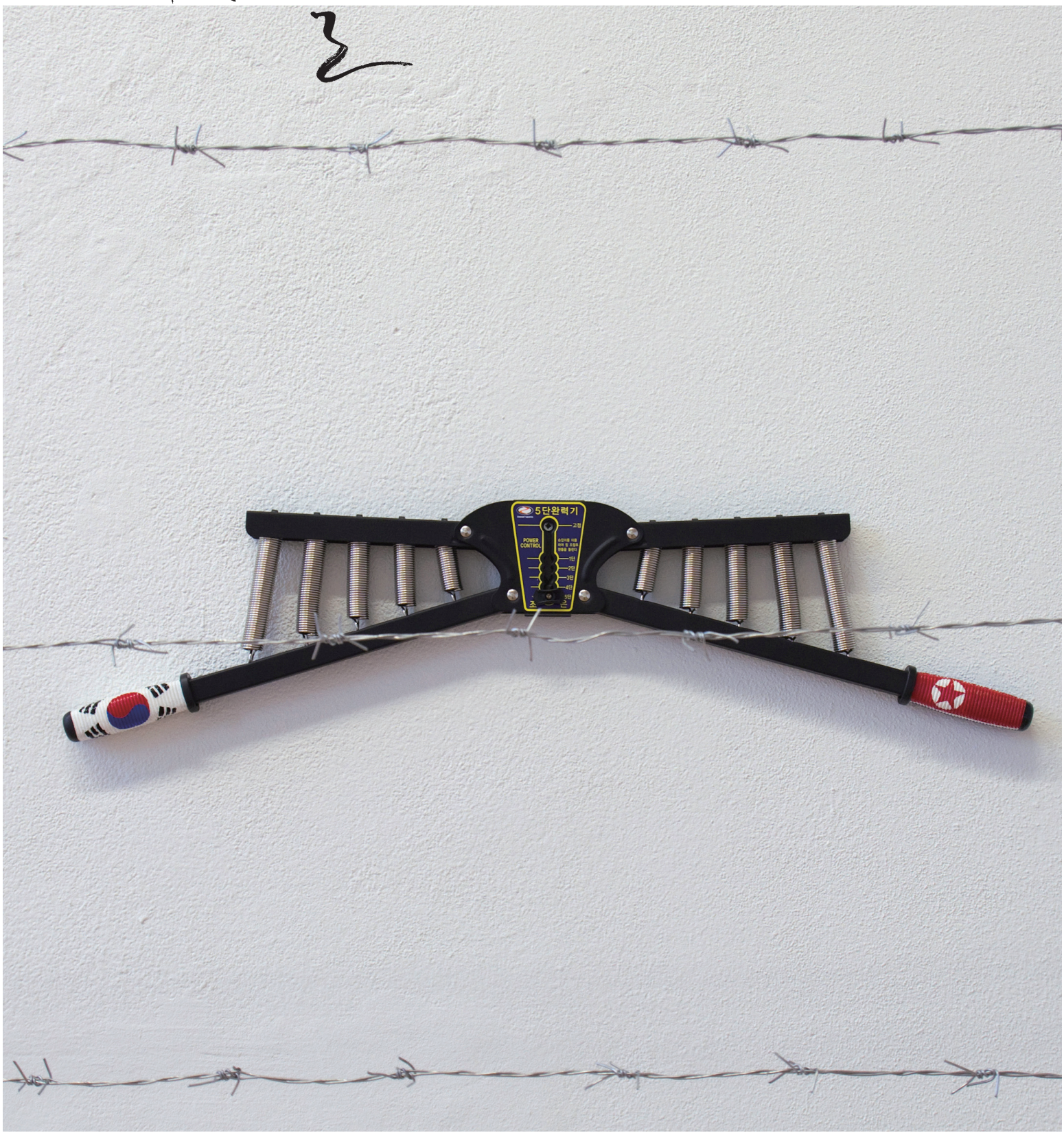
문화+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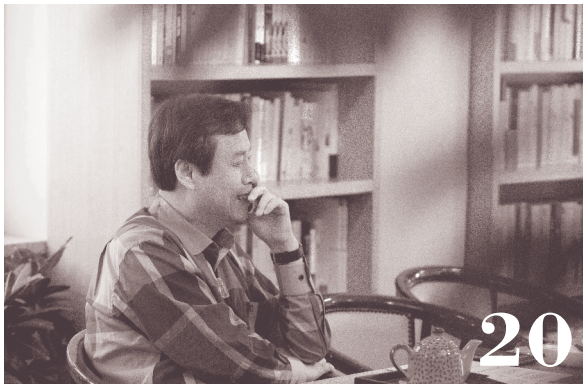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6
2016



6월의 테마토크

삶이 예술로 풍요로워지는 예술교육 현장 속으로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생활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점점 그 종류가 늘고 있다. 4월~11월까지 진행되는 2016 서울시민예술대학은 그 대표적인 예. 이 밖에도 다양한 공공영역에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6월 테마토크에서는 약간의 관심과 행동으로 일상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다양한 시민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 현장을 찾아간다.



사람과 사람

시인·국회의원 도종환

〈접시꽃 당신〉의 시인으로 알려진 도종환은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수인의 몸으로 시집 〈지금 비록 너희 곁을 떠나지만〉(1989)을 발간했다. 그는 교사로, 시인으로, 시민운동가로, 정치인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각자의 마음속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미지화되어 있을 것이다. 올해 새로운 시집 출간을 앞두고 있는, 여전히 시와 정치의 길을 함께 걷는 도종환 시인과 만났다.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은 2016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문학진흥법,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그리고 시와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실 혹은 대담

표절, 자본의 논리와 예술의 윤리 사이

자본시장이 확장되면서 자본이 예술을 잠식하고 예술은 자본에 종속되는 현상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자본의 논리가 비평의 논리를 무색하게 한다. 잘 팔리는 것이 예술의 공공선이고 예술성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 과정에서 '표절'은 예술가의 윤리의식을 지워버리고 있다. 예술의 창조성을 위한 예술가의 고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예술계 내부의 성찰이 필요한 지점이다.

쟁점1

이화마을 벽화 훼손 사건, 갈등과 과제

지난 4월 이화벽화마을의 대표 벽화 〈해바라기 계단〉과 〈잉어 계단〉이 주민에 의해 훼손됐다. 공공미술과 도시재생, 그로 인한 방문객의 증가, 해결되지 않은 주민의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 어느 한쪽의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한편으로 이는 드러난 갈등을 확인하고 해결해 마을 상생의 제2막을 모색할 기회이기도 하다.

contents

02 **커버스토리** | 이달의 표지 작가 김치신

테마 토크
삶이 예술로 풍요로워지는 예술교육 현장 속으로

06 **시민예술교육의 의의와 과제** | 삶과 가까워지는 예술, 그리고 예술교육
08 **예술로부터 삶을 지탱할 자신감을 얻는 2030 청년** | 문화예술은 재미있는 친구이자 좋은 스승
10 **나를 위해, 자녀를 위해 배움에 적극적인 30~50대 여성** | 예술로 스트레스 풀고, 에너지 얻고
12 **인생 제2막을 시작하는 남성 베이비부머 세대** | 중년 남성, 나를 찾아 떠나다
14 **춤과 노래로 건강한 삶 얻는 실버 세대** | 건강과 행복이 최고
16 **서울시민예술대학 '카페 콜라주' 수업 현장** | 일상과 예술, 나와 우리의 콜라주

사람과 사람

20 **시인·국회의원 도종환** | 시란, 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것
26 **연극 〈햇빛사워〉 주연배우 김정민** | 배우, 온실 밖 햇빛 속으로

30 **진실 혹은 대담** | 표절, 자본의 논리와 예술의 윤리 사이
36 **예술가의 밥그릇** | 그린디자이너 양지윤
38 **서울 찰나** | 내가 만진 시간, 당신

이슈&토픽

40 **쟁점 1** | 이화마을 벽화 훼손 사건, 갈등과 과제
42 **쟁점 2** | 서울시의 박물관·미술관 건립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와 우려
44 **화제** | 광역시도문화재단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창립총회 개최

48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

공간, 공감

50 **공간 1** | 재래시장에서 만나는 〈시장에 간 서커스〉
52 **공간 2** |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복합문화공간 '플랫폼창동61'
54 **공감 1** | 연극 〈갈매기〉와 〈레드〉
56 **공감 2** | 전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특별전〉과 〈빅(BIG): 어린이와 디자인〉
58 **공감 3** | 책 〈녹턴〉과 〈삿포로의 여인〉

60 **예술적 상담소**

Soul of Seoul

62 **메모리 인 서울** | 선물보다 순수한 동심이 빛나던 어린이날 풍경
64 **서울 단상** | 시간과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상도동
66 **강상준의 썰(說)** | 미드 〈왕좌의 게임〉 시즌6이 시작됐다!
68 **신지수의 음악 정원으로** | 평균율이 다 담지 못하는 미분음의 세계
70 **서울 건축 읽기** | 건축에서 차용하는 '복고'의 클리셰

72 연극in **10분 희곡 릴레이** | 김상민 작 〈뒤풀이〉

6월의 서울문화매뉴얼

74 **6월 Calendar**
84 **편집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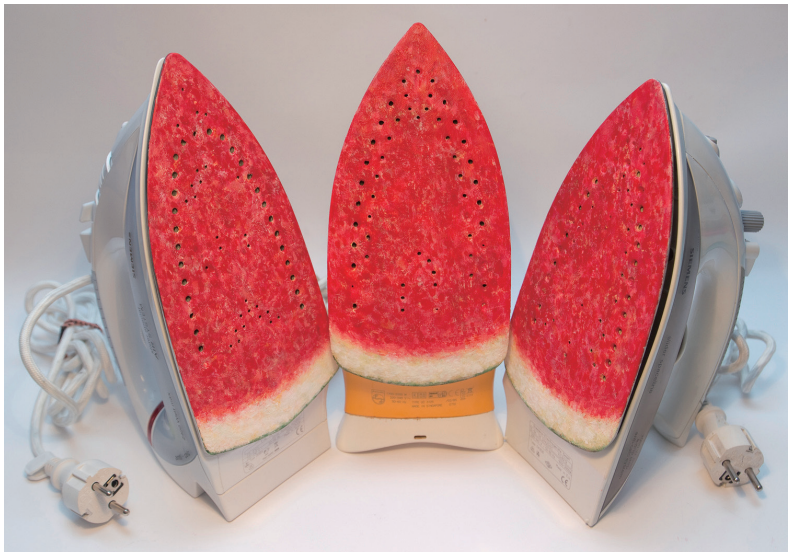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조선희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 오니트(주)
디자인 오니트(주) **사진** 249 스튜디오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00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발행일 2016년 5월 31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I'm so hot〉
다리미에 아크릴 채색 | (12×30×17cm)×3 | 2012

〈exchange-hammer〉
나무, 석조용 '정' | 약 (8.5×9×4.5cm)×2 | 2013

이달의 표지 작가

김치신

많은 작가와 마찬가지로 처음 작업은 '나'로부터 시작됐다. 독일에 있던 외국인, 동양인, 한국인으로 생각의 범위가 옮겨가면서 사회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개인의 이야기부터 국내외 사회문제까지 작업의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와 '우리'의 지금을 표현고자 한다.

표지작은 작품 〈someday〉의 일부분으로, 〈someday〉는 독일의 완력기, 김정일 사망 당시의 신문 기사와 직접 겪은 에피소드를 드로잉으로 표현한 작업, 그리고 철조망이 함께 설치돼 완성한 작품이다. 독일의 상황 (완력기의 두 손잡이가 하나가 되어 독일의 국기 이미지를 만듦. 여기에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과 한국의 상황(완력기의 두 손잡이는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5단계를 나타내 하나가 되지 못함을 상징. 다소 팽팽하고 위험해 보이는 철조망의 설치 상태는 남북의 긴장을 표현하기 위함)을 비교하고 표현한 작업인데, 독일 생활은 당시 당연하게 여기던 한국의 분단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며 이때부터 국내외 사회문제들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작업의 주제나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미학적인 부분 역시 중요하게 고려한다. 또한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조금 더 생각할 여지가 있는 작업을 하려 노력한다. 일반적인 미술 재료보다는, 전혀 새롭거나 일상적인 소재에 관심이 많고 장르 구분 없이 설치, 조각, 드로잉, 사진, 영상 등 주제와 가장 어울리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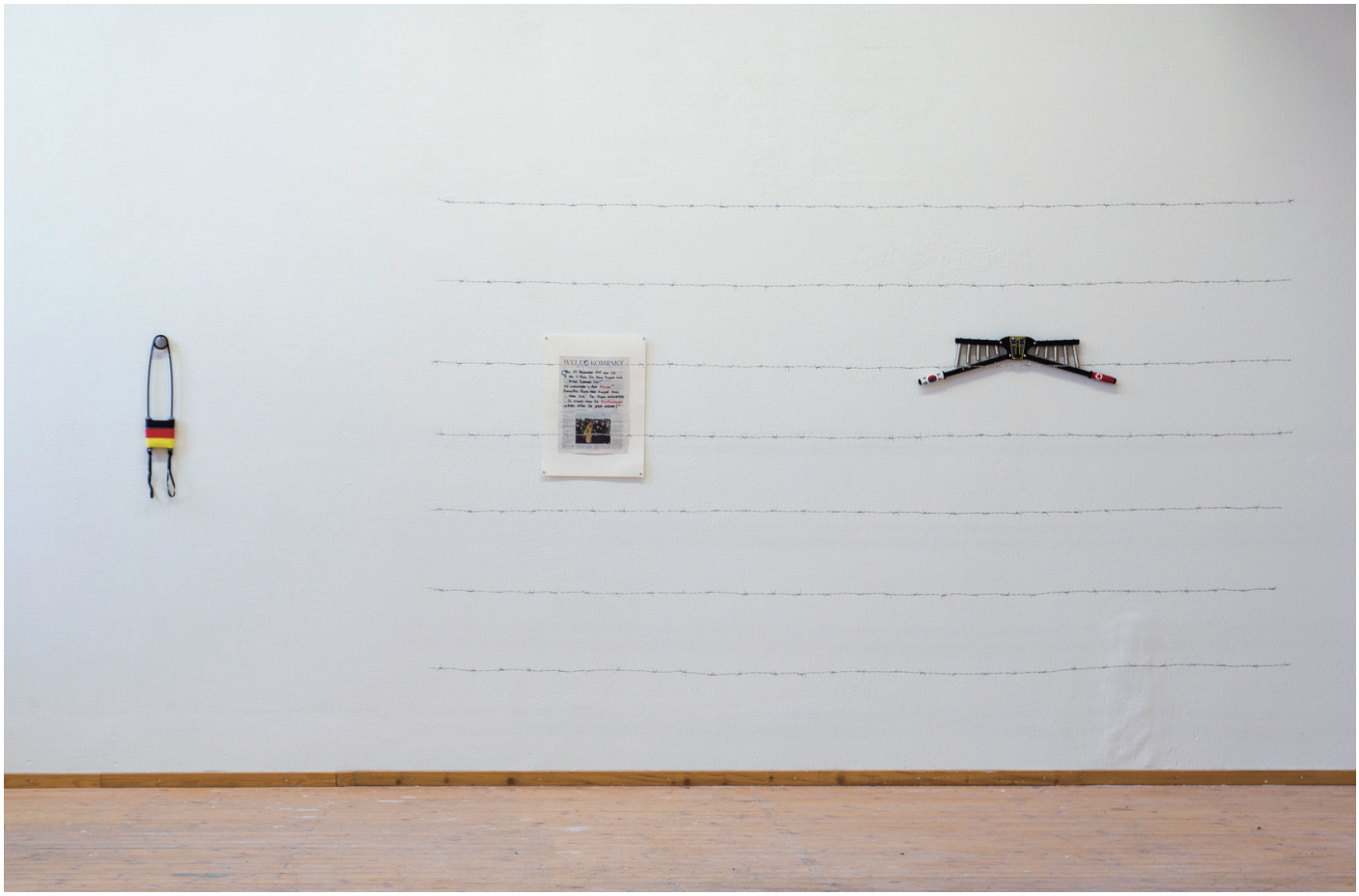
최근의 작업은 대부분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진행해왔다. 그러한 작업들이 다소 단편적인 상황만을 가끔 보여주는 형태가 되다 보니 더 포괄적인 주제나 나만의 성향을 찾으려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폭력'에 관한 작업인데, 그간 해온 사회적인 작업에서 공통적으로 유추한 키워드가 '폭력'이고 이는 무력과 권력이라고 생각해 작업을 구상하고 있다. 사회적인 작업 외에도 많은 작업은 나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우리'의 모습을 작업에 담는 것과 함께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글 **김치신**

표지작 〈someday〉
한국산 완력기에 아크릴 채색, 독일산 완력기에 테이프, 2011년 12월 29일 독일 신문(김정일 장례식 다음 날)에 매직펜, 철조망, 투명 나일론 줄 | 가변설치 | 2013

김치신

2016년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 분야 지원작가. 경기대학교에서 환경조각을, 독일 뮌헨 조형예술대학교에서 조각을 공부했다. 개인전 〈Ordinary Art〉(일본 도쿄, GALLERY MoMo Projects, 2013)와 그룹전 〈사물변주-事物變奏〉(서울, 스페이스K, 2014), 〈부평 영아티스트 선정작가전〉(인천, 부평아트센터, 2015)를 비롯한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고 제2회 의정부 예술의전당 신진작가 공모전(2015)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 6기로 입주해 활동하고 있다.



WELT KOMPAKT
Am 29. Dezember 2011 war ich in der U-Bahn. Ein Mann fragte mich: „Woher kommen Sie?" Ich antwortete: „Aus Korea." Daraufhin fügte mein Kumpel hinzu: „Aber Süd." Der Mann antwortete: „Ja, stimmt. Wenn Sie Nordkoreaner wären, sollen Sie jetzt weinen!"
Staatstheater

Univ
OF
ART

삶이 예술로 풍요로워지는 예술교육 현장 속으로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일상 생활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인이 참여할 만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점점 그 종류가
늘어나고 있다. 4월~11월까지 진행되는
2016 〈서울시민예술대학〉은 그 대표적인 예.
이 밖에도 다양한 공공영역에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6월 테마토크에서는 약간의 관심과
행동으로 일상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찾아간다.
먼저 칼럼에서 평생학습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소개하고, 리포트에서는
연령 및 성별의 특성에 따라 예술교육
참여자들을 네 그룹으로 분류해
각 그룹에 해당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끝으로 전 연령대의 수강생들이 한자리에 모인
〈서울시민예술대학〉의 '카페 콜라주'
수업 현장 상황도 전한다.
초록이 싱그러운 6월,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표현하기 위한 이들의 움직임은
서투르더라도 마음은 즐겁기만 하다.

그림 손민정

시민예술교육의 의의와 과제

삶과 가까워지는 예술, 그리고 예술교육

예술은 우리의 삶과 얼마나 가까울까. 경외의 대상이 아닌, 즐기고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예술'이 삶과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오고 있고, 최근에는 치유의 역할이 강조되며 예술을 경험할 기회가 늘고 있다. 일상의 변화와 자기 발견을 기대하는 시민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콘텐츠를 채우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2015년 평생교육 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40.6%가 매년 평생교육을 받고 있고, 문화·예술·스포츠 교육을 받고 있는 국민은 1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1명은 매년 문화·예술·스포츠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자체 시설, 평생학습관, 시민사회단체 부설기관, 언론 부설기관, 산업체 부설기관, 문화센터 등에서 문화·예술·스포츠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을 받는 목적을 살펴보면, 외국어, 기술 등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 문화·예술·스포츠 교육을 받는 사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 최근 교육부 진로교육 실태조사에서 고교생 희망 직종 1순위로 문화·예술·스포츠가 꼽히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국민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일반적인 예상보다 높다는 뜻이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문화적 DNA가 있다. 하나는 교육 DNA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예술 DNA다. 교육과 예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중국의 역사책인 〈후한서〉, 〈구당서〉, 〈신당서〉 등에 고조선과 고구려는 '가무' '기예' '독서'를 좋아하는 민족이란 서술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학력을 가질 수 있었고, 국가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문화예술 DNA는 문화 한류로 이어지고 있다. 문화예술은 대한민국 국민 삶의 원천이다. 문화예술은 우리 삶에 활기를 불어넣고 삶을 풍요롭게 한다.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 치유를 경험한다.

문화예술교육이 사람들과 더 가까이 만나려면

문화예술을 마음껏 즐기고 배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장소의 제한과 문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수요자에게 좀 더 다가가고,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눈높이를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은 엘리트 교육이 주가 되어왔다. 현행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는 법 제정의 목적이 국민의 '문화 역량'을 증진하는

서울문화재단
WWW.sfac.or.kr

것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모두가 문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누구나 문화예술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문화예술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작품을 생산하는 교육도 중요하나 소비자인 시민이 체험하고 즐기는 교육을 더욱 중요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대중문화를 문화예술교육의 장르로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노래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다른 것이 현실이다. 이 간극을 좁히고 수요자들이 좋아하는 대중문화를 적극 수용해 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활 속에서 호흡하는 문화예술을 배우는 교육이 시민의 문화 역량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문화예술의 치유적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초고속으로 성장해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됐으나, 정신건강은 오히려 나빠지는 추세에 있다. 많은 국민이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중독 등에 시달리고 있다. 문화예술은 자기 노출을 꺼리는 대상자들에게 자연스러운 자기 표현과 사회적 관계성 회복에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치유적 효과를 거둘 경우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감이 더욱 향상될 수 있다. 특히, 고령화로 노년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년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치유하는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유로워진 삶, 예술로 더욱 풍성해지도록

최근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행복한 삶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시민예술대학〉을 비롯해 서울시의 〈서울시민대학〉, 〈지혜로운 학교〉 등 지자체 및 각종 단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는 평생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시민대학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평생교육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학습형 시민(예술)대학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평생학습형 시민(예술)대학을 서울시 여러 곳에 설치해 시민에게 좀 더 다가가고,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이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본다.

글
김창환
연세대학교(영문학과)와
동 대학원(교육학과)을
수료한 후 독일
튀빙겐대학교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시도교육청 평가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외교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으로 있다.

예술로부터 삶을 지탱할 자신감을 얻는 2030 청년

문화예술은 재미있는 친구이자 좋은 스승

현재 20~30대 청년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 세대로서 이들이 태어난 시기(대략 1979~1992년)에 출생률이 비교적 높았다는 의미로 흔히 '에코붐(echo-boom) 세대'로도 불린다. 경제가 한창 성장하던 시기에 유년기를 보냈기에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 성향이 강하다'고 정의되는데 그와 달리 이들의 2016년은 '풍족'과 거리가 멀다.

2030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회적 사건은 1997년 IMF 외환위기다(20대 2위(15.1%), 30대 1위(26.8%). 출처: 한국청년정책연구원 2011년 조사). 당시 청소년이던 이들은 부모의 실직이나 그에 준하는 경제적인 충격을 경험했고, 경쟁을 체화하며 성인기에 접어들었지만 비싼 등록금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88만원, 잉여, N포, 근래 수저계급론까지 2030세대와 관련한 키워드에는 사회구조적인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그로 인한 조소가 유난히 짙게 배어 있다.

사실 문화예술적인 경험으로 볼 때 2030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화활동을 즐기고 이에 익숙하며 문화예술교육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낮을수록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높아 20대 이하는 41.4%, 30대는 35.3%가 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세 명 중 한 명꼴이다. 2015년 서울시민 문화예술 향유 실태조사에서는 문화에 대한 욕구, 참여도와 방식 등을 고려해 20대부터 60대까지 조사 대상자를 8개 특성 그룹으로 파악했는데, 이 중 20대는 "현실에 대한 불안을 문화로 극복하는 '문화열광족', 문화 소비시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30대 미혼 여성은 "문화에 대한 사랑을 꽃피우는 '화려한 싱글녀'"로 호명했다. 문화예술의 소비와 교육 모두 가장 활발하다는 의미다. 기업 및 언론사와 출판사,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민간 영역의 문화예술교육 공간(KT&G상상마당, 한겨레문화센터, 문지문화원 사이, 디노마드학교 등)이 대학가 인근에 다수 분포돼 있다는 점도 2030세대가 이들의 중심 수요층임을 방증한다.

세대의 특성과 문화예술교육 환경 사이에는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다.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는 이러한 교육이 단순 문화 경험부터 스펙 쌓기, 실제 취업 준비용이기도 하고 직장인에게는 취미활동일 수 있다. 물론 예술의 본질 자체를 들여다보려는 이들도 있다. 입시 지옥을 거친 후 아무리 배우고 갖춰도 넘기 힘든 취업문 앞에 낙담하고, 취업 후 초과 노동과 저임금을 감수해야 하는 지금의 청년 세대는 성취보다는 좌절에 조금 더 익숙하다. 나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나는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찾아야 할까 고민이 많은 2030세대는 예술을 그 힌트로 삼는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서울시민예술대학〉의 기획 프로그램 '시詩 시視 시始 작!'(이하 '시시시작')은 팍팍한 현실 속에서 '나'의 언어를 찾고자 하는 청년 세대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언어를 찾아 시를 쓰고 직접 활자를 종이에 배치해 시각적인 변주를 주는 북디자인을 체험하며, 자기만의 책을 만들어 낭독하고 전시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내용. 이 과정은 문학이 지닌 성찰과 소통, 치유의 힘을 경험함으로써 청년 세대가 삶을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수업에 참여한 김정희(27) 씨는 지난해 취업을 준비하던 때 '시시시작'에 참여하며 자신과 세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MINI INTERVIEW

문학을 통해 저 자신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2015 〈서울시민예술대학〉의 '시시시작'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요?

평소에 진은영 시인을 좋아했고, 그분이 참여하는 시 창작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관련된 설명을 찾다가 2030 청년들이 시를 통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것도 좋았고, 그전에 독립출판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글쓰기는 낯설지 않았지만 시 창작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은 없어서 시를 배울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적이 있나요?

취업 준비를 위해 한겨레문화센터의 강의를 수강한 적은 있지만 '시시시작'과 같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처음이었어요. 또래 친구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참여하고 싶어 하면서도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찾아서 신청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수업에서 어떤 점이 가장 좋았나요?

가장 기대했던 건 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과 나에 대해서 이해할 기회라는 점이었어요.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같은 조원들과 시를 공유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수업에 참여하면서 삶에 변화가 있었다면요?

'시시시작'에 참여할 당시에는 취업을 준비하던 때라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세상에 내가 필요 없는 존재는 아닐까 고민도 많이 했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죠. 저 자신을 미워하기도 했는데, '시시시작'에 참여하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저를 감싸 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수업을 통해 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시시시작'을 통해 배운 건데,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싫어하는지 끊임없이 발견해가면서 제가 가장 행복한 일을 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여전히 가끔씩 시를 쓰면서 나에 대해 고민하고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시시시작'과 같이 문학의 성찰과 치유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한 발짝 더 나아가 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등단에 도전해보고 싶은 이라면 **'연희문학학교'**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도 좋겠다. 시 창작과 소설 창작 두 분야의 수업이 연희문학창작촌에서 진행된다. 관심 있는 이들은 서울문화재단 페이스북을 수시로 확인하자. 서울무용센터에서 진행하는 **'Anybody Can Dance(ABCD)'**는 무용 비전공자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즉흥 무용과 연기, 신체 표현을 통해 오감이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서울시민예술대학〉이 체험형 예술교육이라면 **〈서울시민대학〉**은 인문학 중심 강좌다. 〈서울시민대학〉은 서울시가 시민에게 풍성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민청, 뚝섬·은평·중랑 학습장, 대학(14개)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시민청 시민대학은 2016년 상반기 '인문학적 성찰, 시민 민주주의, 삶의 터전, 예술적 감수성' 4개 분야 24개의 강좌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운영한다. 문화, 예술, 문학, 역사, 철학 등을 수업의 주제로 하는 가운데 일부 수업은 저녁 시간에도 개설돼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학생, 직장인도 짬을 내 참여할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 교양수업과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히든보이스'**는 점심시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가까운 지역에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이 욕심 내볼 만하다. 국내 최정상의 성악가와 함께 노래를 불러보며 진정한 나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힐링 성악 프로그램'으로 할 말을 꾹꾹 눌러 담았던 이들이라면 잠시 시원하게 목청을 틔워도 좋겠다.

나를 위해, 자녀를 위해 배움에 적극적인 30~50대 여성

예술로 스트레스 풀고, 에너지 얻고

30~50대 여성은 같은 연령대 내에서도 혼인 여부, 자녀의 유무 등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는 그룹이 여럿 존재한다. 그럼에도 공통적인 것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고 참여 욕구가 높다는 점이다. 비용과 시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30~50대 여성은 자기 자신 또는 자녀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며 삶을 채워가려는 경향을 보인다.

2015 서울시민 문화예술 향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8개 문화활동 특성 그룹 중 30~50대 여성이 속해 있거나 해당하는 그룹은 5개다. 이는 연령, 결혼, 자녀, 사회생활 등 다양한 변수 유무에 따라 문화활동의 특성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30대 여성이어도 미혼여성의 경우 문화 소비가 가장 활발한 '화려한 싱글녀'로 이야기되는 반면, 혼인을 하고 자녀가 있는 이들은 '육아 부담으로 문화 최전선에서 물러나는 '육아맘'으로 분류된다. 또한 자녀가 비교적 어려 육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시기(30대 '육아맘')가 지나면 자녀의 성장에 따라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에 이를 계기로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변화된 환경에서 문화 향유의 새로운 방식을 찾는 '컬처맘'), 50대에 들어서면 삶의 중심에 자녀보다 '나'를 먼저 두는 경향(양육의 그늘에서 벗어나 문화 강좌에 열공하는 7080 '낭만족')을 보이기도 한다.

문화예술 관련 교육 경험에 대해서는 30~50대 여성의 경우 경험이 없는 이(30대 39.1%, 40대 41.8%, 50대 24.5%)보다 있는 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또는 백화점 문화센터 등에서 마련하는 강좌가 40대 이상의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문,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중년 여성은 (시간과 비용의 제약을 느낌에도) 비교적 높은 접근성을 지닌 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과거 문화 강좌에서는 꽃꽂이, 등공예, 지점토공예, 홈패션 등 실생활에 응용 가능한 생활예술이 중심이었다면, 근래에 접어들수록 문학, 무용, 연극 등 자기 표현을 중심으로 창작하는 장르로까지 그 종류가 더 다양해진 경향도 발견할 수 있다.

2016 〈서울시민예술대학〉의 '댄스를 부탁해'는 무용과 문학이 결합된 수업이다. 총 15회차 수업은 '막춤의 기술' '속풀이 댄스' '시 춤' 세 단계를 거치는데, 처음에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표현하는 법을 익히고, 여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끌어내 시를 짓고 이를 언어와 몸의 움직임으로 결합해 보는 수업이다. 참여 대상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평일 오후(낮 1시~3시)에 진행되는 특성상 학생 및 프리랜서부터 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이들 스무 명이 모였다. 이 중 30대 후반의 주부 정은나(39) 씨는 춤을 통해 마음의 건강과 활력을 얻는 법을 찾은 것 같다며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MINI INTERVIEW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는 것도 '나를 채우는 것'이 시작이죠

'댄스를 부탁해' 수업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요?

어릴 적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제 아이도 함께 즐기고 느꼈으면 해서 유아 때부터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각종 공연을 검색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2013년 8월쯤 서울무용센터에서 진행된 '우리아이와 함께하는 전래움직임놀이' 수업을 접하며 흥미가 생겼는데 시간이 맞질 않아 참여 못하다가 이 수업의 '나와 세상을 발견' '막춤의 기술' '속풀이 댄스'라는 소주제에 끌렸어요. 어디에 가서 속풀이 댄스를 할 것이며 막춤을 배워볼 기회가 있겠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 참여하게 됐습니다.

다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적이 있나요?

인문학 여행, 악기 배우기, 아이와 함께 명화감상 등에 참여해봤는데, 다른 곳의 강의는 기술 습득이나 실력 향상에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 지금 수업은 수강생들이 각자 안고 있는 문제들을 서로 소통하고 그 안의 감정들을 풀어헤치는 작업이 중요하죠.

수업에 참여하면서 삶에 변화가 있었다면요?

살고 있는 범위를 넓혀 더 크고 넓은 바깥 세상에 대해 상상하면서 꿈을 가질 수 있게 도전할 용기가 생기는 계기가 됐고, 제 몸의 움직임이 건강하고 살아 있음에 활력을 느껴요.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즐기는 활동이 생겼달까요. 삶의 태도가 적극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 같아요.

참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존에 참여해본 교육 프로그램은 배우고 익히려는 목적이 컸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스트레스 해소, 치유로 나를 돌아보고 살펴 볼 시간을 마련하고 창조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계기를 얻는 것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나를 채우기' '나 스스로 만들기'예요. 저 자신의 존재가 가득 채워져야 다른 이에게 베풀 수 있기 때문이죠.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는 것도 나를 오롯이 세워야 그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 작은 것부터 바꾸고 새롭게 시작해보는 목표를 찾는 게 지금 저에겐 중요합니다.

〈서울시민예술대학〉의 프로그램에는 연극, 무용 등 몸의 움직임을 배우고 표현하는 수업이 많다. **'디다스칼로스, 삶을 예술로 풀어내다'**는 역사적 인물의 사례를 알아보고 현대사회가 처한 위기 극복을 주제로 개인의 삶을 연극 무대에 올리는 프로그램이다. **'연기-"나"를 찾아가는 여행'** 역시 다양한 연기 훈련 과정을 통해 '나'의 아름다운 소리와 움직임을 표출하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 **'체험공방, 칠보문화카페-색은 소원을 담는다'**는 칠보공예에 관심 있는 28~40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자신의 생각을 아름다운 빛깔의 전통공예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은 이들에게 권한다.

예술의전당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인문아카데미, 힐링아카데미 등 일반인의 예술 입문 프로그램부터 어린이미술아카데미, 청소년아카데미 등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으니 아이와 함께 예술을 경험하고 싶은 이들이라면 두루 살펴볼 만하다. 이 중 **'시인의 마음 글쓰기 강좌'**와 **'연기 강좌'**는 초급, 중급 등 단계별로도 수업이 진행되니 문학과 연기에 진지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이에게 추천한다.

인생 제2막을 시작하는 남성 베이비부머 세대

중년 남성, 나를 찾아 떠나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어온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 세대들은 이제 만 53세에서 61세가 되었다. 취미생활을 할 겨를도 없이 줄곧 일만 하던 이들이 직장에서 은퇴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많아진 시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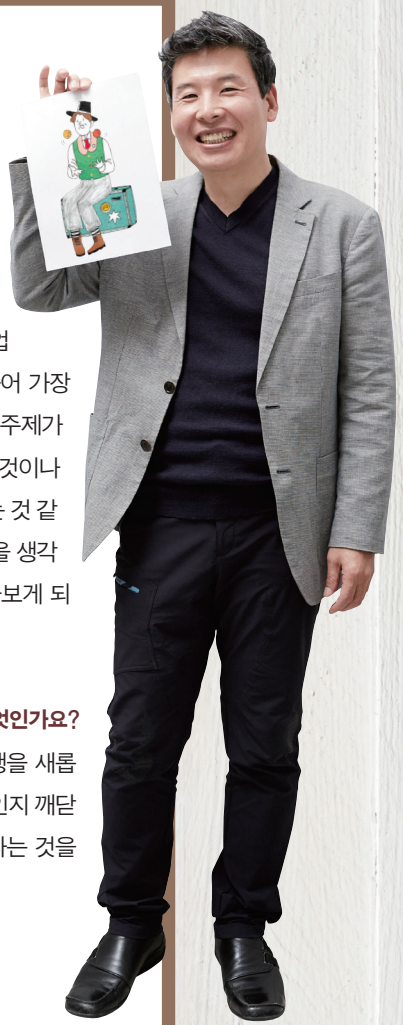
베이비부머 세대 남성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은 아직 낯선 분야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 문화향유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정규 교육 이외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50대는 약 3%에 불과했다. 최근 1년 이내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비율도 전체 연령대는 6.9%지만 50대 4.8%, 60대는 3.8%로 낮아진다.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중년 여성 위주의 주민센터나 백화점 문화센터에 발을 들여놓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한 2015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50대 남성의 지역 문화센터나 주민센터 강좌 수강 경험은 24.6%로 50대 여성(42.9%)에 비해 현저히 낮다. 50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문화활동도 전년에 비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교육에서 특히 중년 남성 대상의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다. 50대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층은 관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서울시민예술대학〉에서는 오로지 중년 남성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설했다. 그 중 '중장년 남성들을 위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돈키호테여, 모험을 떠나라!'는 40~6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4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20회의 수업이 매주 수요일 오전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진행된다. 삶의 전환기에 선 중장년 남성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수업이다. 매주 달라지는 주제에 따라 자신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해 자전적인 공연을 올리는 것으로 4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그동안 소홀했던 자기 자신과 가족, 주변 사람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수강생들은 살아온 배경도 직업도 제각각이다. 교사, 은행원, 재무 컨설턴트, 자동차 영업, 종교인 등 대부분 한 분야에서 20년 이상 일하다가 은퇴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강진희 강사(예술교육연구소 놀자 대표)는 "사실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오신 분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아내가 대신 신청해주거나 주변 여성분들의 권유에 등 떠밀려 오셨지요."라며 웃음 지었다. 처음에는 수강생들이 서로 말문을 트기 힘들어했지만 회차가 거듭될수록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까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분위기가 되었다. 가장 의미 있는 건 동년배들끼리 모여서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티가 생겼다는 점이다. 수업에서 '막내' 역할을 담당하는 박달성(53) 수강생도 마찬가지. 그는 전혀 관심 없던 문화예술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삶의 본질을 발견해나가는 참이다.

MINI INTERVIEW

예술을 통해 삶의 본질과 방향 찾죠



'돈키호테여, 모험을 떠나라' 수업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요?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이 살았죠. 금융 카운셀링, 컨설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이런 삶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고, 삶의 본질로 접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전에는 제게 돈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컸어요. 하지만 금융 쪽에서 20년 넘게 일하다 보니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일하면서 돈 많은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행복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건 삶의 본질이 아니구나' '내가 참 모르고 살았구나' 싶었죠. 직장 생활을 26년이나 했으니 이제는 행복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하려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년간 알고 지낸 분이 있는데, 이 분은 문화예술 분야에 10여 년 몸담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하길 누구나 예술적 재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발현하지 못하고 바쁜 삶에 시달리다가 죽는대요. 그분이 하는 일은 삶에 지친 사람들이 예술적 재능을 발현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체험 연극이었어요. 그분과 사회적 기업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분이 이 프로그램을 알려줘서 참여하게 됐고요.

다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적이 있나요?

앞서 말한 분의 추천으로 '체험 연극'에 참여해봤어요. '돈키호테여…'도 연극이 가미된 프로그램인데 40~60대 남성만 참여할 수 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사실 남성에게 문화예술이 친근하지 않아서 남성만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드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을 때 제가 춤추고 어울린다는 것이 상상이 되질 않아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각자 인생을 50~60년 사신 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참 재미있어요. 이전의 체험 연극과 형식은 좀 다르지만 결국 추구하는 방향은 같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네 차례 수업을 들었어요. 지난 수업 주제는 '내 인생의 반항'이어서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반항이 무엇이었는지 얘기했어요. 매주 주제가 다른데, 수업을 통해 각자 과거에 잘못했던 것이나 칭찬할 만한 것을 잠시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삶의 방향을 생각해보는 거죠. 수업을 계기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지금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인생을 새롭게 조명하는 걸 얘기하곤 해요.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말이죠. 그 과정에서 예술의 힘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들의 길잡이 클래스

〈서울시민예술대학〉의 **'예술, 나와 삶을 닮다'**도 베이비부머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다. 수강생들이 겪은 삶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어 전시하고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예술로 준비하는 인생이모작! 인형극과 함께하는 달달한 내 인생'**은 사진을 활용한 치유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인형을 만들어 연극놀이를 하면서 새롭게 펼쳐질 인생 후반부를 준비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신장년층을 위한 춤 인문학-나는 춤춘다, 고로 존재한다'**는 무용의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몸에 대해 알아보고 고유한 감각을 회복하는 미적 체험 프로그램으로 55~65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다.

인문학적 성찰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라면 〈서울시민대학〉 프로그램을 참고할 만하다. 뚝섬학습장(방송통신대 서울지역대학)에서는 국내 석학을 비롯한 저명 교수, 전문가를 초빙해 다양한 주제의 인문교양 강좌를 연다. 서울시내 권역별 14개 대학에서는 대학별로 특화된 인문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대학 교양수업과 같은 수준 높은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춤과 노래로 건강한 삶 얻는 실버 세대

건강과 행복이 최고

요즘 어르신은 바쁘다. 생기 없고 위축된 모습을 머릿속에 그린다면 오산이다. 스스로 건강과 행복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어르신이 늘고,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 역시 다양해지는 추세다. 어르신들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적인 감성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것을 주고받는다.

"토요일 아니었다면 못 왔을 거예요. 요즘 노인들이 얼마나 바쁜데요. 복지관에서 하는 게 정말 많거든. 댄스스포츠, 차밍댄스, 라인댄스, 한국무용… 우리 춤 도사예요."(웃음)

토요일 오후 2시 시민청 이벤트홀에서 진행되는 '누구나 예술가-은빛 피터팬 이야기' 수강생인 김행자·이춘자 어르신. '어르신 프로그램이 주로 평일에 진행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르는 소리 말라며 답했다. 복지관에서 마련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바쁘게 지나간다는 것이다. 실제 종로구노인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보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4~5시까지 한 시간 단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춤, 악기, 연극, 서예, 스포츠 등 다양하게 체험하고 움직이며 배우는 프로그램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 활용 수업, 손뜨개봉사동아리, 중국어와 영어·일본어 등 어학까지 배울 수 있다. 복지관에서 오후 시간까지 보내고 저녁에는 그날 배운 것을 복습해도 하루가 짧을 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는 세상에서 이들은 계속 배워가는 재미에 '행복하다'고 말한다.

2015 서울시민 문화예술 향유 실태조사에서 문화예술 관련 교육 경험에 대해 '받아본 적 없다'고 응답한 만 60세 이상의 응답자 비율은 29.5%로, 이는 50대(25.8%)를 제외하면 20·30·40대보다 낮다. 이는 노년 인구 증가에 따라 지역 주민센터와 복지관, 기타 민간 영역에서 실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수 마련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문화예술교육 참여 의향에 대해서도 91%가 '있다'고 답했다.

노년 세대가 문화예술교육에 적극적인 이유 역시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동년배의 친구를 사귀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이며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같은 조사에서 '참여할 의향이 있는 문화예술교육 분야'로 미술(62.5%)과 역사문화유산(51.8%)이 1·2위에 꼽힌 데에서 옛것의 의미를 찾고 교양을 다지려는 욕구 역시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행자·이춘자 어르신이 참여하는 '누구나 예술가-은빛 피터팬 이야기'는 시민청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노래, 가벼운 율동, 악기 연주 등을 배우고 어르신들이 직접 출연하는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며 지금 젊은 세대는 잘 모르는 주택복권, 월급봉투 등 추억의 물건도 가져와 그 의미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배움과 소통이 오가는 시간이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이들의 세심한 배려에 두 어르신의 만족도는 '최고'라고 한다.

배우면서 건강하게, 즐겁게, 바쁘게 사니 좋지

'누구나 예술가–은빛 피터팬 이야기' 수업은 어떻게 알고 참여하셨나요?

김행자(이하 '김')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가 종로구 노인복지관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찾아왔어요. 강당에서 사람들에게 '시민청에 놀러 오세요' 라고 홍보했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당신 약장사 아니냐고, 안 간다고 했지(웃음). 그랬더니 대표가 그런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다단계 같은 게 많아서 나쁜 데 걸려드는 줄 알고 자식들도 걱정 많이 해요. 근데 오라는 날짜에 여기(시민청) 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복지관처럼 매일 춤 추고 하던 데가 아니어서 몸이 잘 안 풀리지만.

수업에서 어떤 점이 제일 좋은가요?

김 일단 시간이죠. 노인들이 토요일에 약속이 없어서 그때 불러주면 올 수 있다고 했거든. 그것도 오후에만(웃음). 사람들도 너무 좋지. 강사들이 세심하게 배려하고 살피는 게 정말 고맙거든요. 무료 수업이라고 대충대충 하면 여길 왜 오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이 먹고 고집 있어서 수틀리면 안 나와. 여기서 하는 것 중엔 춤이 제일 재밌고요. 운동이 최고예요. 나는 척추 상태가 안 좋은데 운동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주변에도 이렇게 활발하게 다니시는 분이 많나요?

김 정말 많아요. 복지관 프로그램만도 시간이 꽉 짜여 있어서 노인들이 쉴 틈 없이 다녀요. 오전에는 당구 한 시간, 요가 한 시간, 오후에는 사교댄스 두 시간 하고. 종로복지관 오면 뒤로 나자빠질 거야(웃음).

이런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르신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춘자(이하 '이') 규칙적으로, 부지런하게 생활하게 됐어요. 건강을 위해 춤 추고 즐기죠. 여기 나오는 걸 우린 직업이라고까지 생각해요. 병 들고 죽기 전까지 계속 나올 거야. 여기 오는 사람들 서로 챙겨주고 안 보이면 궁금하고 만나면 반갑고, 그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어요.

김 젊을 땐 전쟁통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나서 너무 즐겁죠. 젊은 세대는 이런 마음 이해 못할 것 같아.

지금 어르신께 제일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이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 나이도 다 비슷할 거예요. 자식들도 다 알아서 살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건강 챙기고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는 거,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글
이아림, 전민정, 하민희

사진
김창제

자료 사진 제공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연구소 놀자, 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씨어터

2016 〈서울시민예술대학〉에는 노년 세대를 위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다양한 장르가 결합되고 삶의 이야기와 감정을 표현하는 수업이 많다는 것이 특징. **'어르신 예술 소풍'**은 연극과 움직임(마임, 무용)을 결합해 어르신이 친숙하게 체험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학과 미술 등 다른 장르도 표현해 향후 옴니버스극을 구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극으로는 부족하다는 어르신께는 뮤지컬 수업을 추천한다. **'뮤지컬 "할마미아!"'**와 옴니버스악극뮤지컬 창작교육 프로그램 **'아이 해브 드림'**이 대표적이다. 탈춤, 풍물, 민요 등 전통연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상월곡연희단의 **'풍류 속 낭만+'**에서 흥겹게 배울 수 있다.
어르신 프로그램은 접근성 역시 중요하다. 각 지자체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마련하는 어르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답이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www.kaswcs.or.kr)** 사이트에서는 전국의 노인종합복지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문의하고 방문해볼 것.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강좌 및 오프라인 학습 정보를 제공한다.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자신 있는 분야를 가르치는 '강사'에 도전할 수도 있다. 배움은 언제라도 이르거나 늦지 않으며, 문화예술은 생활 가까운 곳에서 생각지 못했던 힘을 불어넣어줄 것이다.

〈서울시민예술대학〉 '카페 콜라주' 수업 현장

일상과 예술, 나와 우리의 콜라주

시민청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카페 콜라주'는 무용과 시각예술이 결합된 수업이다.
20대 대학생부터 50대 남성까지 다양한 이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해방시키기 위해 시간을 쪼개 한자리에 모였다.
이 수업에서는 무엇이 만들어질까,
다양한 사람들은 어떻게, 왜 예술을 찾는 것일까.

지난 5월 11일 오후 7시, 시민청 지하2층 바스락홀에 열 명 남짓의 사람들이 원형으로 모여 앉았다. 매주 빠지지 않았다면 이날이 세 번째 만남이었겠지만 아직 반갑게 인사를 나눌 정도는 못 됐기에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다시 한 번 하기로 했다. 학생, 직장인, 주부라는 명칭으로 운을 뗐지만 동시에 이들은 재즈를 배우거나, 춤과 연기에 관심이 많거나,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어 저녁 시간을 쪼개 온 이들이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소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참여자들이 하나둘 바스락홀로 들어와 원 사이 사이 자리를 메웠다.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두 소개를 마치자 수요일 저녁 '카페 콜라주(Café Collage)'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카페 콜라주'는 2016 〈서울시민예술대학〉의 프로그램 중 하나다. 무용과 시각예술을 결합한 수업으로, 우리 몸에 대해 탐구하고 움직여 공간 및 사람과 교감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고, 이를 한 편의 작품으로 완성하게 된다. 현대무용가 피나 바우쉬의 대표작 중 하나인 〈카페 뮐러(Café Müller)〉에서 볼 수 있듯 정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사람의 몸과 동작, 오브제와 공간이 유기적으로 하나의 심상을 표현해내는 작업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각자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스무 개의 고민이 서로를 해치지 않으면서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소통하게 된다.

이것은 예술을 공통분모로 삼은 작은 공동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며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됐다. 목과 어깨를 가볍게 푼 후 스무 명의 참가자가 강의실인 바스락홀 바닥에 편히 누워 팔, 다리, 등, 전신의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10분 남짓 동안 공간과도 친해진다. 몸과 함께 마음도 한 단계 이완시킨 채 두 명의 선생님으로부터 이날 수업의 주제인 '방향성·움직임·오브제'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어디를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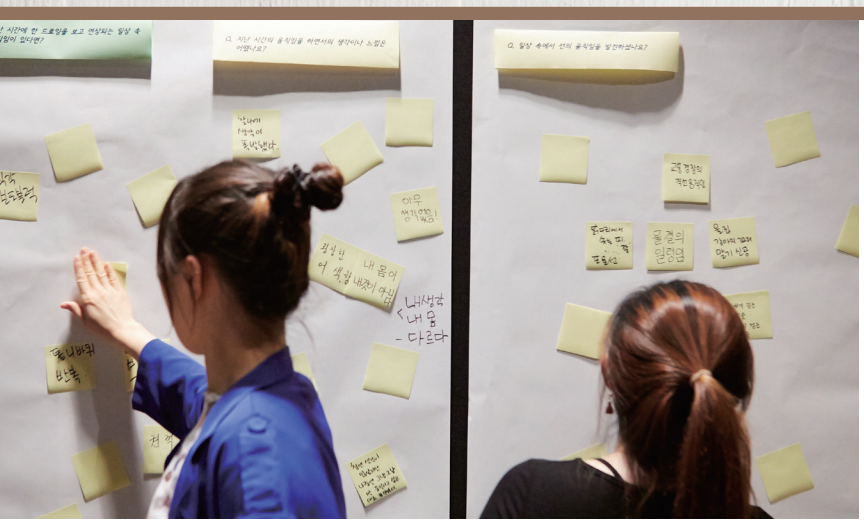
해' 움직일 것인지와 다양한 동작(걷기, 구르기, 뛰기, 기기 등), 그리고 특정 사물을 이용하는 것을 익힐 모양이었다. 몸에서 어딘가를 가리킨다고 하면 흔히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것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강의실 공간을 육면체라고 생각하고 여덟 개의 꼭짓점 방향으로 몸의 부위를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데 쓸 수 있는 신체 부위가 팔과 다리만이 아니라 머리, 얼굴의 눈·코·입, 다리에서도 무릎, 팔꿈치 등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다. 최대한 다양하게 움직이고 표현해보는 것이 핵심. 아울러 사방으로 이동할 때엔 걷거나 가볍게 뛰고 팔과 다리를 모두 이용해 기어도 보고 구르기도 했다. 평소에 하지 않던 동작과 움직임을 만들어보면서 새삼 일상적인 움직임이 무척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동시에, 내가 의도한 대로 몸이 잘 따라주지 않음에 헛웃음이 나왔다.

이날의 수업 주제 세 가지 중 마지막 하나인 '오브제'로는 의자를 이용하기로 했다. 참가자 모두 의자를 하나씩 들고 강의실 어디든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모양으로 둔 후 그것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소감을 공유했다. 그러고는 다시 자유롭게 쌓은 의자에 사람이 함께해 또 다른 풍경을 이뤘을 때 어떤 스토리텔링이 가능할지 이야기를 나눴다. 순번을 정하지 않고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 자유롭게 나와 이전까지 쌓인 오브제에 자신의 의자를 얹는 방식으로 20개의 의자가 무정형의 상을 이뤘고 그것은 망망대해에 떠 있는 난파선, 사랑과 전쟁, 혹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으로도 읽혔다. 어떻게 읽든지 그것은 이야기하는 사람의 자유였다. 어차피 정답은 없으니.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그 의견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어떻게 한 방향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

'카페 콜라주' 수업을 기획·운영하는 예술교육연구소 넘나들이의 이유정 대표는 "카페라는 장소는 새로운 일을 도모하거나 가슴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라는 점에서 수업을 기획했다며 "움직임이 강조된 프로그램인데 수강생들이 다들 재미있어하시고,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협업하는 모습을 보며 세대 간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걸 느꼈다."라고 전했다.

약간의 자신감이면 충분하다

수업을 일일 체험하며 가장 놀란 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었다. 평일 저녁 시간대에 개설



돼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음은 물론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2030세대와 40대 여성, 50대 남성 등 거의 모든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두 시간을 함께했다. 각자의 소감을 메모지에 적어서 나누고, 이동하거나 움직이면서 눈인사를 하며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움직임과 에너지에 몰두하는 동시에 내 옆 사람과 공간에 자연스레 동화됐다. '카페 콜라주' 수업의 경우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는 만큼 수업의 요소에서 연령이나 성별에 특정되는 것은 없다. '자기 표현'과 '소통'이라는 비슷한 목표를 다양한 사람이 공유하며 느슨하게 교감해가도록 안내되는 것. 즉 '예술'을 공통분모로 삼는 이들의 작은 공동체가 생성되는 것이다.

시민예술대학은 단순 예술 기량 교육이 아니라 미적 체험, 통합예술교육에 중점을 둬, 참여하는 이들이 자기 표현의 좋은 방식을 찾고 공동체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 표현과 고민이 예술적인 아름다움으로 승화되면 그것으로 또 좋은 것이다. 같은 날 오후에 진행되는 수업 '댄스를 부탁해'의 강사 밝넝쿨 무용가(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씨어터)는 "무용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과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수업에서 메소드(수업 재료, 방식)의 차이는 없다. 다만 내가 이들을 대할 때 어느 부분의 디테일을 더 알려줄 것인지가 조금 달라질 뿐"이라며 "수강생 중에 무용을 전공하신 분도 있다.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게 드러날 정도의 수강…. 그러나 수업하다 보면 누가 전공자이고 누가 춤을 처음 접하는 분인지 크게 표시 나지 않는다. 누구나 춤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수업의 의미를 전했다.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예술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즐기고 받아들일 열린 마음과 약간의 자신감 정도다. 그것으로도 충분히 예술은 시작된다.

예술은 사실 아무것도 주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본디 '목적 없는 것'이다. 다만 목적 없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한 사람의 내면을 바꾸거나 조금 더 넓은 영역의 사회에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문화예술교육에서 지식과 테크닉을 익히는 것, 특정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수강생에게 큰 성과가 되겠지만 그 기회가 사람을 들여다보고 서로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을 지향하는 데엔 '예술적 감수성'을 회복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연령대, 성별의 사람이든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고민이 많다. 사회안전망이 불안정하고 성장 전망 역시 밝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20대는 취업과 진로, 생계로 인해 고민하고, 취업 문턱을 겨우 넘은 30대는 늘 열심히 해왔지만 이룬 게 없다는 미묘한 상실감 속에서 살아간다. 40대, 50대 역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불안감을 감출 수 없고 노년 세대는 날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기에 에너지와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그런 고민을 안고서 어떤 돌파구를 찾는 이들에게 가장 답이 없는 예술은 의외의 해답을 각자에게 선사한다. 결과물만큼 과정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삶과 춤, 삶과 글, 삶과 연극, 삶과 노래, 삶과 철학·역사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 강조하건대 약간의 자신감과 감수성이 있다면 문화예술을 통해 잃어버린 삶의 방향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이다.

글 이아림

사진 김창제

04월
—
11월

서울시민
누구나

예술로 삶이 풍요로운 행동하는 시민이 행복한

2016 서울시민 예술대학

장소
남산예술센터,
시민청 바스락홀,
서울무용센터,
연희문학창작촌,
신당창작아케이드,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시내 곳곳

대상
서울시민 누구나
(만 19세 이상 성인)

문의
www.sfac.or.kr
02.758.2013

시민, 예술, 삶이 행복해지는 서울을 꿈꾸며 2016 서울시민예술대학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만19세 이상의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문학, 연극, 음악, 무용 등 순수예술을 중심으로 실용 및 생활예술에 걸쳐 폭넓은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의 '미적체험 예술교육' 철학을 기초로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2016 서울시민예술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지친 일상 속 자신만의 삶의 풍요로움과 내면의 행복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서울 |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www.sfac.or.kr

시인·국회의원 도종환

시란, 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것

〈접시꽃 당신〉의 시인으로 알려진 도종환은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수인의 몸으로 시집 〈지금 비록 너희 곁을
떠나지만〉(1989)을 발간했다. 그는 교사로, 시인으로,
시민운동가로, 정치인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각자의 마음속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미지화되어 있을 것이다. 올해 새로운 시집 출간을
앞두고 있는, 여전히 시와 정치의 길을 함께 걷는
도종환 시인과 만났다.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은 2016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문학진흥법,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그리고 시와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Do Jonghwan

도종환 시인은 시를 내려놓은 적이 없다. 투옥돼 있던 당시에도 어떻게든 시를 썼고 의정활동에 바쁜 지금도 작품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시집 〈부드러운 직선〉은 그런 그의 삶을 가장 잘 말해주는 시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마을 아이들〉(1989)이라는 책을 초등학교 때 읽은 적이 있다. 도종환 시인이 재직하던 동이중학에는 친누나와 마을 형들이 다니고 있었다. 아이들의 글을 모아 책을 내주고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지 않는 교사가 당시에는 이상하게 보였다. 형들은 책을 들고 다니며 자기 글이 실렸다고 자랑하기에 바빴다. 그때부터 나는 시인이라는 존재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어렴풋이 생각했다. 중학생이 되어 나도 모르게 시를 쓰기 시작했다.

〈접시꽃 당신〉(1986)이 베스트셀러에 오를 때, 정보과 형사는 도종환 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형사는 교육청에 압력을 넣어 다른 학교로 전근을 보냈고 시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캐물었다. 교장, 교감이 도종환을 감시하는 비용을 갖고 싸우는 바람에 학교에서도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주도한 혐의로 그는 구속됐다. 그때 쓴 시들이 〈지금 비록 너희 곁을 떠나지만〉에 실려 있다.

해직된 뒤 책임져야 할 일은 더 많아졌다. 각종 집회와 행사, 전교조, 민예총, 민족문학작가회의, 지역의 문학·문화운동을 이끌었다. 성격이기도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일이 많았고 누가 봐도 몸이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자율신경실조증이 찾아왔다. 그는 모든 활동을 접고 후배가 지어놓은 조그만 흙집에서 5년 남짓 요양하며 지냈다. 마당에는 날마다 새들이 날아오고 눈이 오면 굶주린 토끼와 노루가 내려와 먹이 주기를 기다렸다. 자연 속에서 배고픈 동물들을 살피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지금도 건강을 물어오는 지인들이 있다. 그는 전교조 활동을 했거나 민주화운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이 다 겪는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교사이며 유명한 시인이던 그가 해직, 투옥, 석방,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을 거쳐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재선에 성공하기까지 후배 시인으로서 나는 도종환 시인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았다. 시인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보아도 그의 삶은 너무나 과중한 일에 시달리며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었다. 〈부드러운 직선〉은 도종환의 삶을 가장 잘 말해주는 시집이라는 생각이 든다. "담백하게 뒷산 품에 들어 있는 절집이/ 굽은 나무로 지어져 있지 않음을 본다/ 한 생애를 곧게 산 나무의 직선이 모여/ 가장 부드러운 자태로 앉아 있는" 모습은 도종환 시인의 성격과 닮았다. 겉은 부드럽지만 마음속에는 수많은 직선이 버티고 앉아 있는 모습, 야당 의원이면서 문학진흥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도 그 부드러운 직선에서 나왔다.

국회의원이 된 2012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과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를 교과서에서 뺄 것을 권고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한 작가의 작품을 국가의 힘으로 억누르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 4대강 사업,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가 잇따라 터졌다. 문인들은 충격 속에서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2014년 8월 광화문광장에서 도종환 시인을 다시 만났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한국작가회의 동조단식'장에서 만나자마자 동료 작가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자식 잃은 부모를 위로해주어야 하는데 국회의원으로서 한 게 없고 그 아픔을 승화해서 슬픔과 아픔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너무 무기력해져 있고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말도 했다.

재선 의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려야 할지 위로해드려야 할지요.

국민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 든다. 선거 3일 후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2주기 추모식에 다녀왔다. 세월호 가족 합창단의 노래를 들었는데 "십 년이 가고 백 년이 가도 잊지 않을게"라는 노래를 듣다가 눈물이 났다. 그날 광화문광장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매를 맞아야 하는데 비를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비를 맞는 것, 함께 젖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2012년 19대 총선 민주당 비례대표 심사가 끝난 뒤 법조인은 많은데 문화예술인이 없다는 지적 때문에 당으로부터 문화예술계 비례대표 제안을 받았다. 당시 문학계 어른들과 상의를 하고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 마침 백낙청 선생님이 1987년 체제와 다른 2013체제 만들기에 대한 책을 내셨는데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치를 하기 위한 특별한 준비 없이 시작해서 시행착오도 많았다.

의정활동 중에 꾸준히 시 쓰는 비결이 궁금합니다.

감옥 안이나 논산 훈련소에서도 썼는데, 국회 들어왔다고 안 쓰겠나. 바쁜 것으로 따지면 직장인이나 고3이랑 같이 생활하는 선생님들이 더 힘들 수도 있다. 국회의원은 그래도 감옥보다 낫지 않나. 시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쓰는 게 시인이다. 선배 문인과 상의했는데 고은 선생님은 어디서든 다 쓴다고 말하셨다. 〈만인보〉도 감옥에서 구상했고 김사인 시인은 농담으로 "내가 대신 써줄게"라고 말하더라. 어느 날 왜 시 안 써주냐 물었더니 "써주려고 하면 발표했고 써주려고 하면 발표했고…"라는 말에 웃었다. 감옥에서 미결수로 있을 때 대학생이 몰래 가져다 준 볼펜 심으로 책 마지막 장에 시를 써 종이를 밥풀에 붙여서 감춰놓았다. 비누 포장지 안에 쓰고 숨겨놓기도 했는데 출소할 때 많이 가지고 나왔다. 그 안에서 쓴 시들이 〈지금 비록 너희 곁을 떠나지만〉과 〈당신은 누구십니까〉에 들어 있다.

2015년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상임위 모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국회의원은 싸움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한다. 그런 정치 혐오주의는 중간층의 이탈을 유발한다. 잘못된 것은 싸워서 막고 관철시켜야 할 것은 관철시켜야 하는데 문제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할 때 야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갈등을 잘 관리하고 조정해서 유익한 결

"국회의원은 그래도 감옥보다 낫지 않나.
시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쓰는 게
시인이다. 선배 문인과 상의했는데
고은 선생님은 어디서든 다 쓴다고 말하셨다."

론을 이끌어내는 게 정치이다. 합리적인 태도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동안 품격을 잃지 않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는 말로 하기 때문에 말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에서 그런 사람을 격려하고자 주는 게 이 상이다.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인데 그 상을 여러 번 받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입장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지금 국정교과서로 집필한 초등학교 교과서에 위안부라는 말과 위안부 사진이 빠져 있다. "정부에서 공표하면 막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 정권이 몰락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했다. 일제 군국주의시대, 히틀러의 파시즘 시대, 유신 시대에나 국정교과서를 사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교과서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고 6·25가 남북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기술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교육부 공무원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한 교과서다. 대통령이 말한 내용이 어느 교과서에 나오냐고 물으면 답을 못한다. 대통령만 '북한에 의한, 북한을 위한' 교과서라고 믿는 것이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발의해 국민의당과 힘을 합쳐 법안을 처리할 생각이다. 여당이 끝까지 반대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상황이 오든 국정교과서를 검인정교과서로 되돌리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전교조나 정치 활동에 대해 힘들거나 후회한 적은 없나요?

때때로 많이 후회했다. 그 당시에 교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가족에게는 무책임한 것이었다. 유치장에서 지금 각서랑 반성문 쓰고 전교조 탈퇴하면 풀어주겠다고 형사가 이야기할 때 아버지도 함께 계셨다. 갓난애가 둘이나 있는데 애들은 누가 책임지냐고, 네가 이거 써도 사람들이 욕안 하고 다 이해한다고 아버지가 말했지만 끝내 각서를 쓰지 못했다. 수갑을 채우는데 너와는 부자지간에 의절하겠다고,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할 때 대답을 못했다. 교도소로 이송되면서 경찰서 유치장 벽에 머리를 대고 우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감옥에서 아들의 옆서를 받고 많이 힘들었다. 남의 자식 바르게 가르치자고 내 자식 한글도 못 가르쳤다는 자괴감이 들었다. 교도소 벽에 뾰족한 물건으로 계속 금을 그어 십자가를 만들고 기도하며 버텼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

1

2

"아비규환의 절박한 현실에 들어가지 못하면 한 걸음도 못 나아간다. 누군가는 그 진흙 한복판에 들어가서 우리가 처음 왔던 때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더라도 일해야 세상이 달라진다."

1
한국작가회의가 2015년 4월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한 '4·16 진실 인양 촉구 문화제'에서 추모시를 낭송하는 도종환 시인.
2
2014년 8월 '세월호 참사특별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한국작가회의 동조 단식'에서.

다. '감옥의 벽에 십자가를 새겨놓고'라는 시를 썼는데, 개인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족에게는 무책임했다.

시와 정치를 어떻게 결합하시는지요?

작가는 한번 이름을 얻으면 그 이후에는 독자에게 많이 팔리는 책을 쓸 수도 있다. 그렇지만 문학은 문학으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당시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 있었다. 문학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감옥도 가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지금 현실 정치에 관여한 것까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문학은 자기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현실 정치와 문학, 둘 다 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루다는 칠레 민주화에 기여하면서 문학적으로도 훌륭했고, 빅토르 위고도 상원의원을 하고 난 후 〈레미제라블〉을 썼다. 외국에는 정치적인 역할을 하면서 깊이와 폭을 넓혀가는 작가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실패한 경우가 많다. 나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더 좋은 사례를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이 크다. 지금이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학의 역할보다 정치적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정치를 포기하고 싶다. 두 가지 다 잘할지는 지나봐야 알 것 같다.

문학진흥법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문인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현실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들이 표출되었다. 개인적으로는 국정교과서 저지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과 함께 문학판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년 표절 사건 이후로 많은 독자가 한국문학에 등을 돌리는 현실이다. 문학이 온갖 욕을 먹을 때 기자들이 몰려오지만 문학을 살려야 한다고 할 땐 두세 명 온다. 그게 작년에 우리가 목격한 것이다. 올해는 어떻게 문학을 살려야 하는지 고민하는 해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 고민을 담아 작년 문학진흥법도 통과시켰다. 국가나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문학인들이 주체로 나서야 한다. 10년 20년을 내다보며 독자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지금 정권은 문학과 출판 정책이 거의 없다. 정권을 교체한다면 최소한 책의 초판 물량 정도는 수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을 1500개 정도로 점차 늘려야 한다.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단체장의 치적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학을 사랑하는 도시 만들기, 문학을 사랑하는 시민이 많아지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서울의 '지하철승강장 시'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문학을 접하는 방법으로 교과서나 '지하철 승강장 시'가 있다. 좋은 시는 사람의 마음을 위무하고 영혼을 바꾼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방법을 잘 못 찾는 것 같다.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문학 단체에 기계적으로 배분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 없애기보다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국문과나 문예창작학 전공자가 행정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공무원들은 문학 쪽 일을 맡으면 겁을 내고 빨리 부서를 옮기고 싶어 하는데 토목이나 전산, 행정처럼 문화예술 전공자가 공무원이 되어서 그 분야는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 기간에 정치인이 되었다는 비판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선거 기간에 많은 유권자에게 욕도 먹고 개인적으로는 마음 아픈 게 "시나 쓰지 무슨 정치를 하냐, 왜 진흙탕에 들어가냐"는 말을 들었을 때 식당이나 길에서 설명을 할 수 없었다. 윤동주 시인에게 "시나 쓰지, 무슨 '교토 조선인 유학생 민족주의 그룹'을 만들어서 민족운동 하고 학습하냐고, 영혼도 맑은 사람이…"라고 말했다면 과연 무슨 대답을 했을까. 윤동주는 외면할 수 없는 조국의 현실 때문에 혼자 깨끗하게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지금도 일제강점기 못지않게 위안부 문제, 세월호 참사, 국정교과서 강행을 비롯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 진흙이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고, 진흙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현실 정치고, 그 아비규환의 절박한 현실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도 바꿀 수 없다. 누군가는 그 진흙 한복판에 들어가서 우리가 처음 왔던 때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더라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달라진다. 문인들 중에도 정치권력을 갖고 싶어 하냐고 욕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단순하게 현실 정치 권력을 갖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치란 공동체의 행복에 기여하려는 갈망의 표현이다. 그래서 정치란 무엇보다도 가장 순수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체코의 극작가이자 대통령이던 하벨이 말했듯 정치야말로 가장 시적이어야 한다.

글
김성규
1977년 충북 옥천에서 태어났다. 200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시집으로 〈너는 잘못 날아왔다〉 〈천국은 언제쯤 망가진 자들을 수거해가나〉가 있다. 신동엽문학상과 김구용문학상을 수상했다.

사진
최재식, 한국작가회의

장소 후원
길담서원

연극 〈햇빛샤워〉 주연배우 김정민

배우, 온실 밖 햇빛 속으로

두 여자가 있다. 지고지순하고 가련한 여인 '지순'과 뭔가에 살짝 미쳐 있는 강인한 여자 '광자'다. 각각 지난 3~4월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공연된 연극 〈환도열차〉와 5월 17일부터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에서 공연 중인 연극 〈햇빛샤워〉의 주인공이다. 이름만큼이나 정반대의 두 여자는 사실 한 사람, 배우 김정민의 두 얼굴이다.

하얀 종이처럼 무채색에 가까운 분위기에 무대에서 보여주는 존재감과 흡인력이 더욱 놀랍게 다가온다. 젊은 여배우가 끌어가는 무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금 한국 연극계에서 그는 단연 빛나는 존재다. 〈환도열차〉와 〈햇빛샤워〉에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지난해 동아연극상 연기상을 받기도 했다. 공연을 앞두고 만난 그는 여려 보이는 외모와 달리 조곤조곤한 말솜씨로 할 말 다하는 똑 부러진 여자였다. 그의 연기에 반한 건 1950년대를 뚫고 나온 듯 너무도 옛날사람 같은 지순의 모습이었지만, 실제 그의 모습은 '생명력 넘치는 뜨거운 여자' 광자에 더 가까워 보였다.

달동네 연탄집 양아들인 순수한 청년 동교네 집 반지하에 세 들어 살고 있는 백화점 판매직원 광자는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닳고 닳은 여자다. 어두운 과거를 털어내고 새 인생을 살기 위해 이름을 바꾸려 하지만 전과가 있어 쉽지 않다. 동교는 동네 사람들에게 연탄을 무료로 나눠주며 따뜻한 세상을 꿈꾸지만 광자는 그런 동교를 비웃는다. 하지만 동교가 부조리한 세상에 좌절해 끝내 삶을 등지자, 광자는 갑자기 싱크홀에 빠진 듯한 무력감에 몸부림친다.

연극 〈햇빛샤워〉는 2015년 남산예술센터와 극단 이와삼이 공동제작한 창작극으로, 지난해 차범석희곡상을 비롯해 김상열연극상, 올해의 공연 베스트 7, 동아연극상 등 주요 연극상을 휩쓴 작품. 요즘 연극계에서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통하는 장우재 연출이 험난한 자본주의 사회를 버텨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영화적인 미장센으로 무덤덤하게 그려내 충격을 줬다. 〈환도열차〉 등에서 '장우재의 페르소나'로 인정받은 김정민은 자신이 연기한 광자를 두고 "너무 뜨거워서 탈"이라고 했다.

어두운 내면을 가진 캐릭터에 몰입이 잘되던가요.

제가 그렇게 어둡게 살아오지 않아서요. 그 깊은 어두움에 사실 몰입하기가 힘들기는 했죠. 하지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초연 때 좀 헐거웠던 것 같아서 아직도 숙제예요. 하지만 광자의 욱하는 성질은 연출님이 저한테 영감을 얻었다고 하시거든요. 제게도 있는 그런 성향이 어떤 어두움과 만나서 이렇게 표출되는 것 같아요.

"광자는 쌍년"이란 게 키워드인데요.

연출님이 평소에 "대학로 쌍년 정신"이란 말을 써요. 단어 자체는 욕이지만 연출님은 좋은 의미로 쓰시죠. 연극판에서 수동적이지 않고 자기주장도 펼치면서 주위도 아우를 줄 아는 여성 작업자들에게 좋은 의미로 붙인 말인데 그걸 광자에게도 대입시킨 거죠. 저는 오히려 그 뉘앙스를 알아서 힘들었어요. 광자 연기를 하려면 좀 돌아버려야 되는데, 좋은 뜻인 줄 아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광자는 이름을 바꾸려고 몸까지 파는데, 대체 뭘 얻고 싶었던 걸까요.

작품 전사(前史)이긴 하지만 이름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KOR 서울문화재단
www.sfac.or.kr

하고 살았으니까요. 이름만 바꾸면 더 이상 고생을 안 할 것 같다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바꾸려는 것 아닐까요. 지금의 삶에서 단지 벗어나고 싶은 절실한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본인 이름도 배우로서는 평범한데, 바꾸고 싶지 않나요.

한번 생각은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봤자 '정 민' 정도로 바꿀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바꾼다고 대단한 컬러가 생길 것 같지도 않고,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이름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누가 척 봐도 알 만큼 개성이 확 드러나지 않잖아요. 오래 봐야 제 느낌이나 매력을 알아주는 느낌이에요. 사람마다 컬러가 다르니까, 난 이런 컬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쿨한 척 살다 동교 죽음에 갑자기 폭발하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사실 대본에 적시되지 않은 당위성이라 제일 어려워요. 하지만 작업에서는 그걸 해내고 관객에게 이해받는 게 숙제죠. 저한테는 이유가 있어요. 치열하게 살아오면서도 아무 조건 없이 다가와준 유일한 사람인 동교에게 길 잃고 비 맞은 고양이 같은 동질감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사라진 상실감이 너무 컸던 것 아닐까요. 동교와 광자가 교감하는 부분에서 둘의 관계와 사건의 당위성까지 전달해야 하는데, 지금도 고민하는 지점이긴 해요.

그는 〈햇빛샤워〉를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드러나면서 관객과 만나는 공연"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작품이 공연의 당위성을 만들고 연출로 드러내는 데 반해 〈햇빛샤워〉는 "대본에도, 연출로도 설명할 수 없지만 다들 공감대를 이루게 되는 기운이나 느낌이 있다"는 것이다. 그건 결국 "배우들의 몫"이다.

〈환도열차〉의 지순과 광자는 정반대의 캐릭터인데, 단기간에 연이어 소화하기가 어떤가요.

지순 역으로 만들어놓은 게 너무 강해서 여운이 깨끗이 사라지진 않아요. 연습 초기엔 "너, 조용히 얘기할 때 스멀스멀 나온다"고 지적도 받았죠.(웃음) 오히려 너무 반대라 편한 것 같아요. 지순을 연기할 때는 평소에도 늘 조용히 있어야 몰입이 돼서 힘들었는데, 광자는 어중간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걸 확 날려버릴 수 있는 역할이라 더 재밌기도 하죠.

예술의전당 제작으로 2014년 초연한 〈환도열차〉는 6·25전쟁 당시 부산으로 피난 갔다 휴전 후 남편을 찾아 서울행 기차를 탄 새댁 지순이 현대로 타임슬립해 자본주의 사회의 부조리를 목도하는 이야기다. 지순의 서울 사투리를 구사하기 위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옥희를 참조했다지만, 김정민은 대사 구현을 넘어 '진짜 옛날 사람'으로 보이는 대체 불가능한 캐릭터를 창조해냈다.

사투리 때문에 옛날 사람으로 보인 것 같지는 않던데, 어떤 노력이 필요했나요.

단순히 대사 처리만으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피난민들 다큐멘터리나 당시 외국 기자들이 찍은 영상 등 6·25전쟁 자료를 엄청 봤죠. 정말 그 당시 분위기에서 탁 튀어나온 것 같은 정서가 없으면 연기가 안 되니까요. 봇짐 들고 피난 가고 꿀꿀이죽 먹는 옛날 정서에 집중하면서 그 말투를 만들었어요. 제가 확신 갖고 하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굉장히 외로운 작업이었어요. 대기 중에도 계속 혼자서 사진과 영상 보면서 집중하다가 무대에 들어가야 했거든요.

현대 여성인 광자 연기는 한결 편하겠어요.

장우재 연출 작품에 연기하기 쉬운 건 없어요. 광자 경우는 인물이 가진 두께 자체를 표현해내기가 어렵죠. 내면의 어둠에 관한 건데, 물론 저도 슬픈 일, 아픈 일도 겪어봤지만 작품이 품은 어둠을 넘어서는 게 숙제거든요. 개인의 아픔을 꺼내기보다 작품의 어둠을 타야 하는 거죠. 장 연출 작품은 항상 그래요. 배우가 그쪽으로 크게 열지 않으면 뭔가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작업이죠.

그는 2010년 서울시극단 〈7인의 기억〉으로 장우재 연출을 만나 그가 이끄는 극단 '이와삼'에 들어간 이후 5년 동안 그의 모든 작품에 함께했다. 처음에 주인공 추천을 받았다가 단역으로 캐스팅된 아픔이 있지만, 조금씩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다양한 기회를 준 장 연출 덕에 자신이 가진 면모를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하지만 최근 자유 활동을 선언했다. 주역을 보장받은 온실 같은 극단을 벗어나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할 시점이란 생각에서다.

현대극에서 젊은 여자가 주인공인 무대가 별로 없잖아요.

저는 무조건 감사해요. 〈환도열차〉 끝나고 바로 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힘들지만 여배우로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젊은 걸 떠나 여배우 자체가 전면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게 많지 않다는 걸 저도 아니까요. 연출님이 저를 위해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만난 것 같아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과 사람이 딱 만나서 그렇게 된 건데, 결론은 배우로서 너무 감사한 거죠.

장 연출은 요즘 가장 뜨는 이야기꾼인데, 그의 작품의 매력은 뭘까요.

그가 하는 이야기는 배우에게 자부심을 줘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누군가 꺼낸다는 것, 이런 작품에 내가 선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죠. '칼 들었다'고 하는데, 예리하게 사회 현실을 드러내는, 냉철하고 지적이면서 칼날 같은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런 면에서 작품이 섹시하죠. 연기하기엔 힘들지만 작품만 보면 정말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장우재 작가의 팬이에요. 신작 나올 때마다 기대되고 설레는 팬이라서 극단에도 들어가게 된 거죠.

그간 외부 활동을 거의 안 했는데요.

처음 들어갈 때 극단 작품에 집중한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올해 초 〈고제〉부터 외부 활동을 시작했어요. 투쟁했죠. 나좀 놔달라고.(웃음) 극단에 있으면 어떻게든 작품은 주어질 테지만, 여기만 머물면 유연하지 못한 배우가 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었어요. 극단에선 행복하고 기회도 주지만, 낯선 환경에도 있어봐야 할 것 같아요.

더 큰 무대가 욕심나는 건가요.

저는 충분히 큰 무대에 섰다고 생각해요. 더 큰 무대에 서면 물론 좋겠죠. 하지만 오히려 야전으로 나가겠다는 마음이에요. 자유롭게 작품을 선택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만나보고 싶은 거죠. 보기 좋은 무대에 서기보다는 아직 경험을 많이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에요.

글
유주현
중앙SUNDAY
공연담당 기자.
서울대학교 미학과,
동 대학 국제대학원
일본지역전공 졸업.
'근현대 일본사회의
소녀문화 현상에 관한
연구: 다카라즈카
가극을 중심으로'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사진
김창제

공연 사진
**서울문화재단,
예술의전당**

김종길

오창은

김지연

김소연

예술계 표절 논란과 비평의 과제

표절, 자본의 논리와 예술의 윤리 사이

자본시장이 확장되면서 자본이 예술을 잠식하고 예술은 자본에 종속되는 현상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자본의 논리가 비평의 논리를 무색하게 한다. 잘 팔리는 것이 예술의 공공선이고 예술성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 과정에서 '표절'은 예술가의 윤리의식을 지워버리고 있다. 상업 권력의 뒤에서 '표절'을 '모방 미학'이라 자위하며 양심선언 하지 않는 예술은 죽은 예술이다. 예술의 창조성을 위한 예술가의 고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예술계 내부의 성찰이 필요한 지점이다.[1]

김재엽

홍지석

이성혁

사회 김종길 미술평론가
발제 오창은 문학평론가, 중앙대 교양학부대학 교수
김지연 미술평론가
김소연 연극평론가
토론 김재엽 연출가, 드림플레이테제21
홍지석 미술평론가, 단국대 연구교수
이성혁 문학평론가
일시 2016. 5. 13(금) 14:00~18:00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발제1 창조성과 표절의 경계 위에 선 비평 증언자들

비평 논쟁을 통해 본 신경숙 표절 사건의 역사적 성찰

발제자 **오창은** 문학평론가, 중앙대 교양학부대학 교수

제가 관심 있는 내용은 비평과 창조성의 관계 속에서 표절을 다루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비평의 위기가 표절과 상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920년 염상섭과 김동인의 논쟁은 근대 비평 논쟁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사와 변사의 논쟁으로도 유명한데, 자기 의도에 맞게 편집해서 상호 인신공격 하는 비평의 속성이 이 논쟁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응노와 남관의 창작과 모방에 대한 뜨거운 논쟁은 현대미술사에서 쟁점이 되었지만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봉합되었습니다. 1993년 문학평론가 김영혜와 영화평론가 유지나의 영화 〈그대 안의 블루〉를 둘러싼 논쟁은 페미니즘 논쟁이기도 하고, 비평의 전문성에 대한 논쟁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는 시기에 문학비평가가 영화를 비평하는 것에 대해 반박한 것입니다. 신경숙 표절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문학 내부의 논리를 앞세웠던 대응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원의 '표절에 대한 짧은 소회'[2]라는 글은 표절 논쟁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환기시켜 줍니다. 그는 사적으로 계속 수렴되어버리는 것과 공적 이익으로 사라지는 개념을 얘기하면서, '대중과 함께 사유하며 함께 투쟁하며 스스로를 소멸'하는 '사라지는 매개자(vanishing mediator)'[3]가 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작가는 자신의 문학이 대중 속으로 사라짐으로써 역할을 하기 바라면서도, 사적인 이익으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습니다. 예술적으로 진지하게 성찰해보아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제2 미술 유통 시스템, 표절의 효용성, 창작 윤리

발제자 **김지연** 미술평론가

미술은 시각적으로 모방하는 측면이 많아서 표절의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평론가들은 표절에 대한 가부를 판단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술계에서 표절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최근의 사례를 통해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자개를 붙이는 작업을 해온 김유선 작가는 자신의 〈무지개〉라는 작품과 김영준이라는 공예가의 〈코스모스〉라는 작품이 유사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영준은 '한 번도 본 적 없다. 우연히 비슷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황인기 작가의 〈금강전도〉와 김종숙 작가의 〈인공의 풍경〉 두 작품 모두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차용한 작업으로 김종숙이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습니다. 두 작품 모두 독창성이 없다는 판결문의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대구미술관 신진 작가 공모전에 당선된 박정현 작가의 〈disturbing〉은 손몽주 작가의 고무밴드를 활용한 설치 작품과 외견상 유사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박정현을 옹호하는 소견서를 이론가나 기획자들이 써주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전시금지 가처분을 받고 철거되었습니다. 배종헌의 〈별을 그리는 방법〉은 제2회 고암 이응노상 수상전(작업집서)을 열면서 이슈가 되었고, 천영미 작가는 〈비밀의 별〉로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습니다. '별'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 태도를 갖고 있지만, 온전한 별이 아니라는 형태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세대 예술인력육성사업에 선정된 한정우 작가는 미국 작가(Mike Womack) 작품의 표절을 인정했습니다. 최근 이명호 작가는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 마리 카트란주(Mary Katrantzou)가 자신의 2013년 작품 〈나무…#3〉을 도용해 상품을 만들었다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사실 표절 시비를 걸지 않은 많은 사례는 미술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사 작품들이 거래되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작품보

예술적 양식에서 공통의 것은 어느 범위까지인지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표절을 한 개인의 의도적이고 비양심적인 행위로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창은 문학평론가, 중앙대 교양학부대학 교수

작가는 어떤 권위가 표절자를 인정해줄 때 그것을 제일 힘들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창성과 새로움이라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가 미술판에서 위협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김지연 미술평론가

1 토론회 자료집에서 발췌.
2 최원. 표절에 대한 짧은 소회. 〈문화과학〉 2015년 겨울호(통권84호), 2015.12, 306~313
3 철학자 슬라보이 지제크(Slavoj Žižek. 1949~)가 자주 쓰는 개념으로 서로 대립하는 두 개념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퇴장하는 개념을 가리킨다. (출처: 〈한겨레〉 '유레카 | 사라지는 매개자', 고명섭 기자. 2012. 2. 5)

표절을 다루는 다양한 층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저작권 문제로 해결해서도 안 되고, 작가의 윤리로 몰아가서도 안 됩니다. 표절 문제가 저작권과 법적 권리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김소연 연극평론가

다 아류가 훨씬 잘 팔리고, 아류처럼 하는 작가를 밀어주기도 합니다. 표절 논쟁이 등장할 때 윤리나 도덕을 얘기하는 풍토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스타일이나 재료, 도상이나 콘셉트를 한 작가가 독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는 논리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가의 양심에 맡겨야 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못 알아보더라도 작가는 압니다. 그런 상태에서 매개하는 사람이나 판단해서 권위를 실어주거나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갖고 유사한 작업의 유통망을 바라봐야 할지가 숙제입니다.

발제3 비평은 표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발제자 **김소연** 연극평론가

연극계의 표절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가기는커녕 대부분 가십 기사로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어떤 작품과 비슷하다고 떠들기는 하지만 책임을 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SNS는 전체 공개를 할 경우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문자라는 기록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나마 해외 공연에 대한 표절 의혹이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매체의 영향이 큽니다. 영상 기록이 발전되었다 하더라도 공연은 원본 대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표절 여부를 확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더 어려운 것은 공연의 독자성입니다. 예를 들어 두 공연의 무대 디자인이 유사해 보일 때, 연출이 표절한 것인지 디자이너가 표절한 것인지, 대본 자체의 유사성 때문인지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물꼬가 터진 건 이미지의 유사성이지만 그것만으로 표절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극계에는 표절 논의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극계 원로의 회고담 같은 곳에서나 포착되지 기록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극평론〉 2016년 봄호(Vol.80)의 '연극과 표절' 특집이 아마도 공개적인 논의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표절 논란이 나오면 창작자의 윤리라든지 고발 정신, 용기와 결단으로 자꾸 이야기가 흐르는데요. 용기만으로 지금 얽혀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연극에서 표절 논란을 일으키는 작품들의 공통점은 뒤늦게 원본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표절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처음 보았을 때 세련되고 혁신적인 무대라는 상찬이 쏟아진 작품도 많습니다. 비평이 이 작품의 성취가 지금 여기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조금만 더 잘 읽을 수 있었다면 표절을 의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서구 연극의 이식 혹은 수용으로 시작된 근현대 연극은 여전히 그러한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단 창작자만이 아니라 비평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서 빨리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저들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콤플렉스는 오히려 비평계에 더 만연한 것이 아닌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수용과 이식의 종이 한 장 차이를 구별하고, 자기 삶에서 자기 연극을 발견해내는 안목을 키우고 탄탄히 해내는 것이 비평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엽 연극계 안에서 표절에 대한 하나의 가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유학 갔던 분들은 당시 유행하던 리얼리즘 계열의 연극을 정극의 개념으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1960~70년대 유학을 갔던 1세대 선생님들의 경우, 본인들의 세계관은 상당히 보수적인데 예술철학 안에서는 아방가르드하고 실험적인 연극을 보고 오신 것 같아요. 결국 서양 연극을 정극이라 보고 본인들의 세계관으로 이해하지 못한 미학적인 질문들을 형식적으로 차용하게 되는 결과를 표절했다고 하는 의식적인 측면이 있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부르주아적인 토대를 갖추고 있으면서 철학적인 세계관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학을 정극으로 수용하다 보니 트렌드의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요. 어르신들을 보면 외국 연극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취적인 기호를 갖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해외에서 공부하던 당시에 취한 태도와 한국 사회 안에서 실현하는 방식과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철학과 방법론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의 미장센이라든지 표현 기법만 앙상하게 남다 보니, 결국은 하나의 형식으로만 존재하는 표절에 가까운 형태가 된 것이지요. 지금 활동하는 선후배들도 철학적 가치나 사회사상으로서의 실험이 아니라 미장센 차원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정 예술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연극의 미약한 토대 안에서 서양극이 정극이고 트렌드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연 연극에서는 표절이 누구의 것을 지켜준다는 말이 아니라는 점이 논의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서구문화

의 모방과 이식 과정에서 표절이라는 관행, 창조성에 대한 자기반성이 무뎌져 있는 양상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김재엽 연출가가 얘기한 표절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훔친 것이라기보다는 관점이나 철학이 부재한 상태에 껍질이 들어오고 그 껍질이 계속 흥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김종길 미장센에 머무르고 있는 지점, 창작의 방법론이나 실험이 부족한 부분, 외국 연극에 대한 한국 연극의 태도로서의 하위적 인식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표절의 지점이 있다는 지적은 따끔하게 들립니다.

홍지석 예술에서 표절은 엄격하게 규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제시해주신 사례마다 문제의 층위가 조금씩 다른데요. 다양한 사례별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표절 사례를 열심히 모아야 하고 이것이 단편적인 추문으로 남지 않으려면 좀 더 엄격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표절 논쟁이 발생했을 때 진행되는 과정, 제기되었던 관련 이슈, 비평, 신문기사, 법적 판결문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추이를 관찰해서 모아놓는 접근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편적인 하나의 법으로 문자화해서 어디까지가 표절이라고 기록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니 오히려 표절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많이 알고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혁 저는 표절 문제에서 '사라지는 매개자'라는 개념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표절은 사적 소유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저작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이 예술의 장에서 사적 소유의 개념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착취의 바탕이 되는 개념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절을 용인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는 표절을 해서 자신의 것을 만들어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조경란의 〈혀〉 논쟁도 있었는데요. 유명한 소설가와 출판사는 무명 소설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판, 저작권을 행사해 이득을 보지만 그 아이디어 제공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표절은 사실 유사성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표절의 바탕이 되고 있는 노동, 원본임을 주장하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해놓은 것을 갈취해 가는 부분까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표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창은 '사라지는 매개자'는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사라지는 매개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 권력의 화신으로 변절됨

니다. '사라지는 매개자'였다가 거기에 대한 공허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때 그것을 수행해야겠다는 의지가 개입되고 나로 수용되기를 원하는 순간 파시즘적인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철학적인 문제 제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김종길 표절이라는 근대 이후 개념의 논쟁성을 여러 층위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표절 문제를 강렬하게 비판하기 시작하면 작가주의 논지를 옹호하는 측면이 발생합니다. 작가주의는 비평의 전문성 문제를 끌고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나 차이를 드러내야 하고 닮아 있는지를 비평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사라지는 매개자'가 갖고 있는 과거 서사의 전이적인 현상들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법적 문제나 윤리성 문제로 접근해온 지점은 비평계가 따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철학과 방법론이 부족한 상태에서 표현 기법만 앙상하게 남다 보니, 표절에 가까운 형태가 된 것이지요. 특정 예술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연극의 미약한 토대 안에서 서양극이 정극이고 트렌드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엽 연출가, 드림플레이테제21

우리는 표절 사례를 열심히 모아야 하고 좀 더 엄격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단편적인 하나의 법으로 기록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니 표절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많이 알고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지석 미술평론가, 단국대 연구교수

표절이 제기되고 증폭되는 지점

홍지석 미술계에 잠재한 많은 표절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들이 이슈화되는지, 작가들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점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표면에서 만나게 되는 표절 문제들은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을까요.

김지연 처음에는 재산권 침해와 관련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미술 시장에서 나의 위치가 위험해질 염려가 있을 때 표절을 문제 삼는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막상 시장에서는 활발하게 유통되지만 표절이 의심되는 작가를 거느리는 예술가는 표절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의 층위가 굉장히 다양해서인데요. 예술가를 '급'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독창성과 좋은 예술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작가와 그 작가를 사전에 알아보는 컬렉터의 세계가 있다면, 이와는 무관하게 유사하지만 다른 것을 소비하고 생산하는 존재와 시장이 있습니다. 이 두 시장은 섞이지 않아요. 버젓이 '표절스러운' 작품을 작가가 만들고 그 작품을 누군가는 삽니다.

단순화해 생각하면 작가는 어떤 권위가 표절자를 인정해줄 때 그것을 제일 힘들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누가 잘 팔린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상을 받는다든지 작가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갔을 때입니다. 인정 투쟁의 장인 예술계에서 본인이 산고를 겪으며 생산한 생산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유사한 것을 인정해주는 행위를 만났을 때 용인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독창성과 새로움이라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가 미술판에서 위협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창은 1999년과 2000년에도 비평가들이 신경숙의 표절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문학계에서는 유명한 사건이었지만 시민사회로 확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사건이 증폭된 중요한 원인은 아래로부터 끌어올라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미디어의 대응이 중요했다면, SNS로 맥락이 달라진 것이 주요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학에서의 표절 문제는 당사자성이 강했습니다. 당사자의 문제 제기에 대응해서 대상이 상징 권력을 갖고 있을수록 문제의 파급효과가 컸습니다. 신경숙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시민사회의 배신감이었습니다. 막대한 자본권력과 부합되는 연장선상에서 출판사인 '문학동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의 축적 과정에서 나도 피해자라는 의식이 증폭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시민사회가 연루되어 있어서 증폭된 것이지 문학이 특별해서 그랬던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윤리 문제로 국한되는 것 경계해야

홍지석 표절을 정의롭게 비판하고 단죄하면서 얘기할 때 갖게 되는 우려는 부정하고 싶은 이야기를 옹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표절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작품에 대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 스타일의 독점, 창의성, 독창성이라는 다소 낡아 보이는 개념들을 옹호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자본의 사적 소유를 옹호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절을 비판할 수는 없을까요.

오창은 우리는 표절을 개인의 윤리 문제로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윤리 문제를 심오하게 따져보자는 순간, 전문가주의라든지 작가를 옹호한다든지,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논의가 되곤 했습니다. 신경숙 표절 사건은 1년 정도 지나고 나니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한 비양심적인 작가의 일탈 행위인지, 근대 예술의 형성 과정에서 필연성이 존재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서구적인 것을 닮아가거나 양식을 가져오지 않으면 낙후된 것으로 얘기되고, 세계화 담론이 거창해질수록 오히려 표절을 강요하는 형태가 되는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떻게 가능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술적 양식에서 공통의 것은 어느 범위까지인지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모든 표절을 한 개인의 의도적이고 비양심적인 행위로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소연 저도 표절 문제를 윤리로 극복하려고 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남의 것을 훔친 것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 권리나 권력을 강화해주는 양상으로 전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리어 '다 표절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역발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표절을 다루는 다양한 층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저작권 문제로 해결해서도 안 되고, 작가의 윤리로 몰아가서도 안 됩니다. 현상을 분리해서 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작권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경란의 〈혀〉와 드라마 〈피리 부는 사나이〉는 같은 사례입니다. 공모전의 심사위원, 권위 있는 전문가가 아이디어를 빼갔다는 표절 논쟁이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행사하는 부분에 대한 저작권적인 개념을 법적으로 명료하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절 문제가 저작권과 법적 권리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표절 논의를 통해 도리어 지양하고자 했던 가치를 옹호하는 꼴이 되는 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표절을 해서 자신의 것을 만들어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사성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표절의 바탕이 되고 있는 노동 부분까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성혁 문학평론가

표절 사건, 그 이후를 생각하다

오창은 신경숙 표절 사건은 기존의 한국문학계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출판계가 힘든 상황에서 작품이 있음에도 출판을 하지 않는 타격이 있었습니다. 작가들 입장에서는 자존감 훼손이 컸고요. 매체 측면에서는 편집위원이 전면적으로 개편되고 구세대의 퇴장이 있었고, 조직 측면에서는 자기 성찰을 하는 소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젊은 작가들의 '기존의 창비나 문학동네가 아닌 다른 방식은 없을까' 하는 시도에 조금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작가들의 자존감 회복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신경숙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문학에 대한 환멸로 시민사회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김재엽 사실 연극에서 상품으로서의 표절은 논외가 되어 있습니다. 재공연의 저작권이라든지, 초연은 연출가가 했는데 프로듀서가 재공연하면서 자기 연출로 하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공공 극장에서 표절했던 연출가가 그 작품을 통해 유명해지면서 하나의 권력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분이 심사에 들어가고 작품을 통해 권력을 가지면서, 권력에 대해 얘기하지 못하는 검열을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습니다. 표절 문제는 상업 권력이든 공공 권력이든 검열과도 겹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 연극계에서는 표절과 검열이 같은 의미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검열에 대해 싸우지 않는 예술가들은 표절의 추문에 같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종길 표절은 철학적 논지 안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신경숙 본인이 권력이면서 출판사 뒤에 숨은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자본이 깊게 개입해 있어서 본인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수상 제도라든지 표절 작가가 사회적으로 잘 팔릴 때 원작자가 소송하는 방식이 얽혀 있는 것입니다. 예술의 표절 문제가 좀 더 깊게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제기의 여지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본 토론회는 자율실천공공회의(준)와 리얼리스트100의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현장+담론' 프로젝트에서 후원했습니다.
* 토론 내용은 서울문화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며 [문화+서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사진
최영진

그린디자이너 양지윤

좋은 디자인의 중심에 '자연'을

환경문제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전혀 모자라지 않다. '친환경' '자연주의'를 강조하는 제품이 호응을 얻고 재료를 재활용·재사용해 탄생된 제품 및 작품이 가치를 인정받는 가운데, 일상에서 자연을 아끼고 생각하고 실천에 이르도록 '경험'을 선사하는 디자인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른바 '그린디자인'이다.

1

2

나는 곤충과 동물을 유난히 좋아하는 소녀였다. 외출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항상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길에 핀 꽃과 예쁜 돌멩이, 신기한 곤충에 시선을 빼앗겨 한참을 관찰하다 돌아왔기 때문이다. 집에 와서는 그날 관찰하고 느낀 것들을 스케치북에 그려 엄마에게 자랑한 기억이 있다. 아마 이 시절에 자연친화적인 감수성이 생겨난 것 같다.

시간은 흘러 스무 살에 미대에 입학했다. 매체에서 그려내는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한 큰 환상이 있었고 부지런하게, 때론 밤샘 작업도 하면서 학기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채점이 끝난 과제로 가득 찬 쓰레기통을 보며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동안 밤을 새우며 돈과 에너지를 잔뜩 들여 만든 결과물인데, 채점을 마치면 가치가 없는 쓰레기가 돼버리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이날 이후 학교 밖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린디자인, 환경을 일상으로 초대하기

환경을 주제로 전시하는 대학생 연합 동아리 '그린원' 활동을 시작했다. 그린원에서 매주 환경문제에 대해 스터디하고, 우리 생활에서 작은 힘을 들여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적 행동을 공유하며 실제 실천으로 옮겼다. 그때 느낀 것은 개개인이 직접 풍력발전소를 세우거나 대체 에너지를 만들기는 힘들겠지만, 일상에서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부터 하는 것이 환경을 위한 길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중국 쿠부치 사막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연 전시에서 '그리닝(Greening)'(사진3)이란 이름의 카드로 구현되었다. 이 카드를 열면 팝업 형태로 벌거숭이 나무가 나타나고 그 위에 '나 [ ]는

(은) 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문장과 환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적혀 있다. 실천에 옮길 것을 약속하는 의미로 초록색 지장을 나뭇가지 위에 찍으면 초록 잎사귀가 생기면서 나무가 살아나는데, 이는 우리의 작은 손길(행동)이 나무 한 그루, 나아가 자연을 살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닝은 전시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국제 공모전 'Green Earth'(디자인 전문 사이트 디자인붐, 일본디자이너협회 주최)에 출품해 운 좋게도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나는 '그린디자이너'라는 타이틀과 함께 다양한 작업 기회를 얻게 되었다. 당시(2008년)는 그린디자인이 떠오르고 주목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유명 해외 디자인 사이트에서 그린디자인 공모전 대상 수상은 꽤나 파급력이 컸던 것 같다. 2010년 TV 커머셜 광고에 사용되었을 만큼 큰 관심을 받았는데,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지만 어떤 타이틀을 얻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영국으로 어학연수 겸 여행을 떠났다. 작은 어촌이었는데 집집마다 넓은 정원이 있고 마을에 숲이 인접해 있는 곳이었다.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정원에 나가 식물을 관찰하거나 숲길을 거닐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이 경험을 통해 자연을 가슴으로 느끼고 소중함을 아는 것이 어쩌면 환경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다음 작업으로 일상에서 만나는 오브제에 자연의 소중함을 녹여내 우리의 감수성에 스며드는 제품을 기획하기로 했다. 2012년 12월 '마치(MARCH)'라는 브랜드로 디자인 페스티벌의 '신예 디자이너'로 선발, 전시에 참가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친환경 디자인의 수요와 가능성은 확대되는 중

마치의 제품으로 벌레 먹은 나뭇잎에 맺히는 햇살에서 영감을 받은 노트 '햇살의 모양'(사진1)이 있다. 이 노트 커버에는 나뭇잎이 형압으로 표현돼 있고 벌레 먹은 듯 구멍이 나 있다. 노트를 열면 구멍으로 쏟아지는 빛이 첫 번째 페이지에 맺혀 햇살의 모양을 볼 수 있다. 일상에 가득하지만 우리가 지나쳐온 자연의 아름다움을 디자인에 녹여내고 싶었다. 두 번째 작업은 씨앗카드(사진2)다. 무언가를 유심히 응시하는 소녀의 형상, 그가 디딘 발 아래에 씨앗이 부착되어 있다. 이 소녀를 흙에 세워주고 물을 주면 그 아래 있는 씨앗이 발아하면서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된다. 소녀가 새순을 가만히 바라보는 모습, 이들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통해

그리닝 사용방법

인간과 자연에 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라며 디자인했다.

친환경 디자인은 재사용, 재활용, 재료의 최소한의 사용, 또는 표현 주제에서 친환경성을 드러내는 것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면서 조형적인 아름다움과 적정 소비자 가격 그리고 대중성을 갖추기란 쉽지 않은 것 같다. '마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디자인으로 공유하며 생분해, 재활용, 재사용을 소재의 콘셉트로 하고 계속 '좋은 디자인'에 대해 고민한다. 워낙 카테고리가 많고 유행은 빠르기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다.

환경을 소재로 한 작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고 니즈(needs) 역시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재활용, 친환경 소재는 일반 소재보다 가격도 비싸고 주로 수작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창업 초기에는 친환경 브랜드로서 경쟁력을 얻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불가피한데, 작업실이나 초기 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좋겠다. 작가 레지던스인 신당창작아케이드처럼 '그린디자이너'에 대한 공간 지원 기회가 확대되면 이를 토대로 창작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전시도 하면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개발된 친환경 신소재를 함께 수입하거나 소재 스터디 등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들에 힘을 모은다면 더 큰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린디자이너가 되려면?

❶ 가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나가 산책할 것을 추천한다. 아름다움을 많이 발견해야 표현할 수 있으니까!

❷ 만약 이미 무언가를 시작했다면 자신에게 '그린디자이너'라는 수식어가 적합한지 끊임없이 의심해볼 것 (나는 아직도 그렇게 자문하곤 한다).

글·사진
양지윤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공간디자인을 전공했다. 대학 시절 환경문제를 주제로 전시하는 동아리 활동 중 해외 공모전 대상 수상을 계기로 디자이너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만진 시간, 당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에만도
인생은 짧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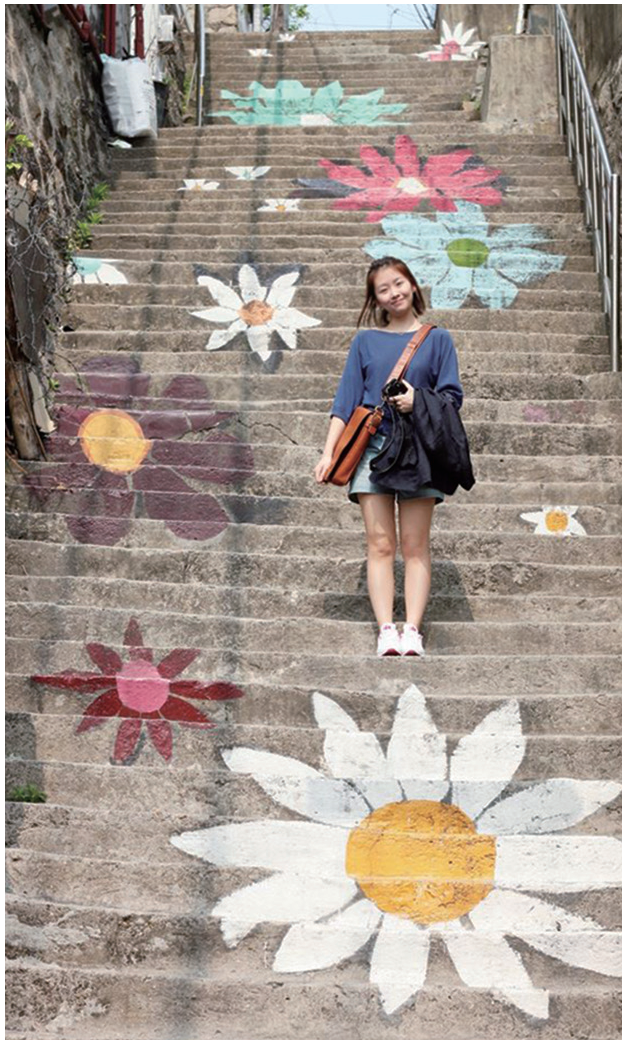
김선우 시 '게이트리스 게이트' 중에서

사진 **최영진**

이화마을 벽화 훼손 사건, 갈등과 과제

공공미술의 진화, 갈등의 역사와 함께하다

지난 4월 이화벽화마을의 대표 벽화 〈해바라기 계단〉과 〈잉어 계단〉이 주민에 의해 훼손됐다. 공공미술과 도시재생, 그로 인한 방문객의 증가, 해결되지 않은 주민의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 어느 한쪽의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한편으로 이는 드러난 갈등을 확인·해결하고 마을 상생의 제2막을 모색할 기회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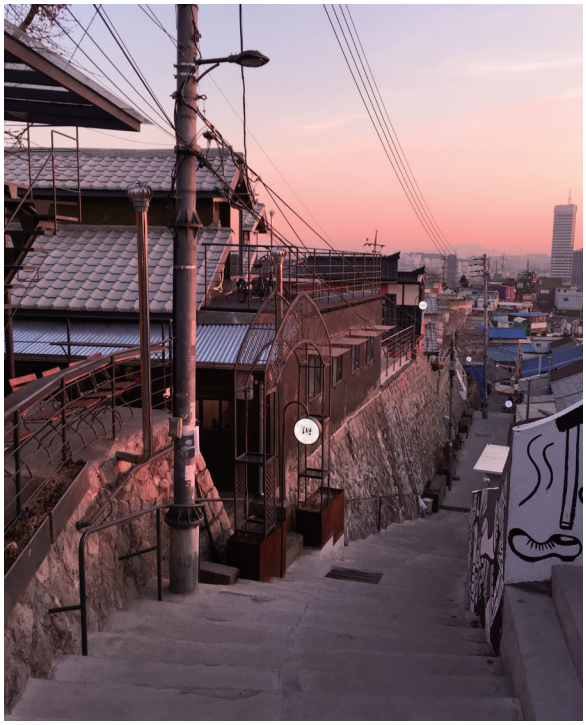
5월 초 방문한 이화벽화마을은 관광객과 사람들의 발길이 현저히 줄어든 모습이었다. 지난 4월 15일과 23일, 이화벽화마을을 대표하는 〈해바라기 계단〉과 〈잉어 계단〉을 마을 주민이 직접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마을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벽화를 훼손하는 행위의 보복성과 자폭성이 대중과 공공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문화 테러행위로 인해 공공의 적이 된 가해자들의 행위는 주거권을 박탈당한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동시에 표명하고 있는 터라 사건을 접하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결과적으로 훼손된 벽화의 복원 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벽화를 훼손한 주민 5명은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복원 작업을 위해 필요한 5300여만 원 상당의 복원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주거권에 해당하는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거친다면 대략 6개월 정도가 지체된다. 정부는 이마저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을 자극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벽화 훼손사건 뒤 이화마을의 새로운 국면

이화벽화마을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낙산프로젝트'라는 공공미술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금의 벽화마을을 조성할 수 있었다. 당시 낙후돼 침체기를 겪고 있던 마을의 주민 대부분이 개발에 찬성했다고 한다. 이후 마을이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면서 이로 인한 소음과 불편을 두고 주민들 간에 파벌이 생겼고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합의점을 상실했다. 제3자에 해당하는 방문객의 발길에도 원망이 더해졌다. 이것은 마을의 존폐 위기를 벽화로 지켜낸 '동피랑 벽화비엔날레'와 수준 높은 대형 벽화로 원주민을 자연스럽게 설득한 '그래피티 부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체 내부와 외부의 '공동목표 설계'가 공공미술 실행 단계부터 지역 공동체와 공공미술의 화합을 이루기까지 중요한 열쇠가 됨을 시사한다.

하지만 잃어버린 벽화 덕분에(?) 이화벽화마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화벽화마을이 여전히 희망적인 이유는 특히 끝자락에 형성된 상권 지역의 공공성이 주거권에 거주하는 주민을 아우르며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바라기 계단을 지나 정면으로 보이는 동그란 간판에는 '마을박물관'이라고 적혀있다. 이곳을 시작으로 마을박물관, 작가 공방, 대장간, 부엌박물관, 주택전시관, 갤러리 등이 하나의 골목에 늘어서 있으며 동그라미 간판으로 통일성을 더했다. 2012년 이화벽화마을의 재개발이 무산되자 최홍규 쇳대박물관 관장이 총괄감독을 맡아 시작된 '마



을재생 10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긴 것이다. 최 관장은 마을 끝자락의 박물관 골목에 있던 폐가 6채를 사들여 공간이 필요한 예술가들에게 임대했다. 이곳에서는 전통 미술 및 마을과 관련된 프로젝트와 전시들이 열리고 있다. 이에 대해 혹여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1]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마을의 자생력을 전제 조건으로 주민과 외부인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전조를 보는 것 같아 내심 기대도 된다. 실제 이화벽화마을의 주거권이 있는 주민들의 생산품을 팔 수 있는 매대를 품목별로 제작해 곧 사용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벽화마을 제2막은 사람과 미술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공공미술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 국내 공공미술은 1970년대 상징 조형물로 시작해 1980년대 도시 미화 차원의 모더니즘 조각의 등장과 1990년대 장소 특정적 공공미술과 건축미술장식제도의 의무화, 2000년대 도시기획 차원의 공공미술 활성화, 대규모 공공미술 사업으로 변천되었다. 벽화 역시 공공미술 장르로서 2000년대 활성화되었다.

이화벽화마을은 풍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1300년대 축조된 서울성곽이 마을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고 시멘트 벽과 한옥 지붕을 접목한 적산가옥들은 사실 전망 좋은 고급 빌라의 시초가 되었다. 또한 혜화동 일대의 공연장과 대학가 지역이 상호작용할 만한 예술적 요소와 탁월한 지역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화벽화마을의 중심에 있는 벽화가 마을 재생의 제1막을 맡았다면 앞으로는 공공의 목표를 다시금 재정비한 다음, 제2막은 벽화와 맞물린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를 수용하는 것에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 지역 공동체와 방문객 그리고 예술가 및 기획자들 간에 도출될 수 있는 교육과 노동, 지역 발전 등의 문제를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과 관광객이 직접 창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면 좋겠다. 마을 안에서 또 다른 커뮤니티가 조성되고 활성화된다면 공공미술로 인해 정작 소외된 개인과 지역민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화벽화마을의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 벽화를 둘러싼 관념을 타파하고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 이 태도가 우리가 공공미술이란 용어에 사로잡히지 않고 공공미술 안에 있는 사람들과 미술을 이해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1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글
박정원
현재 독립큐레이터로 활동 중이며 미술과 관련된 자유 기고 활동을 하고 있다. 2005년부터 사설 갤러리와 미술관 레지던시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했고, 최근 2년 6개월간 〈월간 미술세계〉 편집장을 지냈다.

사진 제공
쉿대박물관, 최진영

1

서울시의 박물관·미술관 건립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와 우려

6년 만에 서울을 뮤지엄 도시로?

서울시가 2022년까지 서울시내 곳곳에 박물관과 미술관 총 13개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수면으로 드러나며 문화예술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서울이 문화적으로 도약할 중요한 기회인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밑받침되어야 한다.

"6년 안에 서울에 박물관과 미술관을 다수 건립해 뮤지엄 도시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은 획기적이다. 한국에서 전례가 없었던 대형 문화 프로젝트다. 앞으로의 관건은 그 기간 안에 충실한 콘텐츠를 채울 수 있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의욕을 보이고 있는 '뮤지엄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 미술계의 한 평론가는 이런 촌평을 던졌다. 2년 전부터 박 시장의 의지에 따라 시에서 추진해온 이 뮤지엄 건립 사업이 문화예술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점차 문화판에 실체가 알려졌고, 올해 상반기를 넘기면서 구체적인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는 중이다. 2022년까지 서울 도심과 변두리 곳곳에 다양한 분야의 박물관, 미술관을 잇따라 짓고 각각 운영 체계를 세우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세부 안을 살펴보면 더욱 놀랍다. 공예박물관, 서서울미술관, 미술도서관, 백남준기념관, 로봇뮤지엄, 생활사박물관, 사진미술관 등 무려 13개나 되는 박물관, 미술관을 3000억여 원을 들여 시내 곳곳에 설립하는 프로젝트가 구상 단계를 넘어 실무 작업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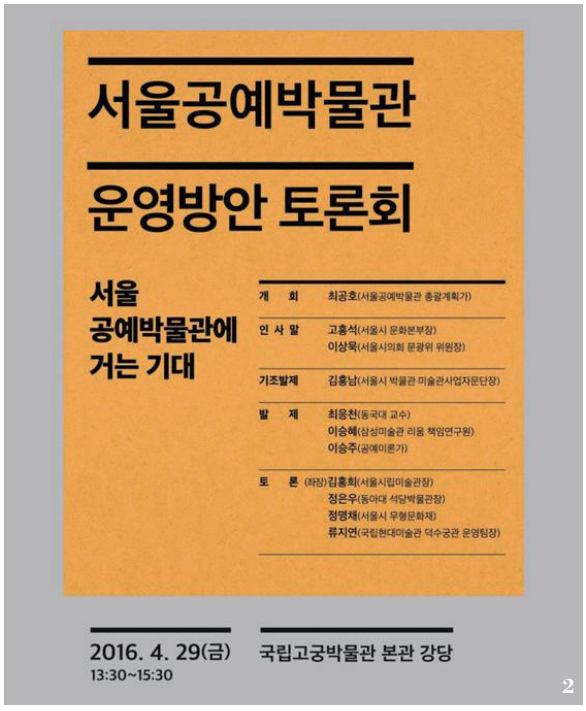
4개 미술관, 9개 박물관 건립 사업 일부 돌입

이 뮤지엄 사업은 지난해 6월 시 안에 박물관 진흥과가 신설되면서 처음 표면화됐다. 시 쪽은 박물관 진흥과를 중심으로 연말 13개의 뮤지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새 시설을 운영할 산하 기관들을 지정하는 등의 실무 작업을 벌여왔다. 앞서 박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2014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박물관 미술관의 대대적인 증설 계획에 대한 의향을 밝혀왔다. 박 시장은 애초 작은 생활미술관·박물관을 표방하는 수백여 개의 자투리 뮤지엄 구상을 측근, 직원들에게 쏟아냈다는 게 시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지난해 가을 박 시장의 문화계 측근인

김홍남 이화여대 교수(전 국립중앙박물관장)가 사업 자문단장 역을 맡으면서 13개 프로젝트로 추려냈다고 한다. 3월에는 전담 준비조직인 문화시설사업추진단 직제도 통과시켰다. 시 쪽은 올해 7월 중으로 추진단을 공식 출범하고 연말까지는 미술관·박물관 건립의 구체적인 기본안을 확정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가장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곳은 서울시립미술관이다. 올초 별개의 추진 조직인 세마(SEMA: 서울시립미술관의 약칭) 분관 조성팀을 이미 만들었고 전담 기획자도 영입한 상태다. 미술관이 관장하는 프로젝트는 일단 네 곳으로 정해졌다. 서울 금천구청 뒤켠의 녹지공원에 건립을 추진 중인 서서울미술관을 비롯해 평창동 옛 가스충전소 터에 들어설 미술도서관 등의 문화복합공간, 창동복합문화지구에 건립되는 사진미술관, 창신동 골목의 백남준기념관이 그것이다. 백남준기념관의 경우 생가 터에 있던 기존 한옥의 리모델링이 거의 끝난 상태인데, 7월 개관할 예정이다.

신설될 박물관은 미술관보다 훨씬 많은 9개소에 달한다. 시 쪽은 이들 가운데 서울 북촌인 안국동 풍문여고 건물에 들어설 공예박물관 사업에 가장 주력하고 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한국 공예 장르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대규모 시설로 만든다는 게 기본 구상이다. 뮤지엄 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인 1300억여 원을 투입해 시 직영 박물관으로 운영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북부지원터에 들어설 생활사박물관과 돈의문 터의 도시재생박물관, 동대문 한양도성박물관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운영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창덕궁 돈화문로의 민요박물관과 백제 사적인 풍납토성 발굴 현장의 야외박물관, 성북동의 조선시대 생활사거리 박물관,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용 에듀테인먼트 전시장을 내세운 창동 로봇박물관은 운영 주체를 놓고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2

미술계와 문화재계 등에서는 미국, 유럽 대도시에서 추진했던 뮤지엄 도시 프로젝트를 국내에서 시도하는 첫 사례인 만큼 이 사업의 결과가 다른 지자체의 문화 인프라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제대로 된 문화시설을 갖지 못했던 서울 변두리 곳곳까지 크고 작은 복합적인 박물관·미술관을 만들어 좀 더 균등한 문화 복지를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구상한 사업"이라는 게 김홍남 자문단장의 설명이다.

장기적인 안목과 충분한 의견 수렴이 뒷받침돼야

그러나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뮤지엄 프로젝트의 앞날이 마냥 장밋빛 일색은 아니다. 방대한 인프라와 인적인 기획 역량이 필수적인 만큼 프로젝트가 좀 더 장기적인 안목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선진국처럼 도시 곳곳에 뮤지엄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5~6년 만에 전시 인프라까지 완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이다. 미술관, 박물관의 분야별 장인, 작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더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000평을 넘는 방대한 면적에 투입 예산도 가장 많은 공예박물관의 경우 기존 풍문여고 교사(지하 1층, 지상 4층)를 그대로 리모델링해 쓰게 되는데, 시설의 용도와 정체성을 놓고 장인과 서울시, 전문가 사이에 이미 이견이 노출된 상태다. 김홍남 자문단장 등 박물관 설립을 추진해온 전문가들은 한국 공예사를 단계별로 보여주는 역사박물관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시 지정 무형문화재 장인들과 한국공예예술가협회 회원들은 자신들이 작업할 공간과 작품 홍보 거점으로 활용하게 해달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창동의 사진미술관도 애초 서울시가 구상한 초상사진 전용관으로 갈지, 한국 사진사 중심으로 전시 틀을 잡을지 등을 놓고 사진계에서 콘텐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단기간의 추진 실적에 치중하지 말고 조직의 성격과 운영 방향, 인력 확보 등에 대해 세심한 소통과 밑그림 작업이 필요하다고 문화계 인사들은 조언하고 있다.

1
서서울미술관, 백남준 기념관을 비롯해 네 개의 박물관·미술관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서울시립미술관.
2
큰 규모의 프로젝트인 서울공예박물관 건립은 관련 주체의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개토론회 등 소통의 자리가 꾸준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글
노형석
홍익대 대학원(미술사) 졸업. 한겨레 대중문화·출판 팀장과 문화에디터를 역임했으며 현재 미술·문화재 전담 기자로 일하고 있다.

사진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1

2

3

광역시도문화재단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창립총회 개최

연대와 협력으로 꽃피우는 지역문화의 씨앗

넓은 바다가 눈앞에 보이는 제주시 함덕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창단식을 겸한 정책 세미나와 문화융성위원회와의 상호협력 체결식이 지난 5월 말에 열렸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14개 시·도 문화재단 대표 및 실무자와 관계자들이 모였다. 서로 말투는 다르지만, 한목소리로 힘을 합쳐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전반의 문화 융성을 가져올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2012년 10월, 부산에서 시·도 문화재단 대표들이 모여 차기 정부 정책 제안, 지역문화진흥법 입법 등 현안에 대한 논의 후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며 협의체 결성을 추진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는 '지역문화 발전이 문화 복지 국가의 핵심이다'라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정책 세미나와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 협의체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문제점 등 문화정책 현안들에 대한 공통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또한, 문예진흥기금 고갈에 따른 예산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 편성과 이와 관련한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통해 문화예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등 지역문화를 담당하는 핵심 정책 주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 협의체는 2015년, 대표자회의에서 사단법인으로 전환해 공식적인 활동 주체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한광연')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의 역할과 방향성

창립총회에 앞서 '지역문화, 함께해야 할 일들'이라는 주제로 정

4

책 세미나가 진행됐다. 기조연설을 맡은 표재순 문화융성위원장은 "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한 씨앗은 지역에 있다"며, "지역문화의 진흥을 통해 문화 융성의 시대를 앞당기자" 라고 세미나의 방향을 설명했다.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예연구실장은 2014년부터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 발전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국가를 실현하려는 정책이다. 특히, 류 실장은 한광연의 실천 과제에 대해 "기초 단위의 생활 거점과 광역 단위의 거점, 국가 차원의 정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연결해주는 주체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미나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과 진부호 울산시문화예술과장,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정책위원인 서울문화재단 김해보 정책연구팀장이 참여했다. 장 연구위원은 문화향수권, 즉 '예술적인 아름다움이나 감동을 음미하고 즐길 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국가의 책무에 따른 최소 기준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적정 기준을 합해 지역별 문화향수권의 기준을 정해야 하며, 이 역할을 한광연이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과장은 2017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설립 추진 중인 울산문화재단의 설립 과정과 지역적 기대 효과를 소개했다. 지역문화재단이 가져올 주민 복리적 측면, 문화 재정적 측면,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 진흥 측면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김 팀장은 이번에 출범한 한광연의 전망과 목표, 실천 과제에 대해 '해야 할 일'과 '잘할 수 있는 일'로 나누어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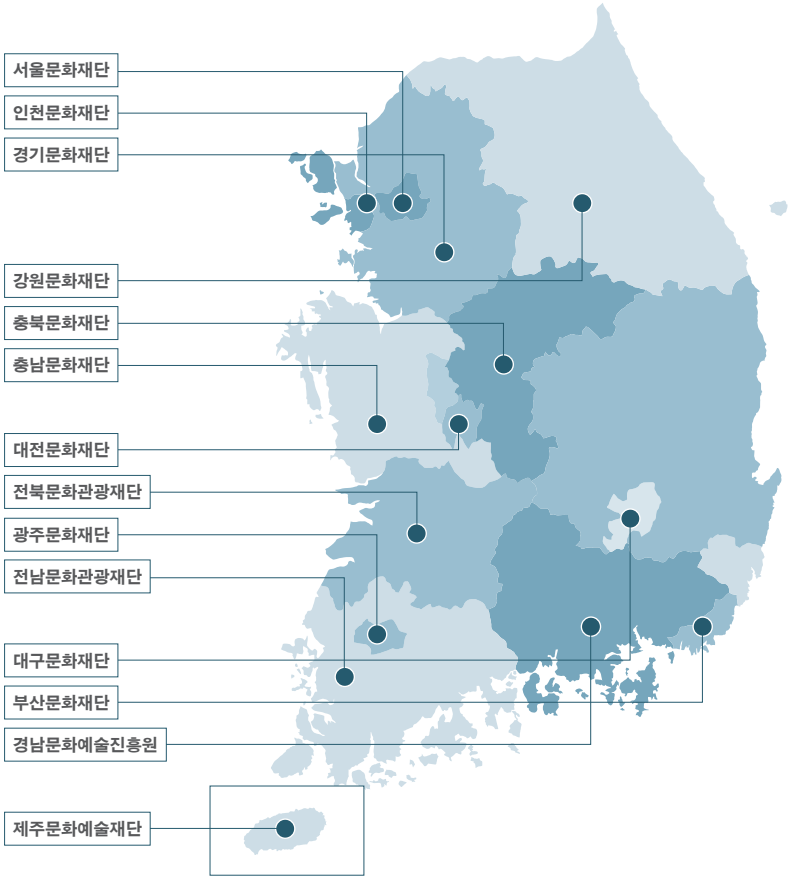
김 팀장에 따르면, 한광연이 '해야 할 일'은 먼저 지역문화를 주도하는 주체들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각 지역문화 생태계로 더 많은 활력을 유입하며, 문화 진흥을 위해 더 나은 제도를 개발하기 위한 협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 정책 주체들을 위해 지역문화를 진흥하는 역량 있는 주체로서의 역할, 국가 문화 정책의 효율적인 전달자 역할, 문화 정책 경영을 위한 협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과 소속 직원들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 시책을 수행할 때 효율성과 효과성

1
한국광역문화재단 연합회 창립기념 정책 세미나.
2
문화융성위원회와 14개 광역문화재단 간의 '문화융성과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MOU 체결.
3
한국광역문화재단 연합회 비전선포식.
4
한국광역문화재단 연합회 창립총회 개최.

5

로 모아주는 단일 창구가 생김으로써 얻어지는 전달의 효율성, 높은 파급력과 확산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광연의 목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연대,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협력'이고, 전망은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지역문화정책 경영의 핵심 주체 및 플랫폼'이다. 실천 과제는 '지역문화정책 개발 및 제안,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지역문화 주체들의 역량 강화'이다. 장 연구위원은 "한광연이 공동 사업 수행뿐만 아니라 앞서 나가는 이슈를 제기하는 역할,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하며 문화예술계에 화두를 던져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림〉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참여 기관 지도



을 높이고, 문화재단이라는 제도를 유지할 수 있게 기반을 조성하며, 각 문화재단의 공통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한광연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자원과 인력 풀(pool)을 연합해 다양성과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전국 단위 문화정책 연결망과 이를 한군데

융복합과 협업을 위한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출범

시·도 문화재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가 오간 정책 세미나 후 창립총회가 이어졌다. 행사 슬로건인 '연대와 협력'이란 글자가 수놓아진 분홍색 스카프를 목에 두른 시도문화재단 대표자들이 모여 한광연 설립 취지문을 선포하고, 정관과 운영 계획을 의결한 뒤 연합회의 초대 임원을 선출했다.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제4대 의장으로서 법인 설립준비위원장을 맡아온 대구문화재단 심재찬 대표이사가 만장일치로 한광연 초대 회장이 됐다. 심 초대회장은 "이제는 지역이 문화 발전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만큼 지역문화재단이 문화 발전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라며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사장은 김경식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와 현승환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됐고,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와 홍준영 변호사가 감사로 선출됐다.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발걸음

이날 마지막 순서로 문화융성위원회와 한광연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업무협약 내용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과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과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 지역민의 문화 향수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과 '문화가 있는 날'의 기초지자체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상호협력에 관한 것이다. 행사 직전인 5월 19일에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매달 마지막 수요일 국민에게 영화, 공연, 전시 등의 할인 또는 무료 관람 혜택이나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도 독려해나갈 예정이며, 지역문화융성과 '문화가 있는 날'의 지역 확산을 위해 시도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

6

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박영국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장무상망(長毋相忘, 오랫동안 서로 잊지 말자)'이라는 한자성어를 언급하며 한광연 출범이 '융복합과 협업이라는 시대의 키워드에 맞는 행보'라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 그 사이를 연결해줄 문화재단과 정부의 협업, 각 문화재단들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광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부기관이 각 시·도 문화재단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처음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이번 창립총회는 문화예술계와 각 시·도 문화재단 관계자들에게 매우 뜻깊은 행사다.

모든 순서가 끝날 때쯤 바깥은 어스름히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1박 2일간 문화를 생각하고 예술을 고민하며 밤샘 토론을 이어온 실무진의 얼굴에는 아직도 열정과 책임감이 가득했다. 소위 '먹고사니즘'에 치이지 않는 순수 예술에 대한 지원부터 각 지역에서 자생하는 문화를 지켜내려는 의지,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 중앙으로부터가 아닌 지역으로부터 발전해나가는 문화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대와 협력이라는 슬로건으로 이를 현실화하려는 의지가 엿보였다.

"모든 사회의 성장과 발전은 문화예술로 통한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 첫걸음을 내디딘 한광연이 배를 산으로 가게 하는 사공들의 모임이 아니라 동시대 문제를 함께 고민해 해결하는 동지들의 연합이 되어 든든한 뿌리와 실한 열매를 맺어나가길 기대해본다.

5
한국광역문화재단 연합회 창립기념 정책 세미나.
6
한국광역문화재단 연합회 창립총회에 참여한 14개 광역문화재단 직원들.

글
이현지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대리

사진 제공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전시장을 나온 미술, 예술이 넘치는 거리

작가에게는 세상에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시민에게는 생활 속 예술 감상의 기회를 주는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 이번 호에서는 삶의 여러 선택지 사이에서 매 순간 고민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칠판 앞에 불려 나와 긴장하며 문제를 풀던 어린 시절에 비유해 표현한 이두한 작가의 〈칠판2〉와, 삶에서 일이나 관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억지 미소를 솔직하고 익살스럽게 그린 서정진 작가의 〈스마일!〉을 소개한다.

이두한
칠판2

캔버스에 칠판 페인트, 유화, 파스텔
53×45.5cm
2011
70만 원

서정진
스마일!

목판에 아크릴
30×45cm
2013
27만 원

'바람난 미술' 사용법

- 나는 시민입니다. 작품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 우리는 기업입니다. 작품을 구매 혹은 대여해서 우리 회사의 예술지수를 높이고 싶습니다.
- 나는 작가입니다. 내 작품이 시민과 만나면 좋겠습니다. 대여와 판매의 길도 찾고 있습니다.
- 바람난 미술 전체 작품을 보려면? 바람난 미술 온라인 아트 갤러리를 방문해보세요. www.sfac.or.kr/artsgallery

* **문의** 02-3290-7140(서울문화재단 공공예술센터)

재래시장에서 만나는 〈시장에 간 서커스〉

삶의 온도에 섭씨 1도를 더하다

‘시장에 가면 배추도 있고~ 시장에 가면 가자미도 있고~ 시장에 가면 호떡도 있고~’로 이어지는 노래를 기억하는가. 좋아하는 먹거리 이름을 멋대로 갖다 붙이면 그만인 이 노래는 소풍 가는 버스에서 꼭 등장하는 단골 게임 테마송이었다. 소풍가기 좋은 5·6월, 서울 아이들에겐 이 노래에 덧붙일 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그건 바로 서커스! 어라, 그런데 요즘 아이들 시장을 마트로 바꿔 부르는 거 아니겠지….

1

웃음 한 소쿠리에 0원입니다

재래시장을 찾은 이들의 손에는 철제 쇼핑 카트 대신 인정 넘치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바코드 대신 구수한 말 한마디에 가격이 내리고 콩나물 한 움큼이 더해졌다. 그 기억이 무색하게도, 시장은 어느새 쉽고 편한 대형 마트에 밀려 골방 늙은이 신세로 잊혀가는 듯하다. 이제 주말 오후의 재래시장에는 파리 쫓는 회전 총채만이 바삐 돌아간다.

지난 5월 14일(토) 늦은 오후, 강북수유재래시장의 작은 공터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서커스가 열린다는 소문이 시장 가득 퍼진 모양이다. 공연 시작 10분 전, 핫도그와 어묵꼬치를 손에 든 꼬마 남매가 가운데 앞자리를 선점했다. 공연 준비를 하던 마린보이는 가방에서 신문지 한 장을 꺼내 남매에게 깔아준다.

공연이 시작되자 이 상냥한 마린보이가 초등학생이 겨우 들어갈 만한 빨간 자동차에 올라탄다. 그렇게 공터를 한 바퀴 돌고는 차 문을 열고 레드카펫을 펼친다. 지난해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마린보이의 ‘나홀로 서커스’(사진1)다. 공연이 무르익자 더 많은 이들이 공터로 모여든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신명 나는 음악 소리가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붙잡은 모양이다. 시종일관 무뚝뚝한 표정이던 채소 가게 주인도 어느새 가판대 너머로 고개를 쭈욱 빼고 서커스 구경에 열심이다.

삶의 현장에서 뜻밖의 행복을 일구다

긴장과 재미를 오가던 마린보이의 순서가 끝나자 팀 퍼니스트의 '퍼니스트 코메디 서커스 쇼'(사진3)가 이어진다. 서커스 예술가들이 항상 완벽하고 기묘한 곡예를 펼치는 건 아니다. 일부러 실수하고 넘어지고 공을 놓치며 관객들의 열띤 호응과 참여를 유도한다. 그들이 놓친 공은 고사리손을 가진 아이들이 주워주고, 열띤 공연에 흘러내린 구슬땀은 아이보다 즐거워하는 아빠가 닦아준다.

현란한 솜씨로 저글링을 선보이는 팀 퍼니스트의 공연에 백발이 하얗게 센 할머니는 "멋져~ 멋져부러~"라며 연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 마임 단막극을 볼 때는 "아이고~ 허무해부렀어!" "지금 비가 와서 옷 말리는 모양이여~"라며 할아버지들의 구수한 해설이 고명을 얹는다. 이렇듯 보통은 관람 예절을 어겼다고 비난받을 행동이 시장에서는 넉넉히 용인된다. 아니 오히려 공연에 감칠맛을 더한다. 바삭한 통닭 한 마리에 6000원, 푸짐한 손칼국수 한 그릇이 3000원인 시장 인심을 똑 닮았다.

팀 퍼니스트의 공연은 이튿날 은평대림시장에서도 이어졌다. 장소와 관객이 바뀌자 어제와 꼭 같은 공연인데도 또 다른 웃음이 피어났다. 그렇게 예술가와 구경꾼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서커스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서커스를 진행한 공터 옆에서 멸치 장사를 하는 채수원 씨는 "좁은 공터에서 공연을 진행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있긴 하지만 즐거움이 더 크다. 공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로 모이니까 홍보 효과도 있고 무엇보다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다 같이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좋다."라며 이번 행사의 취지에 동감했다.

살아 있는 사람들의 온도

다행히 대형 마트가 시장에 배어든 삶의 향기마저 대체하진 못한 모양이다. 오랜만에 발걸음한 시장에는 대낮부터 깍두기 안주에 막걸리 잔을 부딪치는 아저씨들의 불그스레한 얼굴이, 떡볶이 매대에 대롱대롱 매달린 아이들의 군침 넘기는 소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홀로 서커스'로 배꼽 잡는 웃음을 선물한 마린보이의 이성형 씨는 "이렇게 일상에서 갑작스레 만난 공연이 '시장에 가니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있더라!' 하는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시장에서는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 보니 배우의 세세한 표정과 숨소리까지 느낄 수 있다. 어느 순간 내가 객석을 침범하기도 하고 관객이 무대로 들어오기도 하는 즉흥성이 시장 공연의 매력이다."라고 말하며, '문화가 있는 시장' '예술이 있는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시장에 간 서커스〉는 6월 5일까지 매주 주말에 열린다. 5팀의 서커스 예술가가 은평대림시장, 금천시흥현대시장, 중곡제일시장, 강북수유재래시장에서 총 32회의 공연을 펼칠 예정이니, 부대끼는 삶이 가물가물하다면 장 볼 거리가 많지 않더라도 시장으로 향해보자. 삶의 체취가 짙게 밴 서울의 재래시장, 그곳에는 가장 뜨거운 삶이 있다. 물론, 딱 1℃만큼 후끈한 열기를 더하는 서커스 공연은 시장 인심이다.

2

3

2
지난 5월 15일 은평대림시장 〈시장에 간 서커스〉에서는 일본 아티스트 다이스케의 '스트리트 서커스'가 진행돼 시장을 들썩이게 했다.

글
방원경
서울문화재단 시민기자

사진
방원경, 서울문화재단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복합문화공간 '플랫폼창동61'

창동에 음악과 문화가 피다

명동, 신촌, 홍대 앞을 이을 음악의 새로운 중심지가 창동에 생겼다. 문화예술에서 소외되었던 서울 동북 지역에 음악 전용 공연장이 탄생한 것. '플랫폼창동61'은 음악뿐만 아니라 푸드, 패션, 포토 등 다른 분야도 즐길 수 있어 지역 사람들에게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창동의 초입, 새로운 색깔과 음악을 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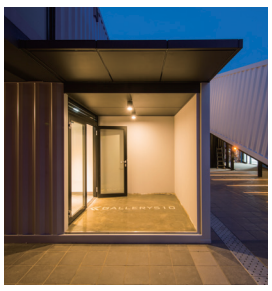
공연이나 강연 등 문화생활을 즐기러 가기에는 생소한 지역 창동. 지하철 1·4호선 창동역에 내려 1번 출구로 나오면 다양한 색깔의 컨테이너 건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 컨테이너들이 바로 '플랫폼창동61'. 실제 해상 운송에 쓰이던 컨테이너를 옮겨 재활용한 공간으로, 이름에 붙은 '61'은 전체 공간의 규모가 컨테이너 61개를 모은 것과 맞먹는다는 의미다.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는 이곳이 문화예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창동에 터를 잡게 된 데엔 정책적인 이유가 있다.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창동에 2만 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아레나)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창동에 대형 공연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우려가 적지 않았다. 또한 2만 명 정도의 많은 관객을 모을 수 있는 음악가가 국내에서는 아이돌을 제외하면 손에 꼽을 정도여서 이곳의 공연이 케이팝(K-POP) 중심으로 편중될 것임이 예상됐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곳에서 가능하도록 음악적 기반을 먼저 다져야 하는 상황. '플랫폼창동61'은 아레나의 마중물 격으로 음악을 중심에 안고 강북 지역에 터를 잡았다. 여기에 더욱 풍부한 문화 경험이 가능하기 위해 포토, 패션, 푸드 등 세 가지 분야가 결합됐다. 분야별로 디렉터가 있는데 음악은 기타리스트 신대철, 푸드는 최현석 셰프, 패션은 모델 한혜진, 사진은 조세현 작가가 디렉터로 있다. 이 디렉터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서울시 플랫폼창동61 기획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공연 관람, 쿠킹 클래스, 사진 전시, 패션 클래스가 한곳에

'플랫폼창동61'은 음악이 중심이 되는 곳이기에 전체 공간에서 음악과 관련된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대표적인 곳이 입구에 들어섰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공연장 '레드박스'. 복층으로 이루어진 음악 전문 공연장으로 150명(좌석)에서 최대 400명(스탠딩)까지 수용할 수 있는 크기다. 최고의 공연과 관람을 위해 음향 및 제반 시설에 큰 공을 들인 곳으로 1, 2층 관람석 사이에는 14개의 스피커를 빙 둘러 달아 뮤지션과 관객에게 최상의 음질을 느낄 수 있게 했다. 또한 관람석과 무대의 거리가 가까운 것도 큰 장점. 이곳에서 공연한 한 뮤지션은 다른 공연장에 비해 관객의 반응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어 공연 만족도가 높다고 평했다.

'레드박스' 외에도 뮤지션을 위해 마련된 합주실 '리허설 스튜디오'와 녹음 시설을 갖춘 '레코딩 스튜디오'가 있다. 이 공간들은 신대철 디렉터와 잠비나이, 이한철, 아시안체어샷 등 입주 뮤지션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추후에는 일반인에게도 개방해 소액의 대관료를 받고 운영할 예정이다.



공간의 중심에는 문화, 그리고 사람이

음악 이외에 푸드, 패션, 포토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다. 2층 레드박스 왼편의 패션 스튜디오에서는 톱 모델, 스타일리스트가 스타일링, 식단 노하우 등을 알려주는 강연이, 근처에 마련된 포토 스튜디오에서는 사진 수업이, 푸드 스튜디오에서는 쿠킹 클래스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5월에는 톱 모델 한혜진, 정창욱 셰프, 오중석 사진작가 등 유명인의 일일 강연이 2만 원 내외의 저렴한 가격으로 열린 바 있다. 다양한 강연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패션 숍, 카페 등도 곳곳에 마련돼 있어 공연이나 강연 전후, 또는 행사가 없는 날에도 이곳의 공간을 즐길 수 있다.

2층의 사진 전시 공간인 '갤러리 510'에서는 현재 포토 분야 디렉터인 조세현 작가의 대표작 〈천사들의 편지〉 시리즈가 전시되고 있다(~6. 19). 이 전시 후에는 현재 진행 중(~6. 6)인 시민 공모전 〈우리네 얼굴〉에서 선정된 시민의 사진작품도 전시될 예정이다. 그 밖에 매주 수요일에 〈수집콘(수요일, 집에 가는 길, 콘서트)〉 콘서트가 무료로 열리고, 입주 뮤지션 MC메타의 콘서트(6. 18), 패션 숍 매장 믹샵이 주최하는 바캉스 패션쇼(6. 25) 등 다양한 행사가 6월 달력을 야무지게 채우고 있다.

플랫폼창동61 콘텐츠사업팀 송아현 씨는 "플랫폼창동61은 장르음악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공연이 무엇이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이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을지, 플랫폼창동61 공간에 접목할 수 있는 생생한 콘텐츠가 무엇이 있을지 등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플랫폼창동61이 추구하는 공간 활용 방향을 얘기했다.

'플랫폼창동61'은 컨테이너를 콘셉트로 먼저 생긴 '커먼그라운드'와 '언더스탠드 에비뉴'보다는 작은 규모다. 하지만 두 곳이 쇼핑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등 상업적인 성격이 짙은 데 비해 '플랫폼창동61'은 문화적인 경험과 커뮤니티 활동을 중심에 둔 공간이다. 그래서 공연 관람료와 각종 수업의 수강료는 2만 원 안팎이고 무료 행사도 자주 열린다. 주변 주거 지역에 비하면 아직까진 조금 생소하게 다가오는 박스형 외관이지만 창동역을 찾는 이들 및 강북 지역의 주민과 이곳은 가장 먼저 만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다.

'플랫폼창동61'의 다양한 행사 정보는 홈페이지(www.platform61.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
이아림, 하민희

사진 제공
플랫폼창동61

연극 〈갈매기〉와 〈레드〉

배우의 힘
확인하게 될 연극 두 편

연극은 흔히 '배우의 예술'이라고들 한다. 요즘에는 연극이 주는 감동과 재미에 시청각 이미지 등 다른 많은 요소가 개입되기는 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연극에서 배우의 표현력은 핵이다. 6월에는 배우의 훌륭한 연기가 기대되는 연극 두 편이 나란히 공공극장 무대에 오른다. 공교롭게도 두 작품 모두 시대의 흐름 속에 신·구 세대가 예술의 형식을 놓고 대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못 흥미롭다.

이혜영 배우의 아르까지나 역 볼만할 듯

〈갈매기〉, 6. 4~29, 명동예술극장

안톤 체호프의 장막 희곡 〈갈매기〉는 세계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신작 연극이 만들어지는 고전이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수년간만 해도 김소희·전인철·박근형·윤광진·오경택·김석만을 비롯한 여러 연출자가 이 작품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형식을 살려 무대화했다. 〈챠이카〉(연출 전훈), 〈가모메〉(연출 타다 준노스케) 역시 〈갈매기〉의 다른 이름이다.

이번 신작 〈갈매기〉는 국립극단 초청에 의해 2014년 말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셰익스피어의 〈리차드 2세〉를 선보인 루마니아 출신의 연출가 펠릭스 알렉사가 무대화했다. 〈리차드 2세〉는 정쟁(政爭)을 다룬 작품임에도 수채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는 연극이었다.

〈갈매기〉의 캐스팅에서 눈에 확 띄는 배우는 아르까지나 역의 이혜영이다. 그는 2012년 봄, 이번처럼 명동예술극장 무대 위에 올린 입센의 〈헤다 가블러〉에서 타이틀 역을 맡았었다. 얼음과 같은 차가움과 용암이 흐르면서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가 공존하는 듯한 그의 헤다 역 연기는 무척 인상적이었으며 이혜영 배우는 그 역으로 동아연극상 연기상을 수상했다. 그가 이번에는 어떤 표정과 몸짓으로 아르까지나의 도도함이나 뜨리고린

1

2

3

또는 배우로서 인기를 누린 옛 시절에 대한 강한 집착을 표현할지 궁금하다. 특히 아르까지나가 마샤를 앞에 세워둔 채 의사 도른에게 "선생님,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젊어 보이죠?"라고 질문할 때, 또 니나에게 흔들리는 뜨리고린에게 매달리며 결국 마음을 돌려내고야 마는 장면, 그에 앞서 뜨레블레프의 실험적 연극을 철없는 아들의 치기로 무시해버리는 모습 등에서 이혜영의 멋진 연기가 기대된다.

체호프의 작품은 대체로 등장인물 중 주역과 조역의 경계가 흐릿한 편이다. 〈갈매기〉의 경우 뜨레플레프, 아르까지나, 니나, 뜨리고린 등이 중요한 인물이지만 마샤를 비롯한 다른 인물들도 저마다 아픔을 드러내는 등 극 중 비중이 결코 낮지 않다. 그만큼 이혜영 배우는 물론 중진인 오영수 배우에서부터 신진 김기수, 강주희 배우에 이르기까지 전 출연진의 연기 조화는 필수적이다. 유럽 연극계의 기린아 중 한 사람인 펠릭스 알렉사 연출은 이번에는 물과 종이를 활용해 시적인 이미지를 창조하는 등 섬세한 미장센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신일·한명구 두 배우의 역할에 기대감

〈레드〉, 6. 5~7. 10,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레드(Red)〉는 2인극이다. 그만큼 작품의 성패가 출연진의 연기력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성격의 연극이라고 볼 수 있다.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은 실존인물인 미국 추상표현주의 화가 마크 로스코다. 그의 상대역은 가공인물인 젊은 조수 켄. 작가는 실제 로스코가 했던 이야기들을 켄과의 대화를 통해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했다.

때는 1958년. 로스코는 거액을 받고 뉴욕 맨해튼의 시그램 빌딩에 들어설 최고급의 포시즌 레스토랑에 걸릴 벽화를 그려주기로 한다. 켄은 로스코가 상업적인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과 그의 예술 이론을 거론하며 예술가로서 로스코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결국, 로스코는 켄의 자극으로 잃어가고 있던 예술에 대한 열정과 믿음을 되찾아가게 된다. 이 작품은 "자식은 아버지를 몰아내야 해. 존경하지만 살해해야 하는 거야."라는 로스코의 대사처럼 새로운 조류가 기존의 흐름을 밀어내는 예술사조의 변화, 또 그 와중에 큰 혼란을 겪는 예술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버지를 살해해야 하는 거야."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로스코는 당돌하게 자신을 몰아세우는 켄에 의해 이제 자신이 '살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자각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구세대를 대표하는 로스코와 신세대를 대변하는 켄 사이의 대사 구성이 탄탄하다. 여기에 출연 배우들의 뜨거운 에너지가 결합하면서 〈레드〉는 레퍼토리 작품으로서의 위치를 굳혔다.

2011년 국내 초연 이래 올해로 4번째 시즌을 맞는 〈레드〉는 초연과 2013년 재연 때의 로스코 역 강신일 배우와 지난해 로스코 역을 맡았던 한명구 배우가 더블캐스팅됐다. 극단 차이무 출신으로 영화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강신일 배우나 2011년 이해랑연극상 수상자로서 〈고도를 기다리며〉의 블라디미르 역으로 내공을 쌓은 한명구 배우 모두 연기 신뢰도가 매우 높은 연극인들이다. 켄 역은 지난해 같은 역할로 열연했던 신예 박정복 배우, 그리고 뮤지컬 배우로서 연극 무대에 첫 도전하는 카이가 번갈아 하게 된다.

로스코와 켄이 격렬하게 벌이는 논쟁 속에 철학, 예술, 종교, 미술, 음악 등 인문학 이야기가 그득하며 그 논쟁을 듣는 재미가 쏠쏠하다. 무대 위에서 로스코와 켄이 캔버스를 짜고, 물감을 섞고, 땀을 흘리며 거대한 캔버스에 직접 밑칠을 하는 것을 보는 것도 여간 흥미롭지 않다.

1
이혜영 배우 특유의 카리스마 있는 연기가 기대되는 연극 〈갈매기〉.
2, 3
한명구 배우의 로스코와 강신일 배우의 로스코를 비교하는 것도 연극 〈레드〉의 관람포인트가 될 듯.

글
강일중
공연 칼럼니스트.
연합뉴스에서
뉴욕특파원,
공연전문기자 등으로
활동했다. 〈뉴욕 문화가 산책〉 〈공연예술축제를 만드는 사람들〉 등의 저서가 있다.

사진 제공
국립극단, 신시컴퍼니

1

2

전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특별전〉과 〈빅(BIG): 어린이와 디자인〉

미술관, 왁자한 놀이터가 되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방법으로 전시 관람은 괜찮은 선택이다. 회화, 조각,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오감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 5월에만 아이들과 전시를 보러 간다면 그건 올바르지 않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 가운데 재미와 놀이를 동시에 선사하는 서울시립미술관과 금호미술관 두 곳을 소개한다.

슈렉부터 쿵푸팬더까지 드림웍스 캐릭터 총출동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특별전: 스케치에서 스크린으로〉, 4. 30~8. 15,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서울 중구 덕수궁로 서울시립미술관에 들어서면 애니메이션 〈쿵푸팬더〉 주인공의 거대한 조형물이 관람객을 반긴다.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특별전: 스케치에서 스크린으로〉를 안내하는 손님맞이 캐릭터다. 이번 전시는 미국 할리우드 메이저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드림웍스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어린이만 보는 전시가 아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동심을 전하는 전시다.

〈슈렉〉 〈쿵푸팬더〉 〈마다가스카〉 〈드래곤 길들이기〉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32편의 영화 캐릭터가 총출동했다. 드로잉, 스토리보드, 3D와 세트 모형, 악보, 마스크 등 400여 점이 전시된다. '쿵푸팬더 3'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코너다. 쿵푸의 3D 캐릭터는 찰흙 또는 석고로 모형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여기에 액션과 스토리를 붙여 작품이 나온다.

스토리보드 아티스트가 연속적인 장면을 애니메이션 감독과 프로듀서 등에게 미리 선보이는 '피칭' 영상, 작가와 감독이 협력해 스토리를 완성하는 과정을 시각화한 '브레인스토밍 테이블' 영상도 전시된다. 각 캐릭터가 포함된 대형 그래픽, 원화, 모형, 음향 등이 소개되고 '애니메이션 데스크' '파도 만들기' '조명 연출하기' 등 체험 존이 마련됐다.

반원 모양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드래곤 길들이기〉 파노라마 영상(3분 30초)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전시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창립 20주년이던 2014년 호주에서 첫선을 보인 후 싱가포르와 뉴질랜드에 이어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한국에 왔다. 드림웍스 애니메이션(DreamWorks Animation), 호주영상센터(The Australian Centre for the Moving Image·ACMI)와 함께 기획했다. 일반 1만 3000원, 청소년 1만 원, 어린이 8000원이다(02-2124-8800).

알록달록 가구를 활용해 놀이터로 바뀐 미술관

〈빅(BIG): 어린이와 디자인〉, 4. 29~9. 11, 금호미술관

알록달록하고 귀여운 의자들이 나무 선반 위에 가지런하게 놓였다. 나무, 플라스틱, 철 등 재질이 다양하고 형태도 제각각이다. 유럽과 북미에서 가져온 이 의자들은 어린이가 미성숙한 인격이 아니라 창의력과 상상력을 지닌 독립된 존재임을 보여준다. 단순히 어른의 의자를 크기만 줄여 제작하지 않고, 아이들의 취향을 겨냥한 디자인 요소를 가미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서울 종로구 삼청로 금호미술관에 가구가 모여 어린이 놀이터가 됐다. 〈빅(BIG): 어린이와 디자인〉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전시에는 피터 켈러, 장 프루베 등 디자인 거장들이 설계한 빈티지 어린이 가구 250여 점이 소개된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즐겁게 노는 게 관람이다. 어린이 전시라고 아이들만 놀게 하고 어른들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이기 때문이다.

미술관 1층은 거대한 볼풀(ball pool)이 있는 키즈 카페로 변했다. 볼풀 안에는 디자인 그룹 힐긋이 전시 제목인 '빅'의 영어 글자를 모티프로 만든 조형물이 설치됐다. 입구 근처에는 이탈리아 디자이너 브루노 무나리가 설계한 다용도의 낮은 2층 침대 '아비타콜로(Abitacolo)'가 놓여 있다. 어린이들이 침대에서 놀거나 자다가 혹시 떨어지더라도 볼풀이 있어 안전하다.

유아보다 큰 어린이를 위한 가구는 지하 1층에 있다. 미술관이 2008년에 개최한 첫 번째 디자인 기획전 〈유토피아〉를 준비하면서 사들인 피터 켈러의 바우하우스 스타일 요람, 루이지 콜라니가 고안한 침대 겸 책상 등이 공개됐다. 전시장 한쪽은 아동극 무대처럼 구성해 엔조 마리의 소형 퍼즐, 레나테 뮐러의 삼베 인형, 찰스·레이 임즈 부부의 합판 코끼리 모형을 배치했다.

서현진, 양승진, 캄캄(kamkam), 맺음(Maezm), 하지훈, 황형신 등 국내 디자이너들이 제작한 개성 넘치는 가구는 2층에서 만날 수 있다. 대학교 강의실 의자로 시소, 구름다리, 흔들의자, 철봉 등 놀이기구를 만들었다. 3층은 만 5세 이하 유아가 사용하는 의자들로 꾸몄다. 나나 디첼, 아르네 야콥센, 마르코 자누소 등 유명 디자이너들이 만든 알록달록한 작품들이다.

금호미술관의 5번째 디자인 기획전으로, 국내외 디자이너들이 완성한 업사이클링 작품을 내놓았다. 전시를 기획한 김윤옥 큐레이터는 "가구의 기능뿐 아니라 조형미와 디자인을 보여주는 전시가 드물다"며 "아이와 부모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꾸몄다"고 말했다. 어린이 5000원, 어른 7000원(02-720-5114).

1
서울시립미술관 입구에 들어선 〈쿵푸팬더〉 캐릭터 조형물.
2
〈슈렉〉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모습.
3
금호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가구들.
4
디자인 그룹 힐긋이 키즈 카페로 만든 '빅'.

글
이광형
국민일보 문화전문기자

사진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금호미술관

책 〈녹턴〉과 〈삿포로의 여인〉

놓치지 말 것, 지금 당신의 사랑

예순을 넘긴 뮤지션이 가사로 적어 노래하길 "그렇게 후회해도 사랑했던 순간이 영원한 보석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한다(김창완밴드 '시간'). 변하지 않는, 끝나지 않는, 생채기를 남기지 않는 사랑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 불구덩이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어야 하는지 문학도 제 언어로 전한다. 김선우의 시집 〈녹턴〉과 이순원의 소설 〈삿포로의 여인〉처럼.

이별이 두려워서 사랑을 시작하지 않겠다는 이가 있다. 결국 헤어지게 될 것을 무엇 때문에 감정을 소모하고 시간을 투여하느냐는 합리적 계산에서 사랑에 거리를 두려는 이도 있다. 사랑이란 어떻게 해서든 끝나게 되어 있는 '임시적' 사태라는 점에서 그런 태도들은 그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를 지닌다(연애와 결혼을 거쳐 평생을 해로하는 부부라 하더라도 그들 앞에는 죽음이라는 생물학적 마침표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사랑 없는 삶이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사랑에 수반되는 위험과 부담이야말로 삶의 불가피한 일부요 감추어진 본질이 아니겠는지. 그런 관점에서는 이별조차 사랑의 종말이나 배반이 아니라 그 일부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곱씹으면서 김선우 시집 〈녹턴〉과 이순원 소설 〈삿포로의 여인〉을 겹쳐 읽었다.

지금 이 사랑에만 집중하기에도 인생은 짧다

〈녹턴〉, 김선우 지음, 문학과지성사

"내가 만진 시간, 당신// 을 사랑하는 일// 에 정성을 다하는 것// 굳이 말해야 한다면 이것이 나의 신앙// (…) // 그러니 딴 데 보지 말아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에만도 인생은 짧아요."(김선우 '게이트리스 게이트' 부분)

"이 순간이 전부인 게 어때서?/ 사랑이 변하는 게 어때서?/ 지금 이렇게 전부 주고 싶은데/ 내 전부를 주어 당신을 활짝 꽃피우고 싶은데/ 사랑이 아니라면 뭐겠어?"(김선우 'om 4:00, 사랑이 변하는 게 어때서?' 부분)

김선우 시집 〈녹턴〉에서는 오마르 하이얌의 메아리가 들린다. 사랑과 술로 대표되는 순간의 쾌락에 집중하라는 옛 페르시아 시인의 가르침을 김선우는 충실히 좇는다. 〈녹턴〉보다 한 달쯤 먼저 나온 산문집 〈부상당한 천사에게〉에서도 그는 '쾌락주의자'를 자처하며 "찰나의 찬란함을 최선을 다해 누릴 것! 집착 없이 사랑할 것!"을 역설한 바 있다(당연한 말이지만, 쾌락주의가 반드시 반사회적·폐쇄적 속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김선우의 시집과 산문집을 잠깐만 읽어보아도 그 점은 분명하다). 김선우의 사랑은 치열하면서도 자유로운 사랑이다. 그 사랑은 사랑에

따르는 고통과 피로, 실망과 배신조차 너른 품으로 끌어안는 대승적 사랑이다. 그러할 때 흔히 사랑의 종말과 동일시되는 이별이 사랑의 엄연한 일부로 승화하는 '기적'이 발생한다.

"1월이 시작되었으니 12월이 온다"('이런 이별-1월의 저녁에서 12월의 저녁 사이')라고 시인이 쓸 때, 1월과 12월 사이에 있는 2월과 3월과 4월과 (…) 10월과 11월이 부질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1월과 12월 사이의 그 달들은 그것들대로 살뜰하고 충만한 의미를 지니고서 몸에 깃들고 기억에 새겨진다. 그렇게 충실하게 겪은 사랑의 시간들이 지난 다음 마침내, 당연하게도, 12월이 올 때 이 연인들이 치르는 사랑 종말의 제의(祭儀)를 지켜보자.

"서로를 위해 기도한 우리는 함께 무덤을 만들고/ 서랍 속의 부스러기들을 마저 털어 봉분을 다졌다./ 사랑의 무덤은 믿을 수 없이 따스하고/ 그 앞에 세운 가시나무 비목에선 금세 뿌리가 돋을 것 같았다./ 최선을 다해 사랑했으므로 이미 가벼웠다./ 고마워. 안녕히."('이런 이별-1월의 저녁에서 12월의 저녁 사이'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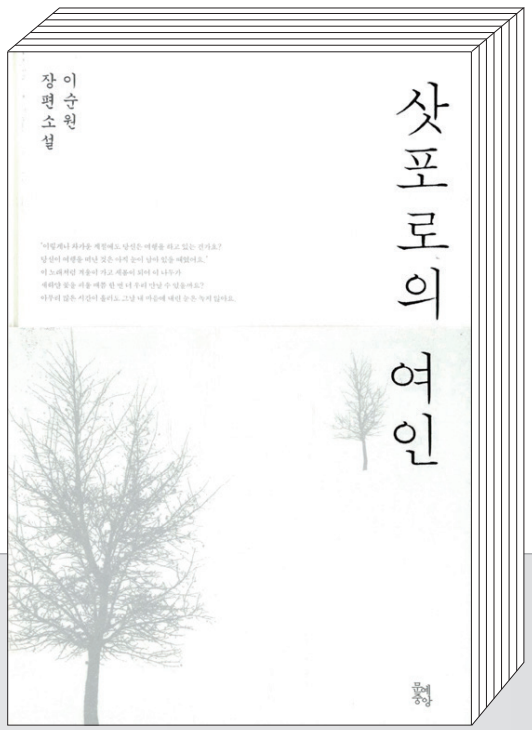
차갑고 어두운 이별이 아니라 따뜻하고 생기 도는 이별이다. 이런 연인들에게 "몸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1월이 시작되면 12월이 온다"('이런 이별-1월의 저녁에서 12월의 저녁 사이')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차라리 축복에 가까운 것이다.

오직 그때만 가능했던 사랑에 대해

〈삿포로의 여인〉, 이순원 지음, 문예중앙

이순원 소설 〈삿포로의 여인〉은 대관령을 무대로 펼쳐졌던 풋풋한 사랑을 20년 뒤에 새삼 돌이키며 되찾고자 하는 이들의 이야기다. 20년 전 당시 열일곱 살 소녀와 스물네 살 청년으로 피차 곤궁한 시절을 함께했던 연희와 주호가 두 주인공. 어린 연희가 주호 '오빠'에게 더 의지했고 그런 연희를 주호가 보살핀 것은 사실이지만, 연희를 향하는 주호의 마음이 그리 단순한 것만도 아니었다. "많은 부분 연희 처지에 대한 연민이었을 테지만, 때로는 마음이 함께 어려져 같은 시기에 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 어린 연인처럼 여겼던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그 시절로부터 20년이 지난 뒤 주호는 자신과 연희의 관계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리하는데, 그런 판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20년 전 당시에는 하지 못했다는 회한이 밑바닥에는 깔려 있다.

가령 주호는 종종 연희를 차에 태우고 대관령에 오르곤 하는데, 고갯마루에서 연희는 일본에 가 있는 엄마를 목 놓아 부르곤 했었다. 그러다가 연희 역시 일본으로 떠나게 되어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대관령에 함께 오르고 그곳에서 청춘남녀는 피차 생애 최초의 포옹을 하는데, 포옹이 포옹으로 그치고 입맞춤 정도의 '진도'로도 나아가지 못한 것을 주호는 뒤늦게 후회한다. "열여덟 살의 여자아이를 두 팔로 안고도 끝까지 자기 몸과 마음의 물기에 냉담했던 것, 어쩌면 그거야말로 그 상황에서 당연히 품었음직한 청춘의 음험함보다 나쁜 죄였는지 모른다." 20년이 지나서야 다시 연락이 닿고 재회하기를 기대했던 두 사람이 결국 재회하지 못한 것도 어찌 보면 충분히 사랑하고 제대로 이별하지 못했던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 소설과 김선우의 시집을 겹쳐 읽으면서 나는 해보았다.



글
최재봉
한겨레 문화부 선임기자. 1961년 경기 양평 생. 경희대 영문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저서 〈그 작가 그 공간〉 〈언젠가 그대가 머물 시간들〉 〈거울나라의 작가들〉 등.

사진 제공
문학과지성사, 한겨레출판, 문예중앙

별자리 운세도 신통치 않을 때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똑똑똑… 여기가 '예술적 상담소' 맞나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예술적 상담소'.
온라인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해 고민 상담을 위한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고민에 대한 예술적 대책을 찾아 답변을 달아드리니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sfac.or.kr) – 열린광장 혹은 페이스북 탭에서 예술적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댓글을 달 수도 있답니다.
채택된 질문은 [문화+서울]에 게재되며, 소정의 상품을 발송해드립니다.

문화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행복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고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겠지요? 하고 싶은 것을 행하지 못하는 인생 불구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예술이라는 재활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꿈꿔봅니다. 울적함으로 채워진 마음을 비우고 가슴 뛰는 행복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문화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라는 디딤돌을 놓아 남의 현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욕심도 가져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길게는 6개월 정도 하는 프로그램 아닌, 예술가로 살고 싶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자신을 독려하며, 희망의 동아줄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진정으로 시민을 예술가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상담자나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1만 시간의 법칙을 남은 인생에 적용해 클래스 올덴버그 같은, 50대에 디자인 스튜디오를 시작한 알레산드로 멘디니처럼 살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요?

예술적 상담소

마음먹었다면, 벌써 시작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는 민구입니다. 예술적 상담소에서 만난 다양한 질문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질문에 답을 드리게 되어 기뻐요. 이미 예술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셨네요. 앞으로의 삶은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싶지 않다는 말에서 뼈가 느껴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벌써 시작한 거나 다름없으세요. 그러니 한시름 놓고 천천히 제 얘기를 경청하셔도 좋을 거예요.

제 경우에는 처음 예술을 하기로 결심한 순간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마른 하늘을 보며 걷다가 벼락을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 생긴 그을림이 전혀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것이 결정되면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고민하기에 앞서 가장 큰 난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의심'이에요. '내가 예술을 해도 될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말리거나 비웃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내려놓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만큼 자기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셨으니 스스로 '잘했다'고 다독여주셔도 좋아요. 이 또한 앞으로 새로운 삶을 밀고 나가는 데에 좋은 시너지를 내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끌리는 곳으로 한 걸음씩, 집요하게

고민을 보내주신 독자께서 어떤 분야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면 더 자세한 답을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다

http://bit.ly/ltAX44

행인 건 어떤 분야에 상관없이 예술은 서로 '공생'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어요. 제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막연하게 시를 썼고 현재도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꼭 문학과 관련해서만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요. 오히려 문학인으로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 문학을 더 경계하고 무심해하는 편입니다.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희망하는 분야에만 몰입하도록 다른 예술이, 그리고 예술가들이 저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좋은 창작물로 하여금 서로를 자극하고 때론 질투하게 해요. 언뜻 보면 싸움이 날 것 같지만 서로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주고 각자의 분야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 많은 예술가가 자기 무대에서 활동하며 정작 창작물에 관한 힌트나 영감을 얻어오는 부분은 따로 있어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주변이거나, 전혀 엉뚱한 곳에서.' 거기서 창작물을 완성할 피와 살을 얻어 와요. 마치 알레산드로 멘디니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영감을 얻거나 경기도 이천의 가마 제작소에서 청자의 아름다움에 반해 힌트를 얻은 것처럼 말예요. 그가 고안한 와인오프너 '안나 G'를 생각해보세요. 무용가인 아내의 몸동작과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하잖아요.

주변을 둘러보다가 자신을 끌어당기는 곳으로 처음에는 한 걸음씩, 끝내 집요하게 걸어가는 것. 그리고 누가 뭐라 말하든 내가 좋은 걸 하고야 말겠다는 자신감. 그것은 이론이나 실습을 체계적으로 배울 어떤 아카데미를 다니는 경험보다 더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자신감과 약간의 시간

자신에 관한 걱정과 의심을 덜어내면 삶(이란 말은 거창하지만)은, 젓가락처럼 둘로 자연스럽게 나뉘게 돼요. 하나는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온 기록.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막 시작한 예술가로서의 삶. 공교롭게도 둘은 따로 둘 수가 없어요. 한 짝이 바닥에 떨어지면 주워야 해요. 둘 다 있어야만 자기가 원하는 걸 잡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예술가의 삶이 어떤지 단언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술을 할 때 우리는 늘 '익명'이 된다는 거예요. 잠시 끼었던 도로의 안개처럼 이름이 곧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명하는 이가 없으니 눈치 볼 필요가 없고 그에 따른 압박도 별로 없죠. 독자들이 자기 작품에 관해 뭐라고 말하든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드릴 수 있는 건 시를 쓰는 저나 앞으로 새로운 공간에서 무언가를 창조해낼 독자님이나 모두 같은 '한 살'이기 때문이에요. 예술가도 늙어요. 하지만 나이 들어가는 예술가의 작품은 늘 새로운 것, 남들이 금방 지나쳐서 소외된 상태로 영영 한 살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향해 있어요.

서울문화재단에는 연희문학창작촌, 남산창작센터, 서울무용센터 등 다양한 예술창작공간과 시민문화공간이 있어요. 문화교류를 위해 항상 열려 있는 공간이니 시간을 내세요. 아마 제가 해드린 얘기보다 더욱 생생한 조언이 될 거예요. 저는 질문자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이전의 삶보다 좀 더 자신감 있는 익명이 되기를 바라요. 이름이 없으니 이제 질문자께 어떤 이름을 붙여도 될 거예요. 문화 생산자로 살기로 결심하셨다니 앞으로 어떤 이름을 가지실지 저도 무척 기대됩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조각이 되시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답변
민구
시인.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EBS 라디오 〈시콘서트〉 고정 게스트로 활약한 바 있으며 현재 학술전문출판사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다.
시집 〈배가 산으로 간다〉가 있다.

선물보다 순수한 동심이 빛나던 어린이날 풍경

오월은 언제나 어린이날

어린 시절 '어린이날'을 손꼽아 기다린 기억이 나이 오십이 넘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1970년대 초에는 다들 넉넉하지 않아 온 가족이 함께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게 고작이었지만 그래도 그날만 되면 마음이 들떴습니다. 요즘이야 먹을 게 흐드러져 아이들이 짜장면은 거들떠보지도 않죠. 또 선물도 웬만한 걸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지 않아 어린이날 하는 가장행렬도 큰 구경거리였습니다. 그 구경을 하려고 다들 거리로 몰려나갔더랬죠.

가장행렬로 들썩인 1967년 어린이날

1967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가장행렬이 열렸습니다. 대학과 고교, 기업 등 13개 단체가 마련한 이날 가장행렬은 동대문구 서울운동장(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을 출발해 동대문, 종로, 세종로를 거쳐 서울시청 앞 광장(현 서울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한 신문은 이 행사에 대해 "이 가장행렬에는 특히 동물 가장이 많아 이날의 서울 거리는 '동물의 왕국'을 방불케 했으며 연도에서 구경하던 어린이들은 한결같이 '이런 잔치 처음 본다'고 좋아했다."고 썼습니다.

〈사진1〉은 손오공으로 분한 사람과 천으로 만든 대형 코끼리가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는 장면입니다. 손오공의 소품과 코끼리의 만듦새가 어설퍼 보입니다. 막대기 끝에 끈을 묶어 여의봉을 만들었고, 코끼리 다리 아래로 손수레 바퀴와 수레를 끄는 아저씨의 발이 보입니다. 코끼리 코도 살짝 찢어졌고요.

〈사진 1〉 1967년 어린이날 가장행렬에서 손오공으로 분장한 사람과 대형 코끼리.

〈사진 2〉 가장행렬에서 동물 탈을 쓴 사람들.

또 손오공은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손에 든 무언가를 보며 걷고 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줄 법한데 말입니다. 코끼리 등에는 이걸 제작한 회사 제품을 홍보하는 천이 씌워져 있습니다.

〈사진2〉에는 신문 기사에 나왔듯 동물 탈을 쓴 사람이 보이네요. 엉성한 로봇도 있고요. 맨 왼쪽은 월트디즈니 캐릭터 '미키 마우스'를 흉내 낸 것 같은데 가운데 동물은 뭔지 모르겠네요. 곰 같기도 하고, 족제비 같기도 합니다. 로봇 탈을 쓴 사람은 앞이 잘 안 보였는지 옆에서 다른 사람이 함께 걸으며 발을 맞춰주고 있네요.

사진에는 없지만 이날 가장행렬의 하이라이트는 높이 8자(약 2.4m), 길이 23자(약 7m)의 초대형 맘모스 빵이었습니다. 또 동물들의 인솔자는 호랑이였고요. 한국마사회에서는 조랑말을 타고 구식 결혼식을 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같으면 시시하다고 쳐다보지도 않았을 행사지만 길가에서 이 행렬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은 초롱초롱 빛납니다. 그때 아이들은 참 순수했습니다.

90세를 넘긴 '어린이날', 어른도 동심을 찾는 날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날 행사가 치러진 것은 지난 1922년 5월 1일입니다. 당시 신문에 따르면 소파(小波) 방정환 선생이 이끄는 천도교소년회가 이날 서울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처음 열었고, 이듬해 여러 소년 단체가 연합해 결성한 소년운동협회에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했습니다.

1928년부터는 어린이날이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바뀌었고,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 중단됐던 어린이날 행사는 광복 후 1946년부터 다시 개최됐습니다. 그해 5월 첫째 주 일요일이 5일이어서 그 이후로 5월 5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1957년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이 선포됐고, 1970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5037호)에 따라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정해진 이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이 어린이들에게는 '천국' 같지만 어른들은 뭘 사줘야 할지 뭘 먹여야 할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자신들도 밤잠을 설치며 설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아이들과 친구처럼 놀아주는 건 어떨까요.

사진
김천길
전 AP통신 기자.
1950년부터
38년 동안 서울지국
사진기자로 일하며
격동기
한국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글
김구철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대중문화팀장으로
영화를 담당하고 있다.

상도동 270번지 골목길을 지나면 누구나 오르게 되는 언덕길

어릴 적 그 언덕을 지나 집으로 가는 길은 계절에 관계없이 숨이 차고 땀이 났다. 어릴 때는 쉬지 않고 한 번에 올라간 적이 없던 걸로 기억한다. 그때는 중간에 큰 고목이 있어서 널찍한 그늘을 만들어주었다. 나는 자주 그 나무에 기대앉아 쉬어가곤 했다. 지금은 그 나무가 없어졌지만 그곳을 지날 때면 무거운 책가방과 신발주머니를 내려놓고 두 발을 쭉 뻗고서 앉아 쉬던 어릴 적 내 모습이 기억난다. 그리고 고개를 들면 보이던 크고 푸른 가지와 그 사이 사이의 파란 하늘과 시원한 그늘을 기억한다.

엄마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가는 길의 언덕은 몇 배로 힘이 들었다. 무거운 장바구니와 드르륵 구루마를 끌고 걸어가면서 어떤 방법이 덜 힘들까 생각하며 뒤로도 올라가보고, 지그재그로도 올라가며 딴에 생각해낸 여러 수를 써보다가는 그게 더 힘들다는 걸 알고 쭉 한길로 걸어간 적도 있다.

어쩌다가 할머니랑 같이 언덕을 오를 때면 몇 번을 쉬었는지, 몇 시에 길을 나섰는지 기억하기가 어려웠다. 동네 할머니들을 가는 곳마다 만나게 돼서 집에 갈 만하면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또 만나고 인사하고 그러다 나는 그 옆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해가 질 때쯤 비몽사몽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집에 도착한 날도 있다.

아빠는 걸음이 빨라서 뒤에서 쫓아 걸었고, 할아버지는 늘 뒷짐을 지시고 천천히 주변을 산책하며 걸으셔서 나도 그렇게 따라 걸었다. 언니랑은 달리기 시합을 했고, 어린 남동생은 귀여워서 자주 업어줬다.

시간과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상도동

고마워, 함께 청청히 나이 먹은 나의 동네

나고 자란 동네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행운이다.
그곳이 서울에서 흔하디흔한 개발 광풍을 비켜난 곳이라면 더욱 그렇다.
동작구 상도동은 오래되고 평범한 동네다. 시간의 흔적이 얼마나
소중한지 공감하게 되는 때에, 이곳은 자연스레 팬 주름을 숨기지 않으며
토박이도 뜨내기도 인자하게 품는 동네다.

그 언덕을 몇 번을 오르고 내렸는지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시간도 많이 흘렀다.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나는 여전히 그 동네에 살고 있고, 지금은 그 언덕 아래로 이사를 왔다. 이제는 언덕을 넘어 다니는 마을버스 노선이 두 개나 생기고, 길도 많아졌다. 가끔 동네 산책길에 언덕을 오를 때면 조금은 숨이 가쁘게 뛰지만 그래도 지금은 오를 만한 언덕이 되었다.

그 청년이 사는 동네

누구에게나 동네는 있다. 어릴 적부터 자라온 동네가 아니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있을 것이다. 자기가 사는 집의 근처를 동네라고 한다. 근처에 뭐가 있는지 아는 곳. 그곳이 바로 동네인 것이다. 언덕이 있고,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무서운 골목이 있고, 꼭 한자리에만 앉아 있는 시크한 길냥이가 있고, 오래된 간판이 달린 이발소가 있고, 자주 고장 나는 가로등이 있는. 사는 곳 근처에 이런 것들이 있는 나의 동네는 상도동이다. 상도동에는 포근함과 친근함이 묻어 있다. 재개발을 피해간 지역이라 서울의 여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더뎌 아직 시골 같은 곳이 많이 남아 있는 오래되고 낡은 동네다.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고 있어준 동네가 그저 고맙고, 지난 추억을 마주할 수 있는 흔적이 곳곳에 있는 상도동 내 동네가 정말 좋다.

한동네에서 나고 자라 어느덧 어른이 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5년 동안 무역회사를 다녔다.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대안적인 일과 삶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5년을 끝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지금은 동네에서 일을 하고 있다. 상도동에 있던 문화예술 공유 공간인 청춘플랫폼을 통해 대안적인 삶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들을 알게 되었고, 1년 전부터 함께 일하면서 공간을 직접 운영하고 프로그램도 기획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일과 삶의 균형과 대안적인 일에 대한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씩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청춘플랫폼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도동에 사는 또래 청년을 여럿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동네 친구를 만나게 된 셈이다. 다 커서 만난 동네 친구? 새로웠다. 동네 친구라고 하면 대개 어릴 때 알고 지내며 옆집이나 같은 골목에 살거나 했던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어른이 되어 만난 동네 친구는 어색하기도 하면서도 알듯 말듯 뭔지 모를 익숙함과 친근함이 묻어 있었다. 잡지 〈상도동 그 청년〉을 만들게 된 것도 동네 친구를 더 많이 만나고 싶어서였다. 하숙생처럼 집에서는 잠만 자는 동네 청년 없을까? 프리랜서로 작업을 하고 있는 청년은?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 오면서 상도동이 낯선 청년은? 혹시 나와 같이 3대째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상도동 토박이는? 하나둘 이 동네 청년들을 모아보았다. 다 커서 만난 동네 친구와의 알듯 말듯 했던 친근함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유대감이었을까? 동네 이야기만으로 두 시간이 훌쩍 지났다. 낡은 동네와 좁은 골목들. 없어진 정류장과 문 닫은 구멍가게. 간판만 바뀌고 그대로인 문방구와 아직도 떡볶이가 1000원인 분식집. 20대, 30대인 우리가 두 시간 넘게 떠든 대화의 주제들이었다. 꿈꾸는 듯 대화하며 추억의 장소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할 때면 나도 어릴 적 그곳에서의 소중한 추억이 생각나 소풍 가기 전날처럼 설레고 신이 났다. 지금은 그때 만난 상도동 그 청년들이 직접 기획과 편집, 디자인, 기자 등의 역할을 나누어 '상도동 그 ○○' 두 번째 이야기 〈상도동 그 가게〉를 만들어가고 있다. 동네 사람이 만드는, 동네 이야기를 담은, 동네 기록 잡지. 동네 청년들이 바라본 상도동 이야기가 벌써 궁금해진다.

상도동은 우리 동네다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곳을 동네라고 한다면, 그 동네가 우리 동네가 되는 건 집 근처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 즉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어릴 적부터 나고 자란 정 깃든 동네가 아니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웃과 친구를 통해 동네 골목 구석에 작은 추억이 서릴 때 동네가 우리 동네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오늘도 오래된 이 동네에서 천천히 쌓이는 눈처럼 마음 한켠에는 사람을, 또 어느 한켠에는 관계를 쌓는다. 어느새 무릎까지 쌓일 눈처럼 이 시간이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차곡차곡 쌓이기를 바라본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다정한 당신에게도 그 한켠이 허락되기를….

저녁 공기가 맑은 어느 산책길에 동네 한 바퀴 걷다가 우리 서로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합시다.

글
김수연
잡지 〈상도동 그 청년〉 기획 및 편집을 했고, BLANK에서 공유공간 기획자로 일하고 있다.

그림
Meg

미드 〈왕좌의 게임〉 시즌6이 시작됐다!

가장 이상적인 리더를 품은 판타지물의 마력

관계의 치밀한 묘사가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어서 끌린다.
삶의 예측불가능성이 그대로 작동하는 세계를 들여다보며 많은 팬이
각자 염원하는 '이 시대의 리더'를 찾고 몰입하는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GAME OF THRONES

현실보다 리얼한 캐릭터, 그 거대한 판타지

얼마 전 시사주간지 〈타임〉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이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며 꼽은 인물은 다소 의외의 인물이었다. 1위에 오른 이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도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도 아닌, HBO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등장인물 티리온 라니스터였던 것이다. 드라마 속 가상인물 티리온 라니스터는 해당 조사에서 민주당의 또 다른 대선후보인 버니 샌더스와 동률인 24%의 지지를 얻어 미국 유권자가 꼽은 대통령감 공동 1위에 올랐다. 이 조사에서 민주당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은 20%의 지지율로 3위에 그쳤으며, 그 뒤는 〈왕좌의 게임〉의 또 다른 주역 대너리스 타르가르옌이 차지했다. 그렇다고 대너리스가 겨우 숟가락만 얹은 것도 아니었다. 14%의 지지를 얻은 대너리스는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의 7% 지지율과, 트럼프와 경선을 이어갔던 테드 크루즈의 5%를 합한 것보다도 많은 표를 얻은 것이다. 차기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실시했을 설문치고 다소 의외의 결과였던 만큼 함의를 파헤친다면 꽤 복잡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분명하다. 미드 〈왕좌의 게임〉의 인기가 한낱 드라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다.

최근 여섯 번째 시즌을 시작한 〈왕좌의 게임〉의 인기 요인은 의외로 단순하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앞선 설문조사에서도

KOR 서울문화재단
www.sfac.or.kr

알 수 있듯이 온전히 '캐릭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회당 1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들이는 만큼 우선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해야 할 것 같은 판타지 작품임에도 의외로 작품의 절대적 재미는 기존 판타지 영상물과는 조금 다른 지점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긴 여름이 지나면 수년간의 길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는 '세븐킹덤'은 중세 유럽을 모티프로 한 완전한 이세계지만, 기존 판타지 장르처럼 화려한 마법이나 이형의 몬스터에 의존하진 않는다. 대부분의 관심사는 왕권을 둘러싸고 펼치는 모략과 그에 따른 몰락에 있다. 〈왕좌의 게임〉의 주인공은 온전히 살아 있는 '인간'인 것이다.

덕분에 북부에 도사리는 미지의 존재에 맞서 거대한 장벽을 쌓은 기이한 가상세계마저 인간의 다양한 동인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낱 장치에 불과해 보인다. 지역마다, 종족마다, 집단마다 가진 각기 다른 문화와 관습을 치밀하게 그려냄으로써 허구의 세계에 굉장한 리얼리티를 더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각 개인의 성향과 연결 지음으로써 기백에 이르는 캐릭터 하나하나는 피와 살로 이루어진 진짜 인간으로 거듭난다. 자연히 이들 각자의 욕망과 가혹한 운명을 섬세하게 엮어가는 것만으로도 시청자들은 이세계에 동화되기 충분하다. 티리온과 대너리스에게 우리 시대 리더의 모습을 투사하고 염원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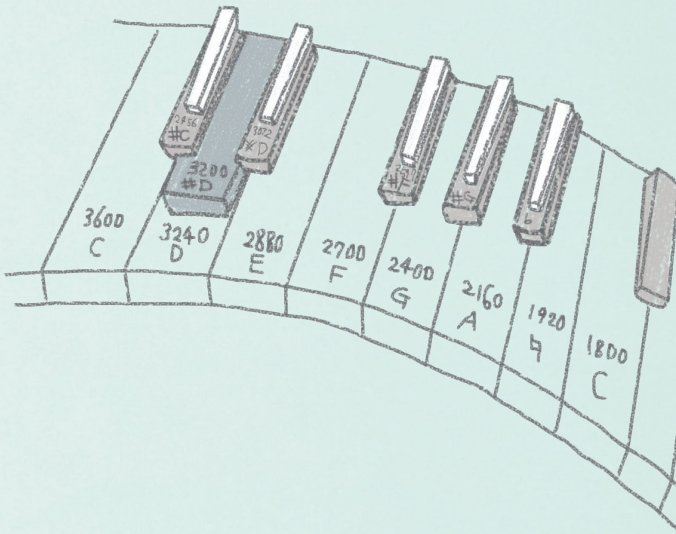
현실처럼 아이러니한 세계, 그 안에서 각자의 이상향을 찾는 재미

미드 〈왕좌의 게임〉의 원작은 조지 R. R. 마틴의 대하 판타지 소설 〈얼음과 불의 노래〉 시리즈다. 오늘날 장르소설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 중 하나로 1996년 시리즈의 1부 〈왕좌의 게임〉을 시작으로 〈왕들의 전쟁〉 〈성검의 폭풍〉 〈까마귀의 향연〉 〈드래곤과의 춤〉까지 총 5부가 출간됐다. 이 중 1부의 제목을 메인 타이틀로 삼은 드라마는 원작의 다양한 인간 군상을 효과적으로 현현함으로써 캐릭터의 매력을 더욱 배가했다.

원작 소설의 특징 중 하나는 각 챕터의 제목을 캐릭터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인물들의 시선을 번갈아 제공한다는 데에 있다. 당연하다는 듯 얼핏 악인으로 비치던 인물에게까지 시점을 할애하기도 한다. 자연히 주인공 또한 따로 정해진 바 없다. 덕분에 주요 인물마저 뜻밖의 상황에서 뜻밖의 인물에게 뜻밖의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작품 특유의 전개는 허를 찌르는 서사적 반전 이상으로 보는 이를 압도한다. 작품 내에서 '발라 모르굴리스(Valar Morghulis)'라는 고대어로 반복되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말이 결코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그만큼 작품 내 모든 이에게 죽음은 공평하게 찾아온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다. 올곧은 행동이 늘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 〈왕좌의 게임〉은 권선징악의 세계도 아니고 등가교환의 세계는 더더욱 아니다.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세계. 그러나 의지를 놓은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세계. 〈왕좌의 게임〉에 등장하는 이들의 인생이 하나같이 기구하고 잔혹하며 아이러니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기구한 운명 가운데도 눈에 띄는 이는 있다. 앞서 언급한 티리온과 대너리스를 비롯해 존 스노우, 아리아 스타크 등이 그렇다. 영리한 난쟁이 티리온 라니스터가 뛰어난 책략가로서 위기를 타개하고 특유의 냉소적인 유머로 상대를 압도할 때 주는 쾌감은 실로 대단하다. 원작자인 조지 R. R. 마틴 역시 티리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흑백으로 명확하게 나뉘는 인물보다는 선악 양면을 모두 가진 회색에 가까운 인물에게 더 흥미를 느낀다. 인습에 얽매이지 않고, 냉소적인 티리온은 회색 가운데서도 가장 다채로운 회색을 띤 인물이다." 또한 고향에서 쫓겨나 맨몸으로 야만족에 의탁하게 된 소녀 대너리스의 성장은 작품 최대의 카타르시스로 다가온다. 야만족 도트락인을 이끄는 여왕으로, 노예해방자로, 나아가 세 마리 용을 부리는 작중 가장 판타지적 존재로서 입지를 다져나가는 그의 위용은 이 작품 마지막 승리자를 자처하기 충분해 보인다.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매료됐는지도 모르겠다. 흑도 백도 아닌 회색의 판타지에서 진짜 인간을 찾아 헤매나니, 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글
강상준
〈DVD2.0〉 〈FILM2.0〉 〈iMBC〉 〈BRUT〉 등의 매체에서 줄곧 기자로 활동하면서 영화, 만화, 장르소설, 방송 등 대중문화 전반에 대한 글을 쓰며 먹고살았다. 〈위대한 망가〉를 썼고, 〈매거진 컬처〉 〈젊은 목수들〉을 공저했으며, 〈공포영화 서바이벌 핸드북〉을 번역했고, 〈좀비사전〉 〈탐정사전〉을 기획, 편집했다. 현재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겸 프리랜스 편집기획자로 활동 중이다.



평균율이 다 담지 못하는 미분음의 세계

'미'와 '파' 그 사이에…

고등학교 때 수학을 공부하면서 반비례 함수의 그래프에 매료된 적이 있다. a가 0보다 클 경우,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감소한다는데 그 모양새가 극단으로 치닫는 곡선이었다. 어마어마하게 큰 값에서 확 줄어들어, x축에 닿지는 않되 어마어마하게 가까워지는 모양새가 경이로웠다. 아주 작지만 0은 아니라니…. 계속 작아지면 언젠가는 0이 될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었다. 그런데 음악에도 아주 작은 음정이 존재한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은 건반에서 '미-파'와 '시-도' 사이가 반음이라고 배웠을 것이다. '미'와 '파', 그리고 '시'와 '도'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없다. 그러므로 두 음의 간격은 피아노에서 칠 수 있는 가장 좁은 간격의 음인 반음인 것이다. 반대로 '도'와 '레'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하나 있어서 두 음의 간격이 반음의 두 배인 온음이 된다. 음악 이론을 배우는 초기 단계에서 다루는 음정 계산법은 이렇게 피아노 건반 상의 음정을 기준으로 다루게 되고, 그 계산을 위한 가장 작은 단위가 반음이다. 이것은 피아노처럼 미리 조율이 완벽히 되어 있지 않은 악기에도 해당되며 연주자들은 알아서 이 음정을 정확하게 맞춰나가야 한다. 음높이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정해져 있어서 누가 어디서 피아노를 연주하건 모두 같은 음높이로 조율된 악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음정 단위는 늘 반음이 최소 단위가 된다.

반음 사이에도 무수한 음이 존재한다

우리가 듣는 클래식 음악에서 가장 작은 음 간격으로 간주되는 반음보다도 더 좁은 음정이 존재할까? 당연히 존재한다. 음정이라는 것은 블록처럼 쌓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작은 음정도 물리적으로 존재하긴 한다. 단지 인간이 그것을 음정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음악에 활용되는 빈도가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반음보다 더 작은 음정은 어떤 식으로 취급되고 연주될까? 서양의 현대음악에서는 반음의 절반인 1/4음의 사용이 상용화되었다. #(샵), b(플랫) 등의 임시표를 사용해 악보에 반음을 표시하는데, 이들과 흡사하게 생긴 새로운 임시표를 사용해 1/4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음정은 음높이가 고정돼 있지 않은 구조의 악기(바이올린 등) 또는 사람의 목소리로 미세하게 컨트롤해 연주한다.

KOR 서울문화재단
www.sfac.or.kr

Gamelan

20세기 미국의 작곡가인 찰스 아이브스(Charles Ives)는 피아노에서 1/4음을 표현하는 곡 'The Quarter-Tone Pieces(세 개의 1/4음 곡)'를 썼는데, 두 대의 피아노 중 한 대는 모든 음을 기존의 조율보다 1/4음 높게 해둬야 한다. 사실상 악기에 엄청난 무리가 가는 일이기 때문에 자주 연주되지는 않는다. 2010년에는 오스트리아 작곡가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하스(Georg Friedrich Haas)가 네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을 독일의 도나우에싱겐 음악축제(Donaueschinger Musiktage) 폐막음악회에 선보였는데, 이 네 대의 피아노는 각기 1/12음 간격으로 조율돼 연주되었다. 작곡가 본인이 밝혔듯 이렇게까지 미세한 음정은 사실상 청중이 제대로 인식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이런 조율을 사용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굉장하다. 이 작품 또한 네 대의 피아노를 새로 조율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현대음악의 실험정신을 제대로 인정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연주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평균율에서 벗어나는 매력적인 실험

기존의 음높이대로 조율하지 않고 반음 이하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조율한 악기를 연주하면 뭔가 잘못된 소리를 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우리의 귀가 고정된 조율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기존의 평균율 조율법은 숱한 시행착오의 역사 끝에 17세기 말에 서양음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고정된 음 간격을 부여해 한 옥타브를 12로 나누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조율된 악기로는 어느 조성을 연주해도 어색하지 않다. 이는 현대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예전의 음악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다. 바하의 대표작인 〈평균율 클라비어곡집〉에는 전주곡과 푸가가 한 쌍을 이루는 곡이 총 48곡 있는데 이는 평균율로 조율되었을 때 모든 조성이 자연스럽게 연주되는 게 가능함을 증명해 보이는 최초의 작품집인 것이다.

서양문화권에서 시야를 돌려보면 평균율에서 벗어난 음의 체계는 많이 존재한다. 아랍음악, 인도음악, 인도네시아의 가믈란(Gamelan) 모두 계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음이 버젓이 존재하고, 악기 또한 그 음정을 연주할 수 있게끔 고안되어 있다. 특히 인도음악은 한 옥타브를 22음으로 나누면서 아주 작은 음정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12음으로 나뉜 서양음악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미세한 음정이 체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평균율에 익숙한 우리의 귀가 미분음(반음 이하의 음정)을 듣기 시작하면 마치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 이면에 존재하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는 기분이 든다. 내가 굳게 믿고 의지하던 음의 체계가 싸그리 무너지는 조율법인 것이다.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익숙하지 않은 영역을 탐구하고자 하는 현대음악 작곡가와 연주자에게는 매력적인 소재인 것이다. 비단 음악가만의 일일까? 모든 사람이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영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하고 당연한 듯 주어졌던 진리를 한 번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권위 있는 자의 말의 무게에 의문을 품어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미분음이 쓰인 작품을 듣다가 해보았다.

* 근대에 들어와서는 아쉽게도 서양의 평균율에 가깝게 감각이 퇴화하고 있어서, 일부 나이 많은 음악가들만 22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

이음계 악기인 인도네시아의 가믈란. 평균율에서 표현할 수 없는 음정을 내는 악기(또는 합주 형태)로 현대음악가들에게 큰 영향을 줬다.

글
신지수
음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유학을 마친 후 현재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현대음악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음악에 대한 글쓰기를 즐긴다.

홈페이지
www.jeesooshin.com

블로그
jagto.tistory.com

건축에서 차용하는 '복고'의 클리셰

'복고', 클리셰와 크리에이티브 사이

건축계에서도 복고에 대한 관심은 끊이질 않는다. 이는 비단 현대의 트렌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 서양건축사를 관통해 이어져온 양상이다. 고전을 단순히 차용하거나 '느낌적인 느낌'을 복제한 건축은 오래 회자되지 못한다. 그 지역과 문화의 특성을 창의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이 서울 어딘가에도 필요하다.

고전적 복원 vs. 창조적 복원

건축에서 복고의 움직임은 끊임없었다. 서양 건축사의 흐름을 보더라도 로마 전성기에는 그리스의 기둥이 차용됐고, 르네상스 때에도 프랑스의 계몽주의의 물결에서도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적 양식은 끊임없이 차용됐다. 18세기 산업혁명 후 양산된 철강 산업에 의해 건축의 구조가 급진적으로 발전할 당시 프랑스의 건축가 비올레 르 뒥(Viollet le Duc)은 스스로 두 갈래의 건축 작업을 하고 있었다. 1830년경에 프랑스에서 유행한 고딕 건축의 복고적 경향에 맞추어 많은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우리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작품으로는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몽생미셸 등이 있다. 그는 당시 영국의 산업화에 반대하며 고딕 건축의 모든 면, 특히 형제애를 보이며 협동적으로 돌을 쌓아가는 모습에 반한 존 러스킨(John Ruskin)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러나 존 러스킨과 비올레 르 뒥의 복원 방법은 상반적이었다. 러스킨은 원안 복원에 힘을 썼고, 르 뒥은 창조적 복원, 즉 상상에 의한 복원도 마다하지 않았다. 상상에 의한 창조적 복원 작업은 철

강 산업 발전 시기에 나온 철 구조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계획안에서도 드러난다.

옛 것을 '어떻게' 살려야 할까

사실 이 부분이 현재까지 논쟁이 되는 주요한 이슈이며 복원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필자가 대학에서 공부하던 1990년대 초에도 '한국성'에 대한 논의는 전통 건축의 계승 방법에 기반했다. 기와지붕이나 돌담 등은 흔히 적용될 수 있었지만 목조 구조와 지붕은 본격적인 적용이 왠지 낯간지러운 타이밍이었다. 1990년대는 호황의 기운에 도심 한옥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다세대주택을 짓는 분위기였다. 한옥 지역에 살더라도 헌 집을 부수고 5층 이하의 새집을 짓는 것이 대세였고, 북촌에도 한옥 건물이 반절 이하로 줄어들게 됐다. 이런 맥락에서 1993년에 지어진 강남구 논현동의 '수졸당'은 주위와는 다른 용적을 지닌 주택이었다는 점이 특별하다. 호황의 분위기 속에서 그 당시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문향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데 힘쓴 결과였다. 현대적으로 바뀌었어도 수졸당은 골목에 면한 사랑방에 친구들을 부담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구조였다. 마치 그 옛날의 양반집처럼 말이다.

그후 IMF 체제는 지역경제의 파탄과 더불어 그동안의 개발과 투자에 대한 맹신을 재고하게 했다. 개발 이면에 있던 동네의 가치, 역사에 대한 관심 등으로 '북촌 가꾸기'가 시작됐고, 몇 년 후 관광이라는 코드와 맞아떨어져 현재 북촌은 다양한 이해관계로 유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뜨내기손님을 잡기 위한 음식점들이 들어서서 건축적 분위기보다는 맛집 트렌드를 따르게 되었다.

서울의 기존 역사도심지구인 종로구 인사동, 가회동 등의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처음 시행됐을 때는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익명의 건축적 특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이는 오히려 새로운 건축적 창조를 막는 걸림돌이 됐다. 가이드라인이 옛것을 새롭게 번안해내는 건축적 상상력을 막기 때문이다. 새롭게 설정되는 역사도심지구인 장충동 등 사대문 안의 구역은 같은 방식보다는 다른 창조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한다.

실제로 한 지역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되는 모습은 흡사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것 같은 분위기가 많이 나기도 한다. 디즈니월드의 에프콧(EPCOT)은 세계의 마을이라는 콘셉트로 테마화된 거리의 원형이다. 디즈니의 이상적인 확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그곳에 가야만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적 성격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으며, 세계의 모든 특화거리의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젠트리파이(Gentrify)된 특화거리일지라도 망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닝보시의 와이탄 거리는 개점휴업 상태다. 과거를 박제한 것처럼 복고 느낌을 복원하고 이국적인 먹거리가 있는 곳은 외국인의 왕래가 뜸해질 뿐만 아니라 자국인들의 흥미도 끌지 못한다.

지역성을 창조적으로 취한 건축을 기대한다

바로 며칠 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2016년 미국건축사 연례회의(AIA Convention)에서 네덜란드 건축가 렘 쿨하스(Rem Koolhaas)는 그로서는 처음으로 건축적 보존에 대해 언급했다. 보존에 관계된 설계 프로젝트는 이전 문화와 정신세계에 새로운 차원을 더하는 것이고, 그동안 추구해온 세계화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다. 또한 유럽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국제적으로 난민이 증가하는 시대에 건축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고 느끼며, 대가적 건축가의 출현보다는 사회에 새로운 생각기반(Platform)을 전파할 수 있는 건축가의 출현을 기대했다. 요약하면, '세계화'와는 다른, '지역적 보존'도 중요하며, 보존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돌리자는 내용이다.

보존을 보존 그 자체에 충실하기보다는, 한 차원 위의 다른 프레임의 기반에서 주무를 수 있는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최근에 이슈가 된 광주의 송정역시장과 평창의 봉평시장의 경우 젊은이들의 창업, 대기업의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 디자인된 가게 내·외부를 통한 재래시장의 느낌 살리기, 야시장의 유행 등에 의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고 한다. 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지역 자생적인 콘텐츠와 결합하지 않은 야시장들은 점점 운영 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한다. 맛집, 먹거리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현상은 진리인 듯하다. 그것도 특정 나이대에서 말이다.

건축적 보존과 변형을 통해 순식간에 형성되는 먹거리 문화의 배경을 만들기보다는 눈에 띄지 않더라도 젊은이들의 창업이나 혁신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을까? 코펜하겐의 운하를 돌아다녀보면 목조 창고나 오래된 건물 안에 업무 환경이 펼쳐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상하이의 예술가 장소 M50은 여행객의 명소 티엔즈팡과 달리 조용하다. 예술가들의 작업 인큐베이터 M50은 관광에 초점을 맞춘 티엔즈팡과 천지차이다. '어디가 뜬다' 하는 얘기는 복고에 대한 맹신과 동격이 아닌가 싶다. 시각적 안도감과 장관을 바라는 마음, 다시 말하면 눈과 입이 즐겁고자 하는 본능, 또다시 말하면 복고 맹신과 맛집 탐방 행위는 정신적 지형의 형성과 지적인 창조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조준되어야 할 것이다.

1, 2
젊은이들의 창업을 재래시장으로 적극 끌어오며 건축적·디자인적으로도 변화를 줘 공간의 의미를 살리고 시민의 호응도 얻은 광주 송정역시장.
3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지 못한 피상적인 복고 콘셉트 차용으로 인기를 잃은 중국 닝보시 와이탄 거리.

글
송하엽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미국건축사. 저서로 〈랜드마크; 도시들 경쟁하다〉 〈파빌리온, 도시에 감정을 채우다〉 〈표면으로 읽는 건축〉이 있으며, 서울건축문화제에서 '담박소쇄노들: 여름건축학교' '한강감정: 한강건축상상전'을 기획했다.

사진 제공
송하엽,
1913송정역시장 페이스북(www.facebook.com/1913songjeong)

등장인물 공삼(남), 공구(여), 일공(여), 영구(남), 일삼(남), 공일(남), 일일(남), 영일(남)

공삼 후배가 나왔는데, 선배란 놈이 그것도 과 선배란 놈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해서 많이 미안했습니다. 이번에 다른 학교를 맡아 돕느라 그런 게 없지야 않지만… 그래도… 죄송합니다… 전부 제 잘못이죠. 아직도 학교는 뭔 이야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제멋대로고, 상대는 꺼떡하면 예전 일들 들춰내며 물고 늘어지고 학우분들도… 우리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은 것들 전부… 제가 제대로 해결해놓지 않고 가서 공구한테, 영구한테 그리고 이번에 일일한테도 대물림되고 있는 것만 같네요….

공구 (휴지를 건네며) 여기요.

고깃집에 앉아 있는 이들 모두 말이 없다.
일공이 휴대폰을 끊으면서 들어온다.

일공 왜 갑자기 또 초상집 분위기야?

영구 별일 아니야… 전화는 해봤어? 어디래? 언제 온대?

일공 아… 상대 쪽 인사드리고 금방 온대. 그래도 거기가 이제 총학생회장이니까. 그럼, 이왕 일어선 김에 제가 발언할까요?

영구 (일어서서) 그래요. 이어서 1년 동안 인문대를 책임지시느라 고생하셨던 일공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일공 먼저, 지난 한 달 동안 선거를 치른다고 고생하셨고요. 저 역시도 작년에 선거를 치러봤고, 또 이번에 인문대 학생회장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학우 분들에게 다시금 돌아가야만 합니다. 학우 대중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발 더 다가가고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건배 제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학우 대중과 함께' 하면 '더 나은 학교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공 학우 대중과 함께.

모두 더 나은 학교를.

일공 자리에 앉고, 영구 다시 자리에서 일어선다.
일삼, 약간 어리둥절해한다.

영구 대표자다운 강한 발언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고민해야 할 지점을 잘 말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발언 하나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반값 등록금을 위해 열심히 뛰어 당기더니 이제는 반값 등록금이 된 학교로 가버린, 다시 새내기가 되었지만 의리를 지킨다고 와준 일삼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일삼 저요? (일어서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자리가 너무 오랜만이어서 약간은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공일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개부터 해주세요.

일삼 아. 영구 선배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새내기가 된 컴공과, 아 이제는 화학공학과 의리의 일삼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치대를 가고 싶었지만 공부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 말하려던 게 아닌데… 일일이가 이번에 선거에 나왔다고 해서 왔는데, 결과가 세 배 차이? 작년이랑 똑같네요. (눈치 보며) 아… 죄송합니다. 같이 작년에 일일이랑 강의실 들어가서 뽑아달라고 노래 부르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쨌든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건배 제의할까요? 제가 '그래도 우린' 하면 '승리한다'라고 해주세요.

일삼 그래도 우린.

모두 승리한다.

일삼, 자리에 앉고 다들 술을 마시며 주변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눈다.

일일 (웃으며) 누나 좀 드세요.

일삼 그래요, 왜 이렇게 안 드세요.

공구 아니야, 많이 마셨어. 오늘 좀 힘드네. 일삼이 오랜만에 왔네. 어쨌든 잘 왔어. 그리고 고생 많았다 일일아.

일삼 마무리 멘트하지 마시고요. 누나도 역시 그대론데요. 아까 본 잔이 그대로야. 안되겠다. 우리나 마셔야겠다.

일일 그래야 되나. 야, 어쨌든 오늘 와줘서 고맙다. 너라도 있어서 좀 편하네.

뒤풀이

김상민 작

KOR 서울문화재단
www.sfac.or.kr

다들 화기애애하게 술자리를 이어간다. 공일, 표정이 좋지 않다. 술을 들이켜더니 갑자기 일어선다.

공일 저희가 이렇게 웃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선거운동을 하느라 고생한 것은 저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회포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졌고 현재 상황은 어떻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계획해야만 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선거 중에는 상대 선본에서 우리를 맹목적으로 비난했다면 이제는 학교에서 우리의 선전을 가지고 문제 삼을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했던 행동에, 우리를 뽑아주었던 1300여 명 학우의 뜻에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본 분이 있기나 합니까? 이런 나태한 자세와 학우 분들 하나하나를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갖지 못한 마음가짐이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적막이 이어지던 중 술에 약간 취한 일영이 고깃집으로 들어온다.

영구 (일영을 발견하고는 공일의 눈치를 살피며) 인문대 학생회장님, 오셨습니다.
공일 (자리에 앉으며) 일영이 왔구나, 들어와.
일영 네. (공일에게)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안녕.
일영 (일공에게) 무슨 일 있었어?
일공 아니야, 별일 없었어.
영구 인짱 님의 말씀을 또 안 들어볼 수 없지요. 앉으시기 전에 오늘 인문대 학생회장이 되셨는데 간단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영 안녕하세요? 오늘부로 인문대 학생회장이 된 일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던데. (주변을 살피고는) 모두들 열심히 선거 활동했는데, 같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상대 쪽 가보니까 총학 됐다고 난리가 아니던데. 아휴, 그 새끼들… 말이 좀 다른 데로 샜네요. 저희도 너무 졌다고 시무룩해 있지만 말고 오늘 하루만큼은 거하게 회포도 풀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몽땅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또 살피고는) 그래도 제대로 된 구호 하나 하고 즐거운 술자리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만 세 번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생이 앞장서서 정의사회 실현하자.
모두들 실현하자. 실현하자. 실현하자.
일영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문대 학생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삼 (술을 들이켜고 혼잣말로) 이거 뭐야, 뭐 누구는 회포 풀지 말라 하고, 누구는 오늘 하루는 회포를 풀어야 된다고 하고.
일일 야, 너무 그러지마. 그냥 그러려니 해.

일영, 자리에 앉는다.

일영 (일일에게) 고생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형 하는 것도 좀 도와주고 그래.
일공 그래 일영이 일도 좀 돕고, 아니면 내년에 또다시 해보든가.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잖아.
일일 그럴까요? 근데 이번에 너무 힘들어 가지고.
공일 그래,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계속 이렇게 당하고 살 수만은 없잖아. 안 그래? 그래, 일삼이라고 했지. 너가 봐도 그렇지 않냐?
일삼 (남은 술을 마시더니) 제가 봐도 그렇다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학교를 요즘에 안 다녀서.
영구 (일삼 말을 끊으며) 아직 못 들은 이야기가 있죠? 이야기 다 듣고 앞으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점도 이야기하고 스트레스도 푸는 뒤풀이를 이어가도록 하죠. 비록 결과가 좋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 서만큼은 승자인 일일 발언해주시죠.

일일 일어선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말을 시작한다.

일일 네, 드디어 제 차례네요. 뭐… 끝나면 시원할 줄만 알았는데… 진짜 끝나기를 엄청 기다렸거든요. 언제 투표가 끝나지? 달력을 보면서 이때면 투표가 끝나네. 하루하루 새가면서 보낼 정도로… 근데 막상 끝나고… 결과도 보니까… 그냥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상대는 괜히 시비 걸고…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았는데, 사람들도 그랬는지 이제 생각해보면 아닌 것도 같고… 내가 말하는 건 틀린 게 아닌데, 분명.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주는지….
일영 (웃으며) 아니, 왜 그렇게 울어? 너가 잘못한 거 없어. 괜찮아. 다 끝났잖아. 내년도 있고.

공구가 말없이 휴지를 준다.

일일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뭔가… 아까 선배님이 미안하다 했는데 그럴 거 없는데… 작년에도 다른 선배님이 떨어지고 왜 그렇게 우셨는지 몰랐는데… 뭔가 너무 억울하기만 하고 말로는 다 못하겠는… 뭐라 해야 할지… 딴 건 몰라도 언젠가 학교엔 반드시 갚아줄 겁니다. 아니 갚을 거예요…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뒤로 한참 술자리가 이어진다.

영구 다시 또 열심히 해야지?
일일 형, 근데 다음 달에 군대 가야 돼서….

작가소개

1992년생. 소설 속에 나오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멋있어 철학과를 갔지만 철학이 그리 사람을 멋있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만 하고는, 무대에 한번 서봐야지 하는 생각에 연극동아리에서 연극을 해보며 그 재미와 짜릿함은 알게 됐지만 재능에는 회의를 느꼈다. 여전히 철학에도 연극에도 기웃거리며 내가 재밌으면 됐지 하며 자위한다. 그리고 또 다른 재밋거리는 없는지 또다시 기웃거리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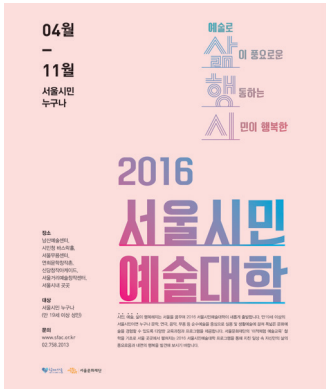
〈10분 희곡 릴레이〉는 젊은 작가 혹은 지망생들의 재기발랄한 10분 단막극입니다. 서울연극센터 웹진 연극人n에 가시면 더 많은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webzine.e-stc.or.kr)

www.sfac.or.kr

2016 Calendar

06

2016 서울시민예술대학



예술로 삶행시!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생활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문학, 연극, 음악, 시각예술 등의 다양한 미적체험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곳곳에서 진행된다.

대상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문의 sfac.or.kr 02-758-2013

- 시민청·시청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거리예술 창작센터
-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 서교예술실험센터
- 문래예술공장
- 서울예술치유허브
- 금천예술공장
- 연희문학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신당창작아케이드
- 남산예술센터
- 창작지원팀 제휴협력실 문화자원기증센터
- 공공예술센터 축제팀 문화나눔팀
- 예술교육팀 서울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 기타 문화행사 추천

MON	TUE	WED
		1 박물관도시 서울 프로젝트 〈서울을 모아줘〉(~12.31) 서울댄스프로젝트 춤단 4기 모집(~6.6) 남산예술센터 2016 시즌프로그램〈햇빛샤워〉(~6.5) 박정랑 개인전 〈내 마음속의 우화〉(~6.11) 활력콘서트 〈어른·아이·서울 展〉(~6.12) 〈모네, 빛을 그리다〉intro展(~6.30) 〈숨쉬는 안전한 서울 展〉(~6.30)
6 6월 6일 현충일 추모행사 김영희무트댄스 2016 신작 〈촛불〉(~6.7)	7 〈토크쇼〉 20세기 소년, 21세기 아재의 장난감 창고 연극 〈아들〉(~7.24)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테이트 심포니 내한공연 프란츠 요세프 하이든-오라토리오 〈천지창조〉	8 2016 전경련회관 정원음악회 피아노 배틀 국립국악관현악단 〈베스트 컬렉션-민요〉 알렉상드르 타로 '골드베르크 변주곡' 2016 키우피우 인형극축제 〈돌아온 박첨지〉(~6.11)
13 내가 만드는 동화이야기 〈하이스토리〉(~8.27) 뮤지컬 〈다윗〉(~10.31)	14 시민공예학교(~10.4, 매주 화) 연극 〈사이레니아〉(~8.15)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제58회 정기연주회 〈6월의 아름다운 동행〉	15 시민전통연희학교(~11.6, 매주 수) KBS와 함께하는 한국어 포스터 전시(~6.21) 국립극장 창극 〈배비장전〉(~6.26) 〈연세클래식〉 백조의 노래, 마커스 판즈워스 Baritone 현대음악시리즈 1-AsianArt Ensemble 〈Rituals〉(~6.16) 2016 키우피우 인형극축제 〈비발디의 사계, 동물의 사육제〉(~6.18)
20 목관5중주 The K 제3회 정기연주회 서지수 피아노 독주회 〈슈베르트, 어루만지다〉	21 세종문화회관 오페라 마티네 〈마농 레스코〉 HS 피아노 앙상블 음악회	22 연극 〈WAKE UP, 햄릿〉(~7.3)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바이올리니스트 기주희 & 피아니스트 조현수 듀오 콘서트
27 서울시립교향악단 소년소녀 협주회	28 2016년 6월 온쉼표 〈피아노포르테, 나의 사랑〉(~6.29)	29 2016 연희문학창작촌 아시아문학창작워크숍(~7.3) 글로벌창작오페라 〈사마천〉(~6.30)

THU	FRI	SAT	SUN
2 국립무용단 〈심청〉 금호아트홀 〈위대한 예술가 시리즈-안드레아스 오텐잠머, 호세 가야르도〉 국립국악원 〈6월 목요풍류〉(~6.30) 서울시무용단 〈여름빛 붉은 단오〉(~6.5) 연극 〈소년B〉(~6.12) 심시티 〈머리를 내어놓아라〉(~6.12)	**3** MMCA 〈이중섭, 백년의 신화〉(~10.3) 라메르에릴 정기연주회 〈독도, 여행가다〉 서울국제음악제 〈비엔나에서 온 편지〉 SPO2016 〈실내악시리즈II: 오보에 앙상블〉 증견무용가전&명무전〈우리 춤 축제〉(~6.4) 연극 〈둥지〉(~7.31) 2016 FESTIVAL NADA(~6.4) 원로연극제 〈태(胎)〉(~6.12) 원로연극제 〈그 여자 억척어멈〉(~6.17)	**4** 〈시장에 간 서커스〉-수유재래시장, 금천현대시장 거리예술시즌제-선유도(~6.5) 김승희 영상상영 〈단편의 기억〉 명동예술극장 연극 〈갈매기〉(~6.29) SAC 〈발밤아트 프로젝트 VII〉 영산아트홀 〈Songs of Life〉 원로연극제-딸들의 연인(~6.12)	**5** 〈시장에 간 서커스〉-은평대림시장, 중곡제일시장 서울시 대표 B-boy Zone 키예프 국립발레단 내한공연 연극 〈레드〉(~7.10)
9 국립극단 〈죽고 싶지 않아〉(~6.19) 줄리앙보디몽&에르베엔카와 초청 듀오콘서트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6월) 2016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선우예권 Piano(6.9)	**10** 김덕훈 〈개인사진전〉(~6.21) 음악축제 〈2016 문래날래〉(~6.19) 〈문래날래 기획전시〉(~6.20) 로즈데스트벤스키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6번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6.19) 가까스로 우리(~6.26) 유니버셜발레단 〈심청〉(~6.18) 〈The One Art for One-판소리 이나래〉(~6.11)	**11** 한마음살림장(~6.12) 거리예술시즌제-서울숲(~6.12) 누오바오페라단 2016 정기오페라 〈오페라 미호뎐〉(~6.12)	**12** 김윤지 개인전 〈얼굴〉(~7.2) 2016 디토 페스티벌: 기돈 크레머 & 뤼카 드바르그
16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 개막 〈#tag(해시태그)〉(~6.19) 기획전시 〈장소와 각주〉(~7.5) KBS교향악단 제707회 정기연주회 미야자와 플루트 콰르텟 제 3회 정기연주회 연극 〈세 여자〉(~6.18) 심시티 〈연극실험실 혜화동 1번지〉(~6.26) 전시 〈헤더윅 스튜디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발상〉(~10.23)	**17** 바스락콘서트(~6.19) 국립국악원 무용단 × 조흥동(~6.18) 원로연극제 〈신궁(神弓)〉(~6.26) 연극 〈인터뷰〉(~6.26) 오페라 〈배비장전〉(~6.18) 〈The One Art for One-블루스 강허달림〉(~6.18)	**18** 거리예술시즌제-어린이대공원(~6.19) 시민연극학교(~10.22, 매주 토) 연극 〈미소나래〉(~6.19) 이니스 앙상블 정기연주회 정성희 임정아 두오 연주회 서울돈화문국악당 개관 전 공연축제 〈프리&프리〉: 극악무도-모던레퀴엠 씻김 이영란의 새로운 감성놀이터 〈나무야 나무야〉(~8.28)	**19** 서울챔버 오케스트라 제87회 정기연주회 마리아칼라스홀 〈강충모 피아노리사이틀〉
23 전시 〈소심한 저항-창대한 시작〉(~6.30)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6.26)	**24** 금나래아트홀 〈춤으로의 여행〉 〈The One Art for One-클라리넷 채재일〉(~6.25)	**25** 토요일은 청이좋아 한마음살림장(~6.26) 거리예술시즌제-DDP(~6.26) I • 해커톤 • U(~6.26) 2016 세종체임버시리즈 〈오마주 투 모차르트〉	**26** 인식개선 프로젝트
30 로베르트 & 요하네스-보컬 콰르텟 배정혜의 新전통 II(~7.3)			

01 WED

남산예술센터 2016 시즌프로그램 〈햇빛샤워〉

2015년 초연 당시, 굵직한 연극상을 휩쓸며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연극이다. 순수 청년 '동교'와 그의 집 반지하 셋방에 사는 백화점 직원 '광자'를 통해 비틀린 삶과 가난한 자들의 모습을 덤덤하게 드려냈다. 극단이와삼 장우재 작·연출.

일시 ~6월 5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전석 3만 원 *만 16세 이상
문의 nsartscenter.or.kr 02-758-2150

활력콘서트

시민예술가들이 선사하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

일시 평일 오후 12시·12시 30분, 주말 오전 11시~오후7시
장소 시민청 활짝라운지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0057

박정랑 개인전 〈내 마음속의 우화〉

10여 년 전 작가는 가족에 대한 모순되는 감정을 동물박제로 표출했었다. 그 최초 작업 후 동일시, 애착 등을 겪으며 느낀 삶의 중요했던 순간을 우화로 재현했다. 2016년 서울예술치유허브 갤러리 맺음 후원 공모 선정작.

일시 ~6월 11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서울예술치유허브 2층 갤러리 맺음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어른·아이·서울展

어른부터 아이까지 온 가족이 함께 전시와 체험을 즐길 수 있다. 88올림픽 호돌이부터 타요버스와 뿌까, 피겨까지 장난감 수집가가 준비한 다양한 장난감의 과거와 현재를 한곳에서 만나는 전시다. 갤러그 등 추억의 고전 게임 체험은 덤.

일시 ~6월 12일(일) 오전 9시~오후 9시
장소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120

박물관도시 서울 프로젝트 〈서울을 모아줘〉

시민의 일상에서 사용되던 물건이 모여 서울의 작은 박물관이 만들어집니다! 사회·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충분한 생활유산을 기록하고자 하는 이번 캠페인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12월 31일(토)
참여방법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클릭 후 '응답하라 2015' 카테고리에 등록
문의 fb.com/museumseoul 02-3290-7192~4

〈모네, 빛을 그리다〉 Intro展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의 작품이 미디어와 만나 새롭게 태어났다. 클로드 모네가 웅장하게 그려낸 자연의 풍경으로 건조하고 숨 가쁜 일상 속, 잠시나마 휴식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일시 ~6월 30일(목) 오전 9시~오후 9시
장소 시민청 소리갤러리(B1)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33-7219

전시 〈숨쉬는 안전한 서울〉

서울의 안전과 환경정책,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아낸 전시다. 시민이 직접 촬영한 사진전을 비롯해 서울의 미래를 직접 만들어보는 블록 놀이 등도 체험할 수 있다.

일시 ~6월 30일(목) 오전 9시~오후 9시
장소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 시티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9922

02 THU

국립무용단 〈심청〉

국립무용단의 2015~2016 레퍼토리시즌 마지막 작품이다. 안무가 김매자의 대표작으로 '심청가' 완창과 한국무용을 한 무대에 펼쳐 보였던 원작을 재창작했다. 초연 스태프는 물론, 프로듀서 루카스 헴레프의 드라마투르그 참여로 더욱 새로워진 〈심청〉을 만나보자.

일시 6월 2일(목)~4일(토)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VIP석 7만 원,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ntok.go.kr 02-2280-4114~6

서울시무용단 〈여름빛 붉은 단오〉

신윤복과 김홍도의 풍속화 속 단오 세시풍속이 무대에 오른다. 평화로운 마을에서 벌어지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수준 높은 전통 춤과 창작이 조화를 이루는 창작무용극으로 선보인다.

일시 6월 2일(목)~6월 5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5시, 일 오후 3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관람료 R석 3만 원, S석 2만 원
문의 gugak.go.kr 02-580-3300

연극 〈소년 B〉

창작집단 LAS의 신작 발굴 프로젝트 〈기상프로젝트〉가 올해는 초연 이후 공연이 없었던 수작을 2편 발굴해 무대에 올린다. 그중 〈소년B〉는 1990년대 한국 중학생을 통해 현대인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작품이다.

일시 6월 2일(목)~6월 12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5시, 일 오후 3시 *6월 6일(월) 오후 3시
장소 대학로 나온씨어터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las.or.kr 070-8154-9944

03
FRI

이중섭, 백년의 신화 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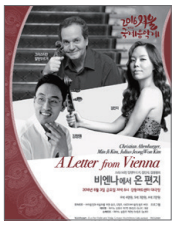
탄생 100주기를 맞은 한국의 '국민작가' 이중섭의 전시다. 한국 근대사를 관통하며 한 자유로운 예술가가 선택했던 진로를 탐색하고 오늘날의 관객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일시 6월 3일(금)~10월 3일(월)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제1~4전시실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5천 원, A석 2만 원
문의 mmca.go.kr 02-522-3342

연주회 〈독도, 여행가다〉

음악, 미술, 문학, 무용, 연극 등 각 분야의 중견 예술가들이 독도를 우리의 삶 속에 승화시키기 위해 설립한 순수 예술·학술 단체 라 메르 에릴(La Mer et L'ile, 바다와 섬)의 제 8회 정기 연주회.

일시 6월 3일(금) 오후 8시
장소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nlamer.com 02-515-5123



서울국제음악제 〈비엔나에서 온 편지〉

다양성이라는 주제 아래 총 5회의 공연으로 관객을 만나는 2016 서울국제음악제의 무대다. 오스트리아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알텐부르거와 피아니스트 김정원, 첼리스트 김민지의 하모니를 만날 수 있는 공연.

일시 6월 3일(금) 오후 8시
장소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관람료 R석 4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gangdong.or.kr 02-440-0500

숨겨진 감각축제 〈2016 나다 뮤직페스티벌〉

예술을 통해 장애인을 향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아티스트와 뮤지션이 대중공연 예술가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다원예술 축제다. 노브레인, 장미여관, 갈릭스 등 총 7팀의 무대가 준비됐다. 입장료 전액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시설로 전달된다.

일시 6월 3일(금)~4일(일) 금 오후 8시, 토 오후 7시
장소 KT&G상상마당 라이브홀
입장료 비장애인 1만 원, 장애인과 동반 1인 각 5천 원
문의 sangsangmadang.com 02-555-3199

원로연극제

한국 연극의 산증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연극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김정옥, 오태석, 하유상, 천승제의 작품을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 무대로 올렸다. 작품 〈그 여자 억척어멈〉, 〈태殆〉, 〈딸들의 연인〉, 〈신궁〉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자.

일시 6월 3일(금)~26일(일)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입장료 전석 3만 원
문의 koreapac.kr 02-3668-0007

04
SAT

시장에 간 서커스-수유재래시장, 금천현대시장

시장에서 만나는 신나는 서커스 공연! 현란한 저글링과 실감 나는 마임을 선보이는 마린보이의 〈나홀로 서커스〉와 버블 쇼의 끝판왕을 만날 수 있는 팀 클라운의 〈경상도 비눗방울〉이 준비돼 있다.

일시 및 장소 6월 4일(토) 오후 12시 수유재래시장, 오후 5시 금천현대시장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437-0099

거리예술 시즌제-선유도공원

'거리'에서 만나는 '예술'을 주제로 4월~6월 주말마다 도심 속 공원에서 진행되는 거리예술 공연 프로그램이다. 6월 선유도공원에서는 연희컴퍼니 유희의 전통연희 〈원시인 HOT Show〉와 창작중심 단디의 버티컬 퍼포먼스 〈단디우화〉 등 6팀이 9회 공연한다.

일시 6월 4일(토)~5일(일) 오후 2시~6시
장소 선유도공원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290-7169

김승희 〈단편의 기억〉

국내 영화제에서 볼 수 없는 단편 애니메이션 12편을 상영한다. 작품 상영 후 관객과 감독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일시 6월 4일(토) *시간 미정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 다목적실
관람료 미정
문의 sfac.or.kr 02-333-7219

연극 〈갈매기〉

안톤 체호프의 희곡 중 우리의 일상을 가장 사실적으로 그려내며 쓴웃음을 선사하는 연극이다. 배우 이혜영 주연으로 유럽 내 차세대 거장으로 촉망받는 연출가 펠릭스 알렉사의 섬세한 미장센이 담긴 작품.

일시 6월 4일(토)~29일(수)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공휴일 오후 3시 *화요일 공연 없음, 16일(목), 23일(목) 오후 3시 1회
장소 명동예술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5천 원, A석 2만 원
문의 ntck.or.kr 1644-2003

발밤아트 프로젝트VII-오마주 슈만

한 걸음씩 천천히 걷는 모양을 나타낸 '발밤발밤'에서 따온 이름의 앙상블 발밤의 공연. 클래식 공연의 구조적 문제부터 고민하며 하나씩 개선해가고자 노력하는 실력파 연주자들로 슈만 서거 160주년을 기념해 무대를 올린다.

일시 6월 4일(토)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sac.or.kr 02-515-5123

05 SUN

시장에 간 서커스-은평대림시장, 중곡제일시장

시장에서 만나는 신나는 서커스 공연! 다양한 저글링 퍼포먼스와 마술, 마임, 음악 댄스를 선보이는 팀 퍼니스트의 〈퍼니스트 코메디 서커스 쇼〉와 작은 자전거, 자동차를 타고 등장하여 남녀노소를 막론한 재미를 선사하는 마린보이의 〈나홀로 서커스〉가 준비돼 있다.

일시 및 장소 6월 5일(일) 오후 12시 은평대림시장, 오후 5시 중곡제일시장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437-0099

서울시 대표 B-boy Zone

서울시 보행전용거리가 비보이(B-boy)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TV에서만 보던 비보이 공연과 댄스 배틀을 시민들이 직접 보며 체험할 수 있는 장소. 서울시 대표 비보이 '드리프터즈 크루'가 출연한다.

일시 6월 5일(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290-7275

06 MON

시민청 현충일 추모행사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있는 현충일을 추모하는 시민청 행사. 시민들이 함께 묵념을 하며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추모 공연, 조기 달기, 태극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잊혀가는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일시 6월 6일(월) 오전 11시
장소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 시민플라자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120

김영희 무트댄스 2016 신작 〈촛불〉

한국 창작춤의 선구자 역할을 해온 김영희 무트댄스의 신작. 미술관 관객을 무용 관객으로 끌어오기 위한 프로젝트로 미술 장르 키네틱아트를 춤 무대에 올렸다. 20년 넘게 고집해온 무트댄스 특유의 호흡법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안무 김영희.

일시 6월 6일(월)~7일(화) 오후 8시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mctdance.co.kr 02-2263-4680

07 TUE

토크쇼 〈20세기 소년, 21세기 아재의 장난감 창고〉

'서울을 모아줘' 캠페인 참여자들의 네트워킹 자리. 캠페인 참여자는 물론 장난감 관련 커뮤니티나 동호회, 일반 서울시민도 참여가 가능하다. 뽈랄라 수집관 현태준 관장의 진행으로 서울의 옛 장난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일시 6월 7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1층 시민청갤러리
문의 sfac.or.kr 02-3290-7162

연극 〈아들〉

2007년 개봉 당시 많은 관객의 마음을 울린 장진 감독의 영화 〈아들〉이 연극으로 재탄생한다. 15년 만에 아들과 하루를 보내는 무기징역수 강식의 애틋하고 특별한 시간을 그려냈다. 정태영 연출.

일시 6월 7일(화)~24일(금)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5시·8시, 토·일 오후 3시·6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1관
참가비 R석 4만5천 원, S석 3만7천 원
문의 1588-5212

08 WED

피아노 배틀

흑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폴 시비스와 백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안드레아스 컨의 대결. 두 연주자의 즉흥적인 연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라운드마다 관객들이 흑과 백의 투표용지로 승자를 결정하는 '관객 참여 클래식 콘서트'다.

일시 6월 8일(수)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10만 원, S석 8만 원, A석 6만 원, B석 4만 원
문의 stompmusic.com 02-2658-3546

국립국악관현악단 〈베스트 컬렉션-민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다. 명곡이 그 가치를 발하도록 무대에 올리는 〈베스트 컬렉션〉의 주제로 올해는 '민요'를 선택했다.

일시 6월 8일(수) 오후 8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ntok.go.kr 02-2280-4114~6

2016 키우피우 인형극 축제 〈돌아온 박첨지〉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꼭두각시놀음을 인형극으로 재창작한 작품. 한국 유일 전통 인형극으로 인형들의 재주와 악사들의 전통 타악 연주에 해악과 풍자, 희극적 재담이 담겨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일시 6월 8일(수)~9일(목) 오전 11시, 11일(토) 오전 11시·오후 3시
장소 종로 아이들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jfac.or.kr 02-2088-4290

09 THU

국립극단 청소년극 릴-레이 〈죽고 싶지 않아〉

생동감 넘치는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포착해 낸 '생의 본능'을 그리는 작품이다. 청소년뿐 아니라 이 시대의 누구라도 감당해야 할 상황에 엉뚱하지만 재기발랄한 대응책을 제시한다. 안무 류장현.

일시 6월 9일(목)~19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 *화요일 공연 없음
장소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ntck.or.kr 1644-2003

10 FRI

김덕훈 〈개인사진전〉

2014년 한 해 동안 찍은 사진 작품을 전시한다. 많은 사람에게 위로,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김덕훈이 기획한 생애 첫 개인전이다.

일시 6월 10일(금)~21일(화) 오전 11시~오후 8시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33-0246

2016 문래날래 & 문래날래 기획전시

12월까지 17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문래창작촌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이다. 6월에는 아티스트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음악축제 〈2016 문래날래〉와 다원예술 전시 〈문래날래 기획전시〉를 만날 수 있다.

〈2016 문래날래〉
일시 6월 10일(금)~19일(일) 오후 7시~10시
장소 스컹크 공연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래날래 기획전시〉
일시 6월 10일(금)~20일(월) 오후 2시~10시
장소 배드핸즈 갤러리
관람료 무료

국립극단 젊은연출가전 〈가까스로 우리〉

손톤 와일더의 세 번째 퓰리처상 작품 〈The Skin of Our Teeth〉를 재해석 했다. 닥쳐온 위기를 알지 못한 채 지구와 함께 5천 년을 살아온 한 가족과 가정부의 이야기를 통해 가까스로 어른이 된 우리를 말한다. 동아연극상 신인상 수상 박지혜 연출.

일시 6월 10일(금)~26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3시
*화요일 공연 없음
장소 국립극단 소극장 판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ntck.or.kr 1544-1555

유니버설발레단 〈심청〉

창작 30주년을 맞아 다시 무대에 오르는 〈심청〉. 1986년 국립극장 초연 후 전 세계 15개국 공연을 통해 입지를 다져온 유니버설발레단의 대표 작품, 발레 〈심청〉을 만나보자.

일시 6월 10일(금)~18(토)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7시
*월요일 공연 없음, 18(토) 오후 3시 1회 공연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R석 10만 원, S석 8만 원, A석 6만 원, B석 1만 원
문의 sac.or.kr 070-7124-1737

11 SAT

한마음살림장

시민예술가가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선보이고 공유하는 시민 소통 장터. 아기자기한 소품부터 다양한 체험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일시 6월 11일(토)~12일(일), 25일(토)~26일(일) 오후 12시~오후 6시
장소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1층 시민플라자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5817

거리예술 시즌제-서울숲

'거리'에서 만나는 '예술'을 주제로 4월~6월 주말마다 도심 속 공원에서 진행되는 거리예술 공연 프로그램이다. 6월 서울숲에서는 프로젝트 루미너리의 〈항해〉와 오정은의 인형극 〈여행-가방속에서 꺼낸 기억〉 등 6팀이 9회 공연한다.

일시 6월 11일(토)~12일(일) 오후 2시~6시
장소 서울숲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290-7169

12 SUN

김윤지 개인전 〈얼굴〉

2016 갤러리 맺음 후원공모 선정작. 작가 자신이 갖고 있는 수많은 얼굴을 캔버스에 담았다. 무엇이 자신을 지치고 아프게 또는 강하게 만들었는지 직접 보고 이해하기 위해 작업한 작품.

일시 6월 12일(일)~7월 2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서울예술치유허브 갤러리 맺음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290-7169

14 TUE

연극 〈사이레니아〉

제스로컴튼 원작으로 2명의 배우와 30명의 관객이 있는 한 공간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관객은 블랙록 등대에서 실종된 등대지기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그 공간 자체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일시 6월 14일(토)~8월 15일(월) 평일 오후 8시·9시 15분, 주말·공휴일 오후 3시·5시·7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대학로 TOM(티오엠) 연습실 A
관람료 전석 3만5천 원
문의 02-541-2929

15 WED

국립창극단 〈배비장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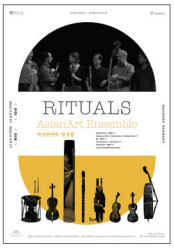
2015~2016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의 마지막 작품. 2012년 초연 이후 2년 반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무대로, 양반의 허례허식을 꼬집은 판소리'배비장타령'을 바탕으로 했다. 흥겨운 춤과 국보급 재담이 어우러져 펼치는 풍자 한마당은 관객에게 시원한 웃음을 선사할 예정.

일시 6월 15일(수)~26일(일) 화·수·주말 오후 3시, 목·금 오후 8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5천 원, A석 2만 원
문의 ntok.go.kr 02-2280-4114~6

KBS와 함께하는 한국어 포스터 전시

한국어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 다양한 한국어 포스터와 현수막 등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시민청과 KBS 공동 주관으로 KBS아나운서 팬사인회도 함께 진행된다.

일시 6월 15일(수)~21일(화) 오전 9시~오후 9시
장소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1층 시민플라자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120



현대음악시리즈 1-AsianArt Ensemble 〈Rituals〉

유럽 현대음악의 트렌드를 반영한 정일련의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앙상블. 현악 4중주와 한·중·일의 악기가 만나 동서양 음악 세계를 아우르는 현대 음악의 최신 경향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다.

일시 6월 15일(수) 콘서트, 16일(목) 워크숍
장소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hanokmaeul.or.kr 02-2261-0500

16 THU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 개막 〈#tag(해시태그)〉, 전시 〈장소와 각주〉

금천예술공장 7기 입주작가의 작업 공간을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한다. 스튜디오에서 작가와 작품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이번 행사의 개막식에서는 네트워킹 티파티를 시작으로 가수 하림 등 밴드의 공연과 퍼포먼스, 그룹 전시를 만날 수 있다. 기획전시 〈장소와 각주〉는 6기 작가들의 작업으로 꾸려질 예정.

일시 6월 16일(목)~19(일) 오후 4시 〈#tag(해시태그)〉
16일(목)~7월 5일(금) 〈장소와 각주〉
장소 금천예술공장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807-4800

연극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혜화동 1번지 6기 동인 봄페스티벌 〈심시티-도시삶의 비용〉 6편 중 마지막 작품이다. 혜화동 1번지의 한 달 운영비와 옥탑의 월세를 비교하며 지하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에서의 연극과 삶의 비용에 대해 이야기한다. 구자혜·이리 작, 구자혜 연출, '여기는 당연히, 극장' 제작.

일시 6월 16일(목)~6월 26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연극실험실 혜화동 1번지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70-8276-0917

17 FRI

바스락콘서트

시민들이 직접 예술 활동을 하며 가꾸어온, 오롯이 본인들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우리동네 작은 발표회'가 진행된다. KT와 함께하는 K-POP 특별 콘서트도 만날 수 있다.

일시 6월 17일(금) 오후 7시~8시30분, 18일(토), 19일(일) 오후 3시~4시 30분
장소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2층 바스락홀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0057

18 SAT

거리예술 시즌제-어린이대공원

'거리'에서 만나는 '예술'을 주제로 4월~6월 주말마다 도심 속 공원에서 진행되는 거리예술 공연프로그램이다. 6월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어른과 아이가 함께 놀이를 탐구하는 코끼리들이 웃는다의 〈놀이사용설명서〉와 레옹과 마틸다가 등장해 비눗방울, 마임쇼를 선사할 팀 클라운의 〈경상도 비눗방울〉 등 6팀이 9회 공연한다.

일시 6월 18일(토)~19일(일) 오후 2시~6시
장소 어린이대공원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290-7169

연극 〈미소나래〉

서울메세나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극단 시선의 연극이다. 미소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세 춤꾼의 사랑과 인생을 춤이 담긴 이야기로 풀어냈다.

일시 6월 18일(토) 오후 4시·7시, 19일(일) 오후 7시
장소 동숭무대소극장
관람료 미정
문의 02-716-7715

19 SUN

서울챔버 오케스트라 제87회 정기연주회

1978년 창단돼 맑은 음색과 박진감을 자랑하는 실내악단이다. 김상진 지휘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연주자 권혁주가 협연하는 모차르트와 그리그의 음악을 만날 수 있다.

일시 6월 19일(일) 오후 5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문의 mastmedia.co.kr 02-541-2513

22 WED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는 고품격 국악 브런치 콘서트 〈정오의 음악회〉가 스타 소리꾼 송소희를 만났다. 국악관현악곡 〈아리랑 환상곡〉으로 시작해 아쟁 연주자 김영길의 연주와 송소희의 민요, 강준일 작곡의 〈내 나라, 금수강산〉까지 시원한 무대로 찾아올 예정.

일시 6월 22일(수) 오전 11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R석 1만5천 원, S석 1만 원
문의 ntok.go.kr 02-2280-4114~6

23 THU

전시 〈소심한 저항-창대한 시작〉

"시작도 미약하고 끝도 미약하리라"라는 예측 속에 201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각예술가의 일상 속 창작에 대한 고민과 생존에 대해 관객과 소통하고자 기획한 그룹 전시다.

일시 6월 23일(목)~26일(일) 오전 11시~오후 8시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다목적실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33-7219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2016

핸드메이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개인과 단체 그리고 커뮤니티의 활동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축제. 3회를 맞이하여 창작공방 프로그램, 캐리커처, 애프터눈 스테이지, 라이브페인팅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일시 6월 23일(목)~26일(일) 오전 11시~오후 7시
장소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
입장료 7천 원
문의 seoulhandmadefair.co.kr 02-333-0317

25 SAT

거리예술 시즌제-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에서 만나는 '예술'을 주제로 4월~6월 주말마다 도심 속 공원에서 진행되는 거리예술 공연프로그램이다. 6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는 아이부터 어른이 되기까지의 굴레를 거리극으로 풀어낸 배낭속사람들의 〈WORK〉와 쉴 틈 없이 관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프로젝트 모아의 〈바가&본드〉 등 4팀이 6회 공연한다.

일시 6월 25일(토)~26일(일) 오후 2시~5시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290-7169

I·해커톤·U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인 '해커톤'은 정해진 시간 동안 특정 주제에 대해 팀을 꾸리고 아이디어부터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한다. 이번 해커톤은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로, 서울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더 나은 서울을 위해 힘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시 6월 25일(토)~26일(일)
장소 서울 상암 에스플렉스센터
접수기간 ~6월 3일(금) 오후 6시
문의 sba.seoul.kr 02-2222-3839

정리 **이나래**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아트서울 ART SEOUL, GIVE TOGETHER
기부투게더

당신의 응원이 예술을 키워냅니다.

아트서울 기부투게더
소소한 기부

www.givetogether.or.kr

**시민과 예술가 누구나 모금과 기부로 소통할 수 있는 곳,
예술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곳,
아트서울 기부투게더!**

작지만 열정어린 **24개의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응원**을 기다립니다.

—

안티고네
일탈 그리고 음악
창작프로젝트 '이별하는 중입니다'
칠꽃 시즌2
〈컬러링북〉그림을 그리며, 네팔을 도와요!
Eco ReCy-Clean(에코 리싸이클린)
혜인..난감
서울,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

여름방학특선 배리어프리영화상영회
네모 눈
제2회 서촌공연예술축제
한옥에 들어온 푸른국악
'함께 모여 땀을 흘리자' [목욕재개]
통감@아동성폭력 근절을 향한 대학생 대합창
페스티벌 필하모닉 16회 정기연주회-Happy, Together
어쩌다 프로젝트: 점자 그림동화책 출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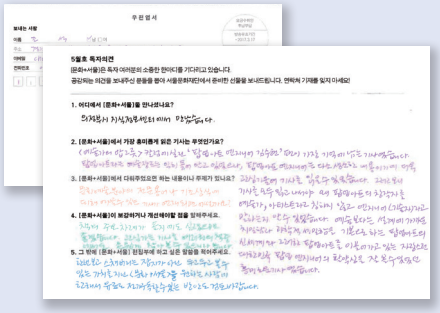
연극〈청춘역습〉
W-ing 프로젝트 '청소년에게 날개를'
환기미술관 치매노인대상 교육
갑자기 별별음악
한강다리 드로잉 엽서 프로젝트
안녕, 솔롱고 - 다양한 아동문학
여기는 '흥'신소
노트르콰르텟 제2회 정기연주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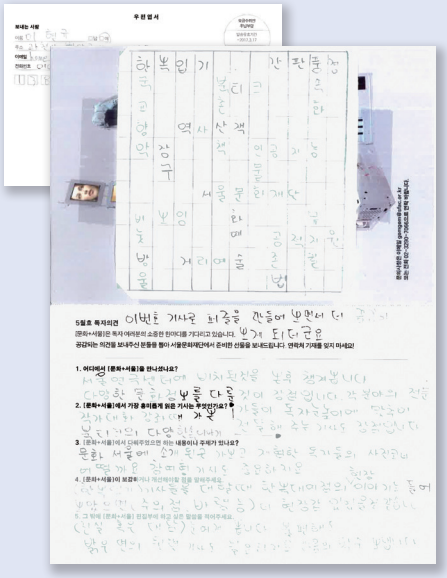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서울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가 있나요?
4. [문화+서울]이 보강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주세요.
5. 그 밖에 [문화+서울]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1. 의정부시 지식정보센터에서 만났습니다.
2. '예술가의 밥그릇' 칼럼에 실린 '팝업아트 엔지니어 김수현'편이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였습니다. 팝업아트라는 예술 장르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나, 팝업아트 엔지니어는 다소 생소한 내용이기에 더욱 관심 기울여 기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기사를 모두 읽고 나서야 왜 팝업아트 창작자를 예술가, 아티스트라 칭하지 않고 엔지니어(기술자)라고 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술보다는 설계에 가까운 치밀함과 과학적 세밀함을 기본으로 하는 팝업아트의 신세계와 그러한 팝업아트를 이끌어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팝업 엔지니어의 활약상을 볼 수 있었던 흥미로운 기사였습니다.
3.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용어나 기초상식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사가 연재되면 어떨까요?
4. 책의 주요 차례가 표지에도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는 기사를 여러 권의 책 중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5. 한 번 보고 스쳐버리는 잡지가 아닌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가치를 지닌 [문화+서울]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유료로 정기구독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바랍니다.

조석 님



1. 서울연극센터에 비치된 것을 챙겨 봅니다. 다양한 문화 정보를 다룬 것이 장점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독자 눈높이에 맞추어 전달해주는 기사도 장점입니다.
2. 작가 대화 강좌 때 가본 북티크의 다양한 속 이야기.
3. [문화+서울]에 소개된 곳을 가보고 체험한 독자들의 사진 코너 어떨까요? 참여형 기사도 중요하지요.
4. '한복 입기' 기사들을 대할 때 한복대여점의 현장 이야기도 들어보았으면(주의점, 바람 등) 더 현장감 있었을 것 같습니다.
5. '진실 혹은 대담' 눈여겨봅니다. 불편해도 밝은 면의 뒷면 기사도 필요하지요. 마음의 박수 보냅니다.

이현규 님

편집 후기

'그게 뭐 별거야?'라며 매몰차게 킬했던 존재. 이제는 꿈이 되어 눈앞에서 아른거립니다. 어디 타임머신 없나요?
이규승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형광펜을 들고 발라 모르굴리스에 밑줄 긋는다. 곧, 은빛여름이다.
안현미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차장

서울의 많은 문화·예술 정보를 캘린더에 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 알기 아까운 보석 같은 정보가 있으시다면 아래 주소로 메일주세요! narae@sfac.or.kr
이나래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실시간으로 정보가 쏟아지는 지금 이 시대에 한 달에 한 번 만들어 내는 월간지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전민정 | 객원 편집위원

[문화+서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문화+서울] 웹진(www.sfac.or.kr/munhwaplusseoul)에서
매달 업데이트되는 기사를 편리하게 만나시거나,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금천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남산창작센터, 동숭아트센터, 대학로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몽앤몽, 문래예술공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청 문화체육과,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중랑아트갤러리, 한국공연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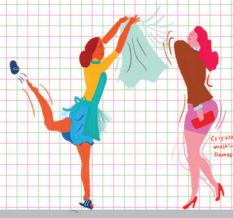
서울댄스: Seoul Dance Project

2016 서울댄스프로젝트

'춤'으로 함께 소통하며
삶의 활력을 찾는 춤추는 공동체!

춤바람 커뮤니티 모집

04/01(금)-05/09(월)



'춤'에 관한 무한한 상상을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찾는 청년 공동체!

청년참x춤 모집

05/02(월)-05/20(금)

'춤'을 사랑하는
100인의 서울시민!

춤단 4기 모집

05/06(금)-06/06(월)

'춤단'과 함께 도시의 결을 따라
삶의 기운을 북돋는 춤판!

게릴라 춤판

09/03(토), 09/10(토),
09/17(토)

서울시민들이
춤추는 날!

서울 무도회

09/24(토)

※각 프로그램별 모집안내 및 공연정보는 공식 홈페이지(www.seouldance.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 서울문화재단

6

테마 토크
삶이 예술로 풍요로워지는 예술교육 현장 속으로

사람과 사람
시인·국회의원 도종환

진실 혹은 대답
표절, 자본의 논리와 예술의 윤리 사이

쟁점 1
이화마을 벽화 훼손 사건, 갈등과 과제

쟁점 2
서울시의 박물관·미술관 건립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와 우려

화제
광역시도문화재단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창립총회 개최

공간 1
재래시장에서 만나는 〈시장에 간 서커스〉

공간 2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복합문화공간 '플랫폼창동61'

6월의 서울문화매뉴얼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9 771739 774005 06
ISSN 1739-774X